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97/11·12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7. 10. 20/ 등록일: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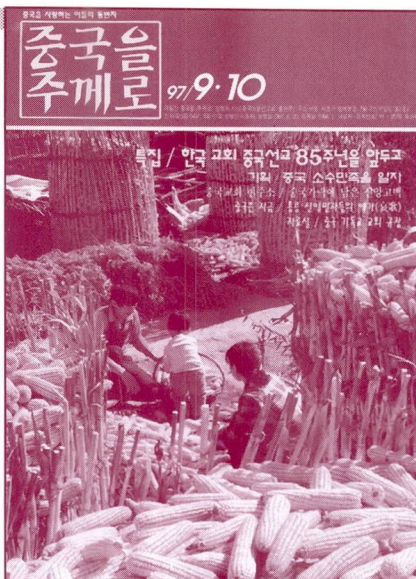
특집/ 선교사의 삶과 시역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교회 현주소/ 젊은 교회, 젊은 지도력

중국은 지금/ 깨어치는 금기

중국동향 초점/ 중국 공산당 16차 전국대표자대회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혀지기 원합니다.

익어진 쌀,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희친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김 선교사님께

이동화

김 선교사님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요즘 선교사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선교사님이 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만 하더라도 2년 반 만에 만나는 선교사님의 해맑은 모습을 그리며 마음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맞이하는 선교사님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서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현관 불빛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때는 이미 급성 간염으로 현지 병원에서 두 달 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 병세가 완연했습니다. 그동안 선교비가 충분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사모님과 어린 정은이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사모님도 꽤 심신이 지쳐있는 듯 했습니다. 원래 활달한 성격이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보안상의 압박에다 생활과라 병고까지 겹쳐 그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저녁 제가 선교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할 때 사모님께서 그토록 우셨던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음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두 분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신대원 수석 중업의 특전으로 주어진 미국 유학의 길은 포기하고 중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결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듯 따라나선 사모님. 왜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안겨 주십니까? 이제 언어준비도 거의 끝나 얼마 후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병마가 선교사님을 치도록 내버려두십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당신이 찾고, 또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날밤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

다. 선교사님, 나는 오늘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 라파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라 선교사님의 손상된 간기능은 물론 사모님의 낙심한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만 줄입니다.

서울에서 동역자 윤림.

특집 / 선교사의 삶과 사역

- 8 점검! 하나님비자, 중국비자 하기종
12 바람직한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하여 피터김
18 중국선교사, 그 보람과 희망 신장노
23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강성광
26 선교사 파송, 끝이 아니라 시작 석은혜
32 중국선교사 훈련 및 안식년 프로그램 편집부

선교나침반

- 4 선교일언 중국 종교정책 이해와 중국선교 장다니엘
37 디아스포라 한국인 건강한 한국인의 자화상 회복이 필요하다 하기종
42 중국교회 현주소 젊은 교회, 젊은 지도력
46 궁금합니다 어떻게 유학 수속을 해야합니까? 석은혜

- 48 중국 교회 체험기(11)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부흥 메이쥙즈(梅增知)
52 현지에서 온 소식 선교의 한냉전선이 흐르는 중국 송이민
54 중국 성도 간증 신장(新疆)의 봄 옌사(晏沙)

인물·역사

- 58 중국 교회 순례(7) 윈난(雲南)교회
61 중국의 신앙인물(6) 관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왕짜이(王載)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자유의 염원 방지일
68 중국선교사 행전(2) 개신교 중국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스 이병길

- 71 중국은 지금 깨어지는 금기 지슈오밍(紀碩鳴)
74 시사연구 “신총칭”의 오늘과 내일
78 중국동향 초점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84 내몽고자치구의 소수민족(Ⅱ)-다워얼족, 어원커족, 어룬춘족 편집부
96 성립 50주년을 맞은 내몽고자치구

1997년 11, 12월 통권 제48호

중국을 알자

- 82 중국 · 중국인 중국의 백만장자들
- 100 중국 이해 종교다원주의 세계관과 중국선교 김태연
- 102 중국 기행 여인천하에 가다 석은혜
- 110 중국 단기 선교 여행코스(4) 지난(濟南) · 다롄(大連) · 청다오(靑島) 유재승
- 116 중국영화 감상 풍월(風月) 이창우
- 118 중국 문화 중국인의 마음에 새겨진 용(龍) 권수영

자료실

13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199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공보

- 발행인 칼럼 김 선교사님께 이동화 1
- 묵상의 샘 예수님의 평안 36
- 선교 다이제스트 바깥 사람들 47
- 만화 선교 중국어 最大的財富 김성준 106
- 만화 선교 중국어 해설 最大的財富(최대의 재산) 차이나 107
- 중국어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以馬內利來臨歌) 108
- 중국어 복음성가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因祿聖名我們敬拜) 109
- 시사만평 냉정한 일처리(冷處理) 왕러텐(王樂天) 51
- 중국인의 유모어 重振雄風(남편의 위풍을 떨치다가) 99
- 세계선교 동향 DAWN 프로젝트 121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연구부 126
- 신간 도서 『홍콩을 알자』 외 2권 132
- 선교단신 133
- 선교복덕방 일꾼을 찾습니다 134

별책부록 '중국을 주께로' 기도칼린더 (' 97. 11, 12월)

표지설명

영동성산에도 영을 깨고
고기를 잡고 있는 중국 서민들.
이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 본다



중국 종교정책 이해와 중국선교

장다니엘



베이징의 숭문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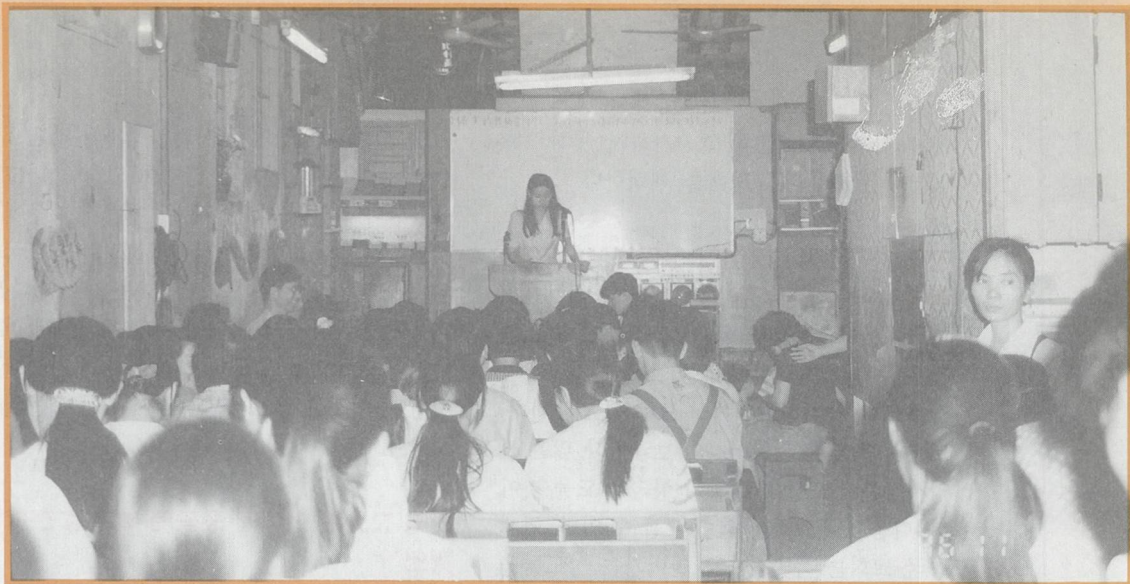
중국 공산정권과 종교(기독교)

중국 종교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자교회로 제한되고, 가정교회는 불법적인 모임이므로 이 단집단으로 간주된다. 현재 중국 대륙에는 약 9천만 명의 기독교 신도가 있는데, 그 중 삼자교회의 신도는 약 1천5백만 명이며 가정교회 신도는 약 7천5백만 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음 사역은 여전히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이며 유일신을 반대한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정책은, 있는 대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억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중공 정권이 기독교에 대응했던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멸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문화혁명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몰수당하고 구타당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노동개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토록 박해를 받았으나 기독교는 점점 부흥되었고, 성령 사역도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다. 문혁 이후 중국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기독교를 소멸시킬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종교국의 지도하에 당의 종교정책을 대행하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규정과 금지사항으로 제한하였다. 그들이 내세우는 삼자교회(자치:自治, 자전:自傳, 자양:自養)의 표면상의 의미는, 중국 기독교는 어떠한 외래의 자금, 자원, 지원,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제 외부 사람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정책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자회의의 요구는 성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계시록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과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사에 대한 설교는 허



광저우의 따마판교회 예배장면

락하지 않는다. 둘째, 설교 내용은 반드시 종교국의 허락을 받은 후에 설교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집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집회할 수 없다. 넷째, 일체의 외부 전도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섯째, 복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섯째,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종교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종교국 자체는 대부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삼자교회가 열렸을 당시 중국 기독교 인구중 90%는 삼자에 참가하지 않고, 단지 약 10%의 기독교인만 참가했다. 때문에 중국 교회는 이때부터 확연하게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크게 두 파로 나누어졌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삼자교회'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가정교회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단 사설이라 하여 엄격히 타파했다. 삼자교회 측에서도 가정교회를 이단 사설로 결정하자, 가정교회도 삼자교회를 '대음부(大淫婦)'라 정죄하여, 이 때부터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간의 큰 갈등이 시작되었다. 심한 지역은 수재가 낮을 때조차 서로 상종치 않으려 하였다. 특히 중남 지역의 경우 삼자와 가정교회와의 갈등과 질서가 매우 심하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공산정부의 계략이다.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계략에 몰아넣고 서로를 상처입게 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잇고, 믿는 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므로 불신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현재 <삼자>는 여전히 교회 목사와 장로의 임직과 이동을 종교국 아래에 두고 모두 종교국의 심사를 거치게 한다).

세 번째 시기는 표면적 개방기라 할 수 있는 최근 10여 년 간이다. 이시기에 13개 신학원이 개방되어 표면적으로는 삼자교회의 목사의 수와 자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모집하는 학생수도 적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질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신학원에는 참고서와 자료 등 읽을 만한 성경 강해서, 신앙서적 등이 거의 없다(중국은 기독교 자료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과 중국 내에서 승인없이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학교의 목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이며, 신학 수준과 영성 수준이 좋다. 50세 이하의 교수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학 수준과 영성 정도가 부족하다. 전도사나 교사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준이 낮고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는 내부적인 부패가 시작된다. 이것은 중국이 중국 기독교에 대한 가장 무서운 독을 퍼뜨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중국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첫째, 가정교회는 비합법적 조직으로 이단 사설의 종교로 규정하고 '엔다'정책에 포함시킨다(최근 1997년 3월, 1명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불잡혀 사형당하였다). 둘째, 삼자교회

에 대하여는 “옌관(嚴管:증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정책을 채택한다

현재 중국 종교 정책의 상황에서 중국의 복음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의 복음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수한 전도인이다. 이들은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삼자신학원에서 모두 필요로 한다. 또한 더욱 많은 신앙서적의 보급이다. 많은 신앙서적은 신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울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의 건립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성도들을 수용할 더 많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를 지을 만한 경비가 없다. 그러나 교회를 짓기 이전에 반드시 전도인과 사역자, 신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양육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큰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할 것이다.

중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통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비밀리에 가정교회와 연락하여 가정교회를 위한 우수한 양육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도가 유망한 크리스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세번째로 교사와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대학원)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대학 내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모집하여 보내고, 다시 성도를 양육해서 이들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성도의 성경 기초가 부족하여 이단이 생겨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세 가지

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투자와 캠퍼스 사역 등 전문인 선교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가정교회 사역은 언어관계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중국 가정교회는 한국의 전도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중남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을 인도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역이 힘든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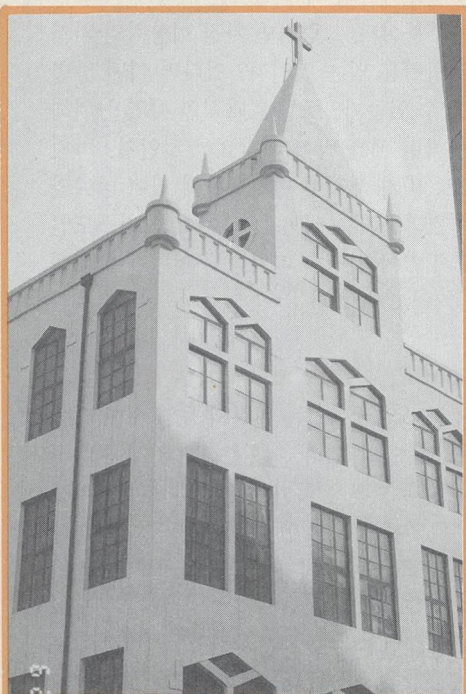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어떻게 중국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에 복음이 완전히 개방될 때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립하고 교회 사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정기간 동안은 개방이 불가능하다. 일단 개방이 되면 기독교인은 증가하여 중국의 무신론이 자연 와해될 터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8만 명의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좋은 기회이다. 중기적인 목표는 한국에 온 중국 노동자가 예수를 믿은 뒤 신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그들과 중국 교회가 연합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양육으로 그들을 양육한 후 그들이 중국에 교회를 건립하도록 후원하는 방법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장다니엘/ 대만인 중국 사역자
번역/ 김은화-본지 편집기자





선교사의 삶과 사역

선교의 중심축은 선교사의 파송이다.

그러기에 선교사의 파송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일은 파송 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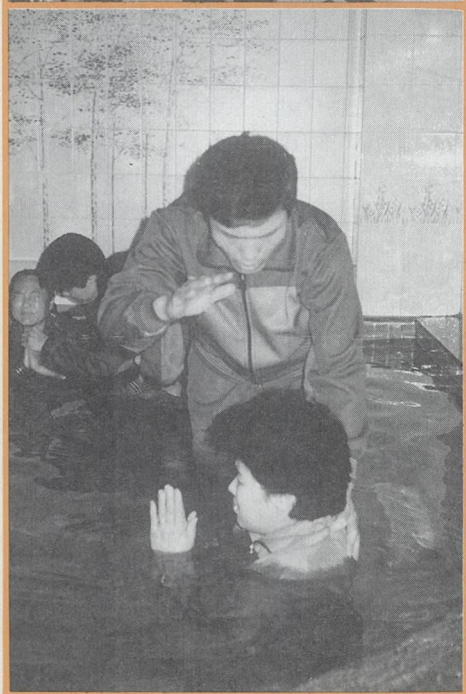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의 지원일 것이다.

그것은 선교의 성공여부가

선교사의 사역의 어려움에 달려 있고,

이 또한 그들 가정과 일상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선교지가 선교에 불리한 중국과 같은 곳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점점! 하심 비자, 중국 비자

하기중

사회주의와 회교국에서의 선교사 체류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슈화된 일이다. 사실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장기체류는 선교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사역을 위한 선교사들의 체류 비자는 가별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자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들 수 있는가? 또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체류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비자 해결이 현지생활에 있어 얼마만큼의 효과를 약속해 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비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 비자의 종류 및 해결 방법

현재 중국은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얼마 전 홍콩반환을 무사히 끝내고, 향후 되찾을 마카오를 넘나보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반면 중국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신장(新疆)과 시짱(西藏: 티벳)자치구, 그리고 대만(台灣) 문제는 중국의 앞날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상대로한 또 하나의 패권주의를 꿈꾸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꿈틀거리고 있다. 얼마전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앞으로 나라의 안정을 바탕으로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총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에 따라 국방비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온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기류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무튼 중국 내부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까지 재미 보아왔던 개혁 개방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사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야하기에, 그 해결방법 역시 다양한 변수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필자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독자 스스로 선택하여 중국 체류에 약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래 도표는 현재 중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종류이다.

구분	통칭		체류일	비자의 특성
L VISA	관광비자		30일	중국여행,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 입국 후 30일 체류 가능. 체류기간 연장불가.
F VISA	상용비자	SEL	30일	시찰, 세미나, 박람회,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사업차 입국하는 자, 중국어 어학 연수 과정으로 수업일이 6개월 이하인 자에게 발급. 체류기간 연장 가능.
		HKG	90일	
		SEL	多次 180일	상용비자의 특성과 동일하며, 6개월 자유왕래 및 체류가능. 단 30일 이상 체류 불가.
		심천	多次 180일	상용비자의 특성과 동일하며, 6개월 자유왕래 및 체류가능.
X VISA	유학비자		수업시간	중국언어연수, 중국유학, 실습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JW202, 입학허가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Z VISA	주재원 비자		1년	기업체의 현지 상사원, 주재원 또는 수행가족에게 발급한다.
G VISA	경유지 비자		7일 2회	중국을 경유 제3국으로 이동하는 자에게 발급되며, 최종 목적지의 비자 및 항공권이 구비되어야 함.
D VISA	정착지 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C VISA	승무원 비자			항공기 승무원, 항운, 선박의 선원 및 수행가족에게 발급.
J-1 VISA	특파원 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특파원에게 발급.
J-2 VISA	취재 비자			임시로 중국에 취재하러 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

자료참조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개로 7. 8월호

위에서 살펴본대로 비자의 종류와 해결방법은 다양하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L비자를 제외한 F, X, Z비자를 통한 체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각 비자마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간(X비자)을, 때론 물질(Z비자)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교사 개인의 사역방향과 범위가 천차만별이기에, 이상적 체류라는 말은 지극히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각 지역 형편에 따라 체류 양태가 다를 수 있기에 독자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선교지역에 먼저 와 있는 선배 선교사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는 길이다.

이에 필자의 체류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독자 스스로의 정착 모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Z비자(주재원 비자)

필자는 Z비자를 받고 장기체류하고 있었다 (독자들에게 자세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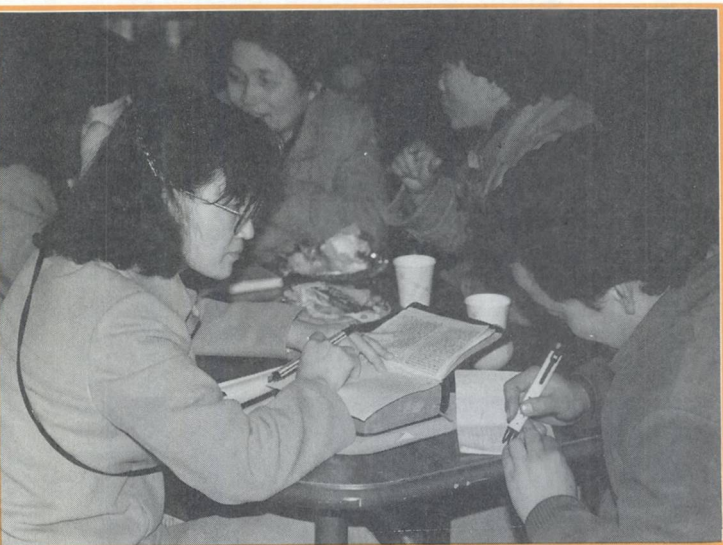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전문인선교사로서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지해주시기 바람). 필자가 그랬듯이 Z비자를 받은 경우는, 현지 직원들과의 밀접한 인간관계 유지, 매일 출퇴근 시간 엄수, 매일 일정량의 경제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은 중국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투자해야 할 부분이 결코 간단치 않다. 그러기에 필자 역시 한때 깊은 회의에 빠진 적도 있다. “내가 선교하러 왔지, 이런 일하러 왔나?” 더 나아가 선교비 운영경비의 지출은 또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역에 있어 제외시키거나 생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없는 것인가?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籍)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략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반드시 폭넓은 사역 안목과 선교적 마인드, 실질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다각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X(유학)비자

X 비자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매일 반복되는 수업일정(언어연수 과정, 본과 과정)과 연 US\$2,000~5,500의 수업료 지출도 큰 부담이었지만, 체류기간이 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일수와 맞물려 있기에 한 지역에서 장기체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손쉬운 체류방법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한족과 소수민족에 관심있는 선교사라면 이 시기를 언어훈련과 사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선용할 수 있다. 대학 4년, 연구생(대학원 과정) 3년을 기준한다면 한 지역에서 적어도 7년을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상용)비자

새로운 체류방안으로 F비자를 들 수 있다. F 비자는 한국내 여행사 대행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최고 체류기간은 6개월 이상(1회 연장가능)이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지공안국에 선교사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고도 중·단기 사역을 할 수 있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다. 단, 중·장기 선교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세밀한 선교사역엔 많은 허점이 있기에 권할만 하지 않다. 이 체류방식은 주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순회 사역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없는 것인가?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籍)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는 한국 기독교 실업인이 대다수 투자중이다. 이러한 기독교 실업인과의 연대전략이 현지에서 잘 모색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체류방법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내 진출한 기독교 실업인들의 비협조 문제와 그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실업인 중 선교적 안목이 없는 부류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선교에 직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꺼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대기업에서의 비자 문제 해결은 해당 회사의 철저한 '인원 편제관리'로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기업내 독자투자 기업이 그나마 용이한 편이다.

아무튼, 중국내 장기체류를 통한 선교전략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상황이 어렵다고 당장 싸워야 될 영적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끊임없는 전술전략 개발, 즉 장기거류나 임시거류를 통한 선교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신된 선교사들이 자주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야 한다. 이전 동북삼성 중심과 대도시 위주에서 서서히 내지(内地)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폭넓은 하

나눔나라 확장을 위해 이 비자문제는 다각도로 연구, 협력,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자문제보다 사람이 문제

많은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최대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 손쉽게 체류할 것인가이다. 사실상 비자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비자해결은 사역에 있어 하나의 요소와 시작일 뿐 선교사의 모든 삶을 대신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당사자의 문제가 선결조건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만큼 점검받고 선교지로 왔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체제조건이라기 보다 사람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가 지극히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의아하게 생각할 독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단순한 열정과 감정적 헌신, 그리고 업적 위주의 사역은 사역의 생명을 짧게 만든다. 또한 동역자와의 분열, 모함, 다툼 같은 ‘사람의 일’은 체제 문제 이전에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비자 해결과 든든한 배경(교단, 선교단체, 교회, 개인 등)이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분명 선교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붙잡혀 일하게 될 일꾼 곧, 선교사 자신의 문제는 전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선교사 개개인에게 주신 비자”, 즉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먼저 확인해야 함이 옳다.

“하나님이 주신 비자”없이 행해지는 “제도적 비자”는 무의미한 울리는 팽파리일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비준(批准)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주실 것이다(잠16:1~3). 선교사에게 있어서 외부적 상황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모든 행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

호와께 “맡기는(entrust)” 행위와 그분의 인정됨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일꾼으로 보내기 이전에 당신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신다. 어떤 면에서 일(job ministry)보다 사람, 곧 선교사의 거룩한 헌신됨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필자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힘써 강조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도 초창기에 비자문제로 많은 고심을 했으나, 기적적으로 비자를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의 원론적인 부분, 즉 하나님의 비준을 생략해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사역’에 집착하여 기술적이고 방법론인 부분에만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이같은 심각한 매너리즘과 나 자신이 점점 소진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매우 괴로워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소명의식에 관한 하나님의 비준”이라고 확신한다. “선교사가 어떻게 소명의식도 없이 선교지에 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론적이고 절차를 밟은 형태로서의 ‘소명의식’이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 그분의 확인(signature)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선교사 개인의 ‘고백적 삶’이 필요할 뿐이다.

글을 맺으면서, 중국선교에 헌신한 선교후보생 뿐만 아니라 이미 도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기를 권면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자(signature)’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나라(Kingdom of God)가 요구하는 충성된 종(마 25:14~30)으로 살고 있는가? 이 일이야말로 선교사에게 있어 최선의 비자 해결이 아니겠는가?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비림직한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하여

피터 김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를 결심하는데 가장 많이 고심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자녀들의 장래에 관한 일일 것이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자녀교육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떠났다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교육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자녀교육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근 들어 한국의 파송교회와 선교기관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선교사의 자녀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의 상황에 따라 관점들이 달라서 모든 사례를 다 논하기에는 제약이 있기에, 여기는 중국 선교지에 서의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선교사 자녀들의 연령분포

한국의 중국선교사 파송이 대략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그 역사는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97년 현재 중국에 파송된 한국선교사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이다. 대략 전체 선교사의 60~70%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를 중국에서 출산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선교지에 오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 모두 학교 교육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선교사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초반에 파송된 선교사의 경우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일 경우는 아직까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대부분 본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는 비교적 보기 어렵다.

선교사 자녀들의 이러한 연령적인 분포를 감안한다면, 우선 초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어

는 국가든지 대체로 초등학교 학교교육에서 는 모국어의 습득과 올바른 국가의식을 함양 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교육 목표를 사회주의 국가에 알맞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의 선교사 자녀를 현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할 경우 무신론 사상을 배우게 될 위험성이 염려된다. 그리고 이 시기는 모국어와 동시에 현지어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 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선호하게 된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국적과 자녀교육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미국 등지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경우는 더 복잡해서, 부모는 아직 한국 국적인데 자녀들은 미국여권을 가진 경우가 많다. 드물지만 선교사 부부간에 국적이 다른, 예를 들면 남편이 한국인이고 부인이 대만인 또는 싱가포르인 경우도 있다. 독자들은 부모의 국적과 자녀들의 언어교육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 부모들은 자녀의 모국어를 어느 언어로 할 것인가와, 장차 자녀가 살아 갈 나라가 어디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의 실천에 있어 공감대를 가지고 통일된 방안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필자도 많은 선교사들과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로 함께 논의해 보면서, 선교사 자녀교육의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기본정책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침 한국 교회와 중국선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지난 93년도에 개최된 「제1회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협의회」에 참

한국인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의 실천에 있어 공감대를 가지고 통일된 방안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석했던 선교사들에 의해 결의된 결의문에서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인 선교사 자녀가 한국인의 얼과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도록하여 장차 살게될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한다.”¹⁾

필자는 중국 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의 실태를 살피면서 위 목표에 비추어 비교적 바람직한 자녀교육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선교사 자녀들의 초등학교 교육실태

버프만은 「선교사 자녀의 생활과 생애」에서

1) 이태웅 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p. 139

서구 선교사들의 학교교육 수단을 6가지 모델로 제시했지만, 93년도에 한국선교사들은 유치원,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선택하였거나 개발될 수 있는 모델이 12가지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²⁾.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정의 자녀교육 실천모델을 대체로 4가지 정도라고 본다.

현지 학교

대부분 현지에 외국인 학교나 한국인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지 학교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현지에 한국인 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중국어 습득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처음부터 현지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의 단점은 역시 모국어 구사가 힘들고 한국인의 열과 정체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많은 Y지역이나 P, S, C 지역에서 한국인 교회의 주말학교 혹은 주일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녀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외국인이어서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신론적 유물론 교육 사이에서 고통을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다. 공산당 사상교육의 폐해 때문에 결국 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인 학교로 보낸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선교기관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는 선교사라면, 어느 경우보다도 많은 시간과 관심을 자녀교육에 쏟아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교육과 사랑이 크면 클수록 현지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교사는 가정의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생활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현지 선교사 자녀학교 및 외국인 학교

사실 중국에서 이런 학교의 설립은 쉽지 않으며, 한국인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지역에 선교사 자녀교육기관이 생겼다. 그러나 교육시 주로 사용되는 언어 관계로 두 개의 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사실 선교사 자녀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혹은 삼중언어가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들로 하여금 현지어 또는 국제어인 영어를 탁월하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을 가정생활에서만 국한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인 선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미국인 선교사는 그들의 경험으로 충고한다. 모국어는 모국을 떠나면 현지어와 영어에 비해 현실적 요구가 가장 약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모국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국어의 발음이나 언어의 사용이 유창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만약 유창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모국어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현지어와 영어가 다소 부족한 경향을 보여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습득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한 언어만을 선택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감정이 통할 수 있는 모국어를 먼저 습득한 후 현지어와 영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 교육의 순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현지의 선교사 자녀학교가 삼중언어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잘 연구한다면, 구태여 한 지역에서 한국어 학교나 영어학교 등 두 가지 형태의 학교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여력으로 종교교 과정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선교사자녀 교육기관의 가장 큰 애로

2) 이태웅 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pp.135-140

사항은 정식 교육과정으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문제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물질 후원과 교사과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인정되는 법적인 교육인정을 위해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다 소화하면서 아울러 신앙교육과 삼중언어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아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위와 같은 자녀학교들이 한국 정부의 후원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도 적지 않다.

보통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는 베이징, 상하이같은 대도시에 있는데 학비가 매우 비싸서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상사주재원의 자녀들도 교육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특별히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의 '55중학교'이다. 수업은 중국어로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외국인이어서 학교 운영방식은 서구식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며, 학비는 1학기에 약 700달러(US\$)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제3국의 기독교학교

현지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없거나, 자녀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외국이나 모국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을 고려하게 된다. 한국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제3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사 자녀들을 책임질 제도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서구 교회는 한국 선교사의 자녀까지도 받아들여 교육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제3국으로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매우 좋은 케이스 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비가 소요된다. 세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들 모두 제3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방안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제3국의 국적을 취득

해야 하며 부모와 떨어진 채 다른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해야하는 딜레마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이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매우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3국에서 보낼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들을 제3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일찍부터 제3국 언어학습에 치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단지 선교사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으로 자녀를 보내 교육하고자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의 결과에 대한 회의감 및 자녀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택인 것이다.

모국의 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모국의 학교로 보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선교사 자녀들을 책임있게 관리해 줄 후원자 또는 선교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교사 개인의 친인척에게 맡겨 교육해야 한다. 이 때 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없게 되면 더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모국에서의 자녀교육도 상당한 교육비가 필요하며, 선교기관의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녀교육비의 후원모금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농어촌 목회자 자녀 기숙사처럼 해외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제도와 기숙사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실 이 요구는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98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에 해외선교사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가 해외선교사인 자녀가 해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만 2년 이상 다닌 것을 증명할 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숭실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동대, 숙명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전주대, 삼육대, 감리교신대, 고신대, 관신대, 대신대, 서울신대, 장로회신대, 총신대, 침례신대, 한영신대, 한일신대 등 2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제 선교사 자녀들의

3) 97년 7월 26일, 조선일보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학교에 다닐 경우, 공산주의 무신론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부모들의 세심한 양육이 필요하다. 사진은 중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풍 모습.

한국 대학교 특례입학의 길이 열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에도 경쟁이 심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본국에 와서 입시준비를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교육이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 제도에 입각하면 중학교 과정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중국 선교사의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모델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 중국인 유치원 - 중국 현지 한족학교 - 현지 중학교(初中) - 현지 고등학교(高中) - 중국 대학
- ▶ 한국어 학습을 위한 주말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파송교회에서 교사를 파견하여 1:1로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외진 곳의 선교사 자녀교육에 유리.
- ▶ 중국 대학 입학 후 한국의 자매결연 대학에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거나 한국 대학으로 편입학, 대학원 진학.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 현지 한국인 학교 - 현지 한족 중학교 - 현지 한족 고등학교 1학년 -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입학 - 특별전형으로 한국 대학 입학

- ▶ 한족 학교에서 중학과정을 마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한어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 ▶ 매 방학때마다 한국에 보내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익히게 한다.
- ▶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 대학원 과정을 중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한다.

미국(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 한국인 유치원-선교사 영어학교 - 제3국(영어) 중학교 - 제3국(영어) 고등학교 - 미국(외국)대학교
- ▶ 이 경우는 미국적 한국인이거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 자녀에게 적합하다. 혹은 제3국에 설립된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는 선교사의 자녀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이다.

중국선교사 자녀들의 신앙교육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주 잘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현지 중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생활에 대해 세심히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기도와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현지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무신론과 유물론을 신봉하기를 강요당하는 등 공산당 사상교육에 시달리고 부당한 물질요구로 고통받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부모가 함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어린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된다.

필자도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중국의 더러운 환경과 잘못된 물질관습에 대한 피해의식과 더불어 중국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치유하도록 노력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 선교사 자녀

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국의 선교단체가 “선교사 자녀(중고생) 수양회”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다행스럽게 여겼다. 자녀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신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굳건하게 서도록 돕는 것도 좋은 신앙교육 방법 중의 하나이다. 파송교회와 선교기관들도 선교사 가정 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중국 선교사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질 바른 생각

래리 샤프는 현지의 선교사나 파송 교회가 쉽게 갖는 잘못된 통념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⁴⁾

1. 선교지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인격 발육이 부진하며 어느 정도 결핍되어 있다.
2. 선교사 자녀들은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선교사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과 자기 부모에 대해 반항적이다.
4. 기숙사 환경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해가 되며 열등한 자아상을 가지게 한다.
5. 자녀를 둔 선교사 부모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서 생기는 틈을 주님이 메워 주신다고 믿는다.
6.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걱정할 만한 문제가 없다.

필자의 약 5년 간의 선교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 교회 내에도 이들 잘못된 6가지 통념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인 선교사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 지나친 교육열(?)을 갖고 있다. 선교지에서조차 영어와 중국어, 음악, 미술, 과외수업 등 한국의 과외붐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교지에서 좋지 않은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구 선교사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 선교사들은 자녀의 장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선교기관과 파송단체의 권유와 방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에, 선교기관과 파송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려깊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인만큼 자녀교육에 깊은 열의와 관심을 가진 민족은 드문 것 같다. 선교사라고 예외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20~30%가 차세대 선교사로 배출되고 있는 통계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투자와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더 좋은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잘 돕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수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춘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사 자녀 특별전형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선교사 자녀들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요구와 가능성이 많아지길 바라고, 이들 자녀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학제도와 기숙사의 설립, 더 나아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참고도서

『한국교회와 해외선교』, 이태웅, 조이선교회출판부, 1994년

『선교와 의료』, 전희근, 생명의 말씀사, 1997년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허버트 케인, 두란노서원, 1989년

4) Sharp, Larry W. 1985.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4: pp.. 73-78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중국선교사, 그 보람과 희망

-중국선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신장노

이 글은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로 준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 형식의 글이다.

진정으로 중국인을 섬기는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한 선배선교사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으리라 본다.

<편집자 주>

나는 “예수쟁이인 새끼”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복음의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더 많이 겪으면서 자라났다. 아버지가 종가의 장손이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했다.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는 집안 어른들과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저 예수쟁이 새끼”란 말이다. 나는 억울하게 당한 기분이 들어 늘 분통해했다.

나는 교회 가기가 싫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텐데 하며,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야말로 나에게 귀찮은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방법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리라 작심했다.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억지로 나가야 할 교회도 없으니,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어 자유스럽고 좋았다.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벗어나고 나니 얼마나 편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나와 씨름하며 일어난 자리

그런데 이전까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 책임이라고 핑계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주인이 되어서 판단해야만 했다. 처음에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어서 당황했다. 나 혼자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어리숙하고 보잘 것 없는 촌놈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절망이 엄습해왔다. 더우기 '나'라는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내 자신을 스스로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 때부터 정말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비난받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싫은 예수였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꺼림직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선교사 파송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설교 마지막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있으면 일어서라고 할 때 내 가슴은 혼란과 번민에 빠져 요동쳤다.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과, 날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조와 절망의 마음이 뒤범벅되어 싸우고 또 싸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으나, 물러날 수도 없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자신에게 갇히게 되고 말 것이란 공포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에 울면서 일어선 것이 나의 선교사 헌신이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아는 감격도 즐거움도 없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나 스스로가 주인되는 것을 포기했기에 마음 한 구석에 부담감은 없었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도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기에는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보잘 것 없는 하루살이도, 들꿀도 그 생을 살고 그 내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까짓 게!” 하고 꾸짖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교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갈 만한 일이며,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장승원 그림

이끌고 있다고 여겼던 고삐를 그 순간 끊어버렸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뿔힘을 받은 나는,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라는 것을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느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목사가 먼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실력이 없고 능력 없어 대학 진학을 못 하니 얼렁뚱땅 목사나 되어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져서 우선 대학에 가기로 했다. 만약 대학에 불지 못한다면 선교사 되는 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있는 한은 공부를

열심히 할 터이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제가 필요하시고 선교사 되려는 저의 마음이 틀리지 않다면 이번에 대학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학 가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중문고와 신학교에 진학하다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같은 선교헌신을 한 같은 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자매와 결혼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충실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신학을 하게 되었다.

아무 기쁨도 없이 선교헌신을 하고 고뇌하면서 선교지를 중국으로 정하고, 중국문학을 공부하는 중문학도가 되어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 거대한 나라, 무서운 나라, 무슨 사상이든지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린 민족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표현 한다면 마치 거대한 도가니와 같다는 느낌이었다. 뚝은 감을 그 도가니에 넣으면 뚝은 맛은 없어지고 맛있는 감으로 변하는 것이 어릴 적 나는 늘 신기했었다. 나는 이런 중국 사람들에게 이길 자신이 없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 대학 중문학과 시절이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나는 전도의 미려한 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주와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계신 실정이었다. 그러나 신학을 시작한 지 반년이 못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신학을 배우는 3년은 나의 생애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생명의 존귀함과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

졸업을 하고 한 교회 교역자로 봉사하였다. 선교지에 조금 늦게 나갈지라도 한국 교회를 잘 배우기 위해서였다. 나의 첫 사역지이자 마지막 사역지였던 그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대학부, 중등부와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봉사하면서 말씀의 권세가 크고 놀



장승원 그림

라움을 실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있던 지역의 기독교학생연합 멤버들과의 만남이다. 90년 겨울 ‘사랑방 모임’이란 성경공부를 통하여 씨클 중심의 대학생들과 매주 목요일 밤마다 만났는데, 이 모임이 자라서 이제 영호남의 교류와 지방과 서울과 연대하는 전국기독교학생총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런 젊은 동역자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았지만,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한 번 정한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으나 원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니 그 길이 나의 달려갈 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중국선교의 길을 떠나야 했다.

빛진자로 섬기기

중국과 수교가 되자 수속을 밟기 시작했고, 그토록 그리던 중국 땅을 밟았다. 우리들은 감격했고 감사가 넘쳤다. 한 대학에서 기본적인 언어과정을 마친 다음,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확보하고 중국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더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 많은 친구들의 권고, 격려와 동시에 많은 오해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돕는 길을 찾다 보니 공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의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다 보니 중국의 장래를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중국선교의 방향도 어렴풋이 잡힐 듯도 하다.

중국에 첫발을 내민 지 열흘도 안 되어 ○○대학교 회계학과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을 만났다. 약 8개월에 걸쳐 생활로서 전도하니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가 변화되니 주위 친구들이 변화의 원인을 궁금해 하다가 그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전하고 우리들을 소개하여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약 1년 간 성경공부를 통해 변화가 되니, 주위에 또 다른 친구들이 모여 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우리도

언어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 되니,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중국 교역자들을 붙여 주셨다. 이들은 앞으로 분명히 교회를 펴박하는 때가 올 터인데, 이것을 대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뜻이 맞는 몇몇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던 차에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인 사역자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이들의 실정과 복음에 대한 각오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중국인 동역자들이 원하는 바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비나 생활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친해지다보니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비를 쪼개어 그들을 돕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생활비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더 급한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서적을 복사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책이 조금 있을 경우 한 사람이 한 달에 겨우 한 권의 책을 빌려볼 수 있었다. 책이 필요해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장을 복사하려면 우리 돈 30원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고작 우리 돈 1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필요한 책들은 손으로 베껴서 본다면, 그것을 좀 도와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했다. 우리는 푼돈을 모아 몇십 권의 책을 10여 명의 동역자들에게 복사해 주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들의 사역은 중국인 사역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돕는 일 가운데 번역, 출판,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복사해 주거나 공급하는 일 등이다.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하는 방법은 생활로

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대상과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역경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 또한 개방화 이후 가정이 문란해지고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오락 및 휴식 공간이 없다. 어려서부터 단체생활에 익숙해 있으나 참다운 교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도된 그들을 가르치며, 같이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육은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적당한 셋집을 얻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번역하고 타이핑을 하는 일과 친구를 사귀며 교제를 주고 받는 일등은 고정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니면 곤란하다. 우선 장비를 놓고 관리하는 일이 그렇고

주위사람들의 감시와 경찰의 방문이 이러한 일을 방해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이다. 한국돈 4~5천만 원이면 70년간 사용과 함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가는 자와 보내는 교회와 기도하는 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줄 믿고 기다린다.

이제 중국에 온 지 꽤 세월이 지났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절실하고 실감나게 체험하며 산다. 참으로 복되고 감사가 넘친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생, 교수, 사업가, 그리고 중국인 교회 동역자들과 한국인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빛진 자들로 중국 성도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서도록 그들을 섬기기를 바란다.

신장노/ 중국 선교사

중국내 종교 신앙인은 1억명

종교사무국장 訪美 중 밝혀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예샤우원(葉小文) 국장과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 위원회의 덩푸촌(鄧福村) 목사 등 중국 종교계 대표단 일행 8명은 뉴욕에서 종교 교류 및 시찰, 현지 정계·종교계 인사들과 광범한 접촉을 가졌다고 신화(新華)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예 국장 일행은 지난 18일 유엔 인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현재 종교 자유의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수는 1억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 매체의 편견과 오도로 인해서 중국의 종교 현상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저널 제11호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하나님께 속한 안식년

강성광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쉴 줄 모르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열심히 잘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잘 쉴 수 있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에게 사역하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나는 자주 사역지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경고한다. 바쁜 사역 자체가 당신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특히 타문화권에서 긴장 가운데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선교사에게 있어서 안식년 기간은 매우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는 기계나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귄 가운데 그분을 깊이 알고, 그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더욱 확대되도록 소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 안식년

선교지에 나올 때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 그 자체이시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내 자신이 그분께 더욱 온전히 사로잡히고 드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나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목표의 슬로건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목표와 현실의 모습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여전히 외형적인 성취에 스스로 자위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갈망하고 계심을 느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식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지에서의 긴장과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서 상처입었던 부분들이 치유되었다.

파송 교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받게 하였다.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 있는 YWAM 열방 대학(University of All Nations)의 'C.D.T.S (Cros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코스와 연결되었다. 한국을 거쳐 아름다운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재창조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언어의 장벽과 또다른 문화의 충격이 있긴 했지만, 큰 부담 없이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자신의 모습들을 깊이 돌아보며 치유와 재충전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안식년 기간에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유익했던 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지에서의 긴장과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서 상처입었던 부분들이 치유되었다. 또 아이들과도 계속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나이 어려서 키우기 힘들 때 집을 떠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가정적으로 큰 축복이 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양 선교단체의 사역과 교육으로 더욱 효과적인 가정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는 너무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지만 선교지에서 놓치기 쉬웠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하는 영적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는 선교지를 떠나서 전세계의 선교적 필요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세계 선교 최전선에 설 수 있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자신의 선교지 외에 다른 세계선교지에 대한 중보기도와 관심이

부족했는데, 경배와 찬양, 중보기도를 통해 세계선교의 영적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나 여러 보고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선교상황과 필요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넷째로 아웃리치(Out-Reach) 사역을 통해 다른 선교지를 약 2개월 동안 방문한 것이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직접 전도(개인전도와 단체전도) 활동,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데리고 다니는다고 고생(?)도 했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어려운 일도 많았다. 또 모국에서 마땅히 유용하게 시간을 가질만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체 안식년 기간이 8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우리에게겐 과분한 안식과 축복의 시간들임에 틀림없었다.

안식년이 가져다 준 유익

지금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지로 돌아온 지 만 1년이 넘는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년 기간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선교사역과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긴 하지만, 1기 사역 때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역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을 체험하며 큰 비전을 품으며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깊이 실감하게 된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선교사의 첫 번째 안식년은 더욱 의미있고 중요하다. 여기서 나의 안식년의 예가 꼭 모범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짧은 견해와 경험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들이 새롭고 유익한 안식년을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세워지는 가정

선교지에서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쉽고, 어려웠던 가정생활이 바로잡히고 세워졌다. 치열한 영적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공격받는 사탄의 목표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선교지에서는 사역보다 생활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이 그 기본이고, 또한 사역의 동력과 기본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했던 선교사 가정의 특별하신 은혜와 치유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 충분한 안식과 재충전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역자의 가장 큰 영적인은 사역 그 자체일 수 있다. 일이 많고 바쁘게 되면 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일에 헌신된 나머지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하며, 더욱 주님께 깊이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충분한 영적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 세계를 품는 선교사로

한 선교사가 한 선교현장에 집착하다 보면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고 세계를 품는 선교사로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과제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 예를 들어 내가 중국의 한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일지라도 나는 나아가 중국 전체를 품는 '중국 선교사'여야 하고, 또 나아가 세계를 품는 '세계 선교사'여야 한다. 선교사의 최종 목표는 세계선교이다. 선교사는 한 지역을 통해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나라를 통해 세계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땅 끝,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경배할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선교사의 기도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통해 자칫 한 선교현장에서 좁아지기 쉬웠던 선교사의 마음과 가슴이 다시 세계를 향해 퍼지고, 능력있는 중보기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세계선교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것이다.

넷. 다른 선교지의 이해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선교지가 아닌 다른 선교지나 문화권에 가서 객관적으로 자기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데 참고로 삼을 기회를 갖는 것도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다섯. 건강회복의 기회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운동 습관을 길들인다든지, 식이요법 등을 터득하여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안식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도구가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시며 또 당신의 영광과 기쁨신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식년 기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특별하신 일과 특별하신 창조를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교사의 안식년은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새롭고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많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하신 안식의 은혜와 재창조의 역사를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강성광/ 중국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선교사 파송, 끝이 아니라 시작

석은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을 주셨다.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송되어 나갔다. 현재 약 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140여 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2000년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

비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에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 보았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곁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 선교사들은 현지인을 섬기러 왔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서 늘 대하는 근엄하고 거룩(?)한 목사님의 인상이 아니어서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어려움과 영적인 눌림 속에서 위축되어 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현지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아울러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은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많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상의 어려움

중국은 선교사라는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다. 유학생이나 전문인, 기업가 등 정당한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역을 하다가 발

각되어 선교사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벌금을 물거나 추방당했다. 이런 신분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자들은 늘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주거문제의 어려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 선교사들이 살 수가 없다. 부득이 집세가 저렴한 외국인 비거주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 그 집세 역시 중국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게다가 가끔씩 공안국에서 검사를 나오는데 걸리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최근 들어 주거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사들은 거주 불안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중국을 주께로』, 97년 9/10월호 28~31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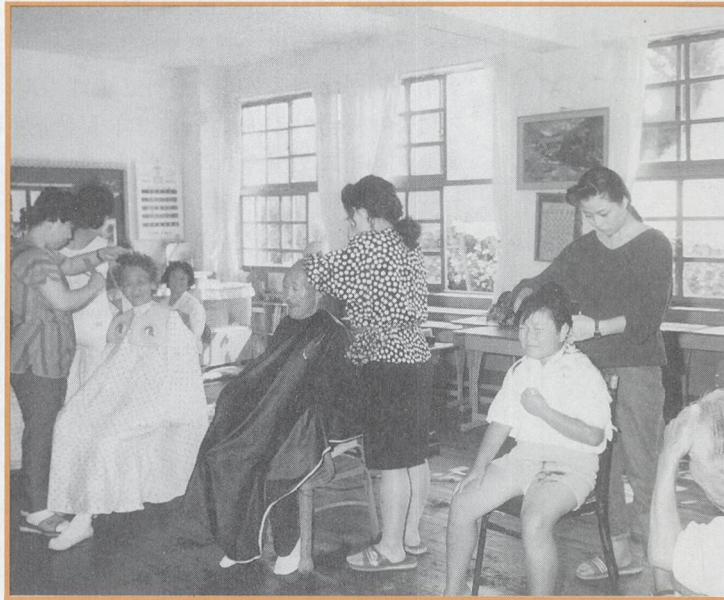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

한족(중국인)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는 분 중에 제자훈련 등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은 현재 언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반언어(일상용어)는 이미 다 준비되었지만 사역언어(성경용어)가 준비되지 못해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설교할 때 필수적인 성경 속의 인명, 지명 등의 중국어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역자는 현지에서 스스로 사역언어를 공부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역자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다시 신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그곳으로 가서 공부하길 희망하지만, 파송교회의 이해 부족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역언어 해결이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이다.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한국인들은 중국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적은 액수의 선교비를

생활비 외에 별도의 순수 사역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파송교회나 단체에서는 생활비 위주로 선교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막상 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책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현지에서 언어연수를 할 경우 외국인의 학비는 현지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1학기당 US\$1,000~1,300). 부부가 함께 언어를 공부해야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책정된 선교비만으로는 한 사람밖에 공부할 수 없어 어떤 선교사 가정은 남편선교사만 공부를 하고 있다. 집세, 자녀 교육비 등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 못지 않게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생활비 외에 별도의 순수 사역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파송교회나 단체에서는 생활비 위주로 선교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막상 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중국을 주께로』 97년 3/4월호, 66~69 페이지 참조).

자녀교육의 어려움

현재 중국에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없다. 부득이 자녀를 중국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중국 학교 측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비 외에 3천 원~5천 원(한화 30만 원~50만 원)의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지 학교에서는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보다 주입식 교육을 하며, 수업 시간에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 은연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까봐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이 중국어로만 교육을 받다가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있어 염려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글학교가 있지만 주재원, 상사원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에 주말 한글학교가 개설되긴 하였으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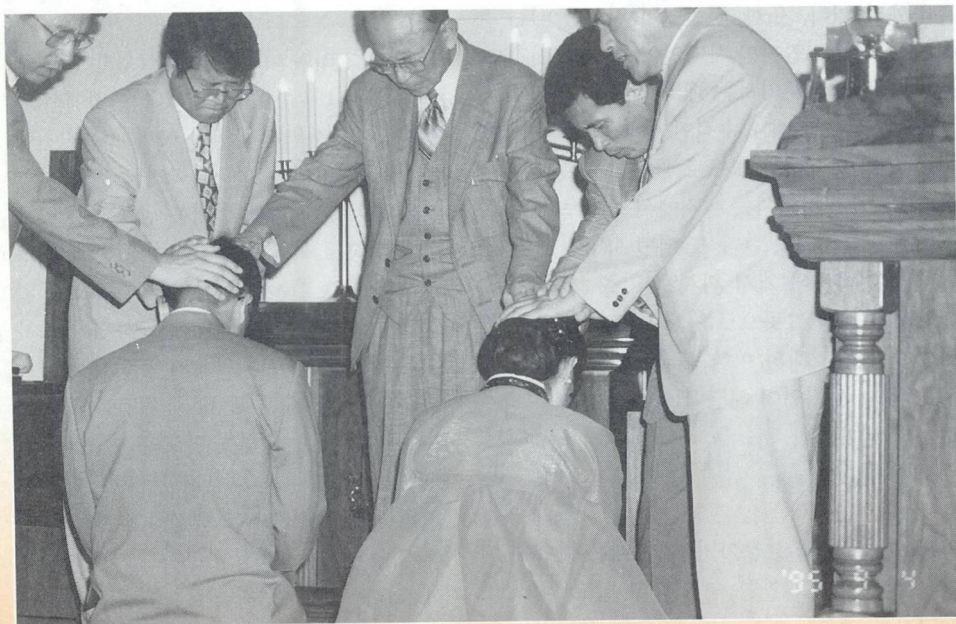
옌벤(延邊) 지역에서는 현지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움직임이 있어 한글학교가 세워졌으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곳 역시 교사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역자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외국인 학교의 등록금은 학기당 미화 1만 5천 불(한화 1,350만 원)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고액이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 선교사는 주변 선교사들의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선교사도 할 말은 있다. 어려서부터 영어로 교육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게 하고, 장래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나름대로의 깊은 뜻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미 영어권 생활에 익숙한 자녀를 중국 내의 외국인 학교에 보내 계속 영어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만 너무 비싼 학비 때문에 보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 동료 선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의 고충을 잘 설명해 달라고 필자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부인 사역자들의 어려움

선교사의 부인도 사역자로 파송식 때도 남편



과 동등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부인 선교사도 언어 공부 등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선교사역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선교사의 아내는 사역비 부족으로 언어공부를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선교사의 아내는 언어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한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여행객들과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거쳐 부인 선교사로 현지에 와서 언어공부까지 다 마쳤지만, 손님접대 등 잡다한 집안일에 시달리다가 정체감이 흔들리면서 지쳐버린 부인 사역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직 아이가 어린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 언어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현지인 파출부를 고용하기도 한다. 현지인 파출부를 고용하면 인건비도 비교적 저렴하고(한 달 한화 6, 7만 원), 잡다한 아이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언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 가정을 방문한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은 ‘아니, 선교사가 웬 파출부를?’하고 시험에 들어 돌아간 후에 후원비를 끊는다. 현지에서 고생을 하는 선교사를 보면 ‘은혜’요, 좀 편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든다. 선교사는 현지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동료선교사 간의 어려움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라고 했다.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협력이 잘 되고 있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동료 선교사들 간에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듯 평신도 선교사와 전통적인 목사 선교사 간의 갈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와 조선족 대상 선교사와의 갈등, 대도시 거주 선교사와 지방 거주 선교사와의 갈등, 현지 거주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대처하느냐의 견해와 방법 차이가 서로에게 갈등을 안겨 주고 있다.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역은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역자의 부르심과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선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제안

이미 많은 교회가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중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 현재 중국선교는 경쟁선교, 물량선교, 비방선교, 조선족 위주의 선교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루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훈련 강화

선교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선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영성과 문화적응, 선교지 연구 등의 훈련을 받고 떠나야 한다. 만약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동료선교사나 현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반드시 국내에서 상담, 내적 치유들을 통해 치유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지로 가야 한다.

어떤 독신 여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외로움을 참지 못해 믿지 않는 남자 유학생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아 동료선교사들의 눈총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여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겠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선교사로 가기 전의 훈련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선교사 배양을 위한 전문 훈련원이 〈중국어문선교회〉와 〈중국복음선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선교사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선교사 관리 정책 강화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교회,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조직력이 미약하여 선교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대도시나 조선족 거주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에 의해 사역지가 조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분 선교사들 스스로 사역지, 사역내용, 재정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역 면에서 보자면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사 관리, 지역분할, 선교정책의 정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 개교회, 선교단체들간의 정기적인 모임과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선교사 파송 운동 강화

우리 나라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 선교사들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선교사 훈련 혹은 국내에서 목회경력 몇 년을 거치다보면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준비되지 못한 선교사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현지 적응능력과 언어 습득능력이 저하되어 사역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아직 선교역사가 짧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된 한국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을 거쳐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 젊은이들은 타문화권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언어 습득 능력도 좋아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선교사일 경우 자녀 교육 등 가족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선교비가 적게 들며,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 유학생들을 선교일꾼으로 동력화

중국에는 현재 많은 한국학생들이 언어연수 및 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이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헌신하게하여 선교일꾼이 되도록 동력화해야 한다. 이들이 전문인 선교사 혹은 전통적인 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언어가 습득된 상태이고, 현지 적응력이 길러졌기에, 이들이 헌신자가 되어 신학적인 훈련과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거친 후 중국선교에 주력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유학생

중에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사역자가 되어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사역자들의 현지 순회사역 필요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소위 ‘잉꼬부부’ 가정이 사역지에 가면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 타문화권에서 적응능력의 차이, 대처 능력의 차이, 언어 습득 능력의 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사역하면서 동역자간에 혹은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기도 한다. 어떤 사역자는 중국에서 중국인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화가 나서 계속 마음 속에 분노가 남아 있어 괴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역하면서 상처받은 사역자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부부 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전문적인 가정사역자들이 현지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중국 사역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

자녀교육 문제 해결

국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선교사 자녀학교는 아직 없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개교회나 선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선교사 자녀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힘을 합해 세운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지에서라면 어떤 장소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적합할지, 혹은 한국, 제3국이 좋은지 전문가들과 연구하여 교육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교사들이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역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과 은퇴 후의 문제 해결

예전에는 선교지에서 6년을 사역한 후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국에 돌아와 ‘역문화 충격’을 경험해야 하기에, 최근에는 사역기간을 4년 한 텀(Term)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파송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규정이나 선교정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전혀 대책이 없다.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선교사 안식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교회나 성도들이 안식년을 갖는 선교사를 ‘선교비를 받고도 쉬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은퇴 후에 선교사가 어떻게 생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진 선교단체나 교회는 별로 없는 듯하다. 오랜 선교역사를 가진 국제 선교단체들을 모델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은퇴 후의 선교사 생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서 오늘도 달리고 있는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짧기에 사역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선교사를 위한 정책에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중’이며, ‘우리들의 영웅’이다.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바울같은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중국에서 더욱 확장되도록 선교사 자신들도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은 이들이 각자에게 위임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돕고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며,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특집/ 선교사의 삶과 사역

중국 선교사 훈련 및 인식년 프로그램

편집부

중국선교사들을 위한 전문선교훈련과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 혹은 인식년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① 목표 ② 지원자격 ③ 교육 및 훈련내용
- ④ 훈련시기, 기간 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⑥ 훈련경비 ⑦ 훈련장소 및 연락처

중국선교훈련 프로그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①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지
적응능력 배양, 생
활 중국어와 선교
중국어 습득,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② 교회, 교단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 단기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③ 중국어-초급중국어, 사역중국어, 일반·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중국어성경강독

선교특강-중국 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공
산주의와 종교정책, 전문인선교, 중국 소수민
족 선교, 중국선교지리, 중국교회사 등

현지연수 및 답사-현지 대학 언어연수(8
주), 선교지 답사(1주)

④ 6개월(주 5일)-국내 4개월, 현지 2개월
매년 3월과 9월에 개강,

⑤ 매년 6월과 12월 각 한 달 간

⑥ 국내훈련비 98만 원, 현지 언어연수 및 답
사비용 별도

⑦ 본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
빌딩 402호

☎ 02)535-4255, 594-8038

팩스 02)599-2786(담당: 나은영 총무)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sinim

E-mail: 하이텔 sinim@hitel.kol.co.kr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① 2년의 훈련기간을 통해 현지어로 신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중국사역

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일반대학 혹은 신학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서, 특정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서류심사, 논술, 면접을 거쳐 선발).

③ 중국어-중국어(문법, 회화, 작문), 사역중국어

중국선교 사역학-현대의 중국선교, 중국교회 지도자훈련, 사역의 실제 등

중국학-문화와 풍속, 사상과 종교, 기독교사, 현대 중국 기독교

일반선교 사역학-현대 선교학, 타문화권 선교, 영성훈련과 관리 등

④ 총 4학기(2년). 3월~6월(1학기), 9월~2월(2학기)

⑤ 매년 10월 1일~11월 30일

⑥ 학기당 150만 원(97년 현재), 현지 실습비 별도

⑦ 본원/서울시 중구 정동 25번지

☎ 02)318-3956, 팩스 02)773-6278

담당: 구송림 주임

중국선교사훈련원 청강제도

① 중국선교 전문교육과정을 중국선교에 비전이 있거나, 안식년 및 중국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중국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안식년을 맞은 중국선교사

③ 매학기 개설되는 모든 과목

④ 한 학기 당 3개월(3월~6월, 9월~12월)

⑤ 매해 8월, 2월 각 한 달 간

⑥ 중국어 과목-학기(3개월) 당 18만 원, 기타 과목-학기 당 15만 원

⑦ 중국선교사훈련원과 동일

전문인선교훈련 프로그램

한국전문인 선교훈련원 (GPTI)

① 정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전문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 독자적인 생존과 사역능력을 배양하고, 타문화권 적응능력과 언어습득, 전도 및 제자훈련,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습득케 한다.

②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 소유자이며 전도 및 제자훈련이 되어진 자 중 전문인선교사로 사역하려는 자(컴퓨터 전문가, 교육가, 연구원, 지역개발전문가, 농축산전문가, 각종 기술 및 기능인)

③ 선교학, 전인사역(내적치유, 영성관리, 리더십, 대인관계), 교회개척(설교학, 목회사역론, 교회성장학), 전문인선교론(기업선교, 지역개발 등)

④ 1년(매주 토요일 오후).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12월

⑤ 매년 1월~2월 초(봄학기 개강 전), 6월~8월 초(가을학기 개강 전)

⑥ 독신 80만 원, 부부 150만 원(자녀를 맡길 경우 탁아비 10만 원 별도 납부)

⑦ 서울: 영화교회(서초동) 교육관.

☎ 02)537-2043, 팩스 02)595-7809

대전: 대덕장로교회 ☎ 042)862-4891

성광 전문인 선교훈련원

① 27억 이슬람권 및 공산권 등 전세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

하여 훈련한다.

② 타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③ 신학-선교신학 및 역사, 실천신학, 비교종교학, 조직신학, 전문인선교 등

타문화훈련-문화인류학,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선교지 연구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기술훈련-이미용, 양재, 수지침, 컴퓨터,
자동차정비, 배관, 보일러 등

④ A코스(정규합숙훈련)- 11개월(국내 8개
월, 현지 3개월)

B코스(비합숙훈련: 학생 및 직장인)- 국
내 2년(총 4학기)

⑤ 매년 11월 1일~12월 31일

⑥ A코스: 미혼자 30만 원(학기당), 기혼자(부
부) 55만 원, 현지답사 및 단기사역비 별도/
생활비(매월) 미혼자 19만 원, 기혼자(부부)
32만 원-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비 있음,

B코스: 20만 원(학기당, 1주일 3일)

⑦ 본원(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89 성광선교
센터)

☎ 032)872-2338, 팩스 032)862-6942

담당: 박은영 간사

일반 선교훈련 프로그램

한국선교훈련원 (GMTC)

① 공동생활을 통해
선교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과 이해/ 전
도, 제자훈련, 교회개
척 등 사역기술 연마

/ 타문화권 적응, 경건생활, 가정생활 등 자기
관리/ 효과적인 팀사역을 위한 대인관계, 내
적치유 및 전인적 성숙 도모/ 선교지 언어습
득력 향상

② 장기: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기본적 신앙훈련을 받은 전임사역자 또는 평
신도 사역자로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부
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
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자

단기: 장단기 선교경험자로서 장기로 사역할
자, 선교행정가,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③ 선교학적 기초, 타문화권 선교, 선교사의
삶, 언어훈련 등

④ 장기(6개월): 1월~7월, 단기(3개월): 8월
말~11월말

⑤ 수시 접수

⑥ 장기: 부부당 140만 원, 미혼 80만 원(98년)

단기: 부부당 80만 원, 미혼 50만 원(97년
현재)

생활비(매월): 부부당 35만 원(자녀는 1인
당 8만 원 추가), 미혼 20만 원

⑦ 본원/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 02)649-3197, 팩스 02)647-7675

담당: 양승순 간사

E-mail: 천리안 gmtc, gmtc@chollian.

dacom.co.kr

총회선교훈련원 (MTI)

① 영성훈련과 공동생
활을 통해 실제적인
타문화 사역훈련과 현
장 중심의 실제적인
팀사역 및 봉사정신,
타문화권 훈련 및 언어훈련을 통해 전인적인
선교사 양성.

② 목사선교사: 신대원 졸업자, 40세 미만, 교
단산하 노회소속 회원 / 전도사선교사: 3년 이
상 교단인정대학(원)과정의 신학, 40세 미만,
교단소속 노회의 전도사고시 합격자 / 평신도
선교사: 총회인정 신학교/ 성경학교 1년 이상,
연령제한 없음, 전문직종 자격증 소지자 / 선
교사 부인: 전문대 이상/ 총회인정 신학교/ 성
경학교 1년 이상

③ 5개월(국내 4개월, 해외 1개월) 연 2회 개
강: 2월 중순~7월 중순, 8월 중순~1월 중순

④ 선교신학, 교회개척 및 성장학, 문화인류
학, 선교전략 및 행정, 인간관계, 선교지 조사
연구방법, 언어습득법, 전도실습, 전문기술 훈
련 등

⑤ 개강 두 달 전부터

⑥ 등록금 120만 원, 월 기숙사비(현재 미정),
현지 정담훈련비는 별도

⑦ 본원/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7-3 총회회
관 6층 ☎ 02)538-9095, 팩스 02)597-7062

세계선교훈련원 (KWMTI)

① 교단 및 선교단
체들이 공동으로 운
영하는 세계선교훈
련원은 10년 이상의
선교사역 경험을 가
진 선교사들과 국내

의 저명한 선교학자들에 의한 훈련프로그램으로 보다 양질의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② 1) 각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선교후보생

2) 선교의 소명이 있는 개인으로 담임목사, 교단선교부 혹은 선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③ 세계선교사, 선교전략사, 타문화권 교회 설립과 개척, 문화인류학, 자녀교육,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미전도종족 선교정탐훈련

④ 10주 간(월~금 합숙훈련), 매년 4월과 9월 개강

⑤ 1월 초~3월 중순, 7월 초~8월 중순

⑥ 1인당 120만 원, 부부 등록시 200만 원(숙식비 및 교재대 포함)

(특전: 자녀동반시 명성교회 유치원 50% 할인)

⑦ 본원(경기도 하남시 덕풍 2동 산 31번지)

☎ 0347)791-7557(팩스 겸용)

담당: 석진석 간사

한부선 선교훈련원 (MTI)

어 사용자가 되도록 한다.

② 타문화권 선교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자 / 대학 또는 신학대 재학생 및 졸업자 / 타문화권과 유사한 영어환경 속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③ 성경적, 선교학적 훈련/ 이미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강화하고 증가한다. 또한 선교역사, 선교방법론, 대표적 세계종교와의 대결, 문화인류학 등 제반 선교학 분야를 연구한다.

영어생활 환경/ 오늘날 전세계의 보편적인 국제교류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를 전적인 생활, 훈련언어로 사용하여 훈련생의 영어습득에 도움을 준다.

실기습득/ 한·영 타이핑, 단파라디오, 응급처치법, 기타 연주법, 국제요리법, 국제예절법 등

① 선교사들이 선교제반 분야에 있어 성실한 일꾼이 되며, 말 씀전달에 자신 있고, 유능한 영

④ 1년~1년 6개월

⑤ 수시 접수

⑥ 여름,겨울(각 학기당 한 달, 기숙): 50만 원
봄, 가을(각 학기당 3개월, 기숙 150만 원/
통학 93만 원)

⑦ 본원(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8-10)

☎ 02)593-8487, 팩스 02)535-9953

담당: 최미향 간사

영성훈련 프로그램(안식년)

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 (DTS)

① 주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 속에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한다.

② 지역교회 및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③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묵상, 중보 기도, 영적전쟁, 내적치유 등

④ 매년 4월~9월, 10월~3월(국내강의 3개월, 전도여행 3개월)

⑤ 가을학기: 5~6월 접수(서류, 면접)

봄학기: 11~12월 접수(서류, 면접)

⑥ 제주, 홍천, 부산: 1인당 155만 원, 해외 전도여행 경비는 별도- 자녀 동반 가능하며 별도의 생활비는 없으나 사정에 따라 간식비(10~20만 원)가 포함될 수 있다.

해외: 1인당 350~400만 원, 전도여행 경비 별도

※ 국내(홍천, 제주, 부산) 외에도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하와이, 캐나다, 스위스에서 훈련받을 수 있으며, 매년 두 차례 훈련생을 모집한다.

⑦ 제주 DTS: 064) 84-2981/ 홍천 DTS: 0366)32-5961/ 부산 DTS: 051)745-1386

정리/ 편집부

예수님의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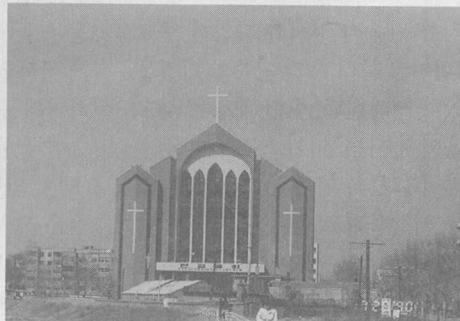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우리는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자는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놓아주지 않은 완악한 행위가 있다. 즉시 그것을 풀어주면 만사가 대낮같이 밝아진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곤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 자세가 일단 잡혀있으면 성도의 생활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 어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성령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온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평강의 인장을 찍어 주신다. 그것은 자연적인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심원한 평안이다. 평안이 없을 때에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평안이 없는 이유를 찾아내라. 당신이 충동이나 영웅심에서 주를 섬기면 예수님의 평안이 나타날 수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한 단순성이나 확신이 없다. 단순성의 정신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당신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성의 반응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순종을 멈추면 질문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들이 끼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도록 하기 위한 탐침의 역할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경탄케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불순종에서 솟아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내 옆에 따라 붙어다니는 제 문제들은 내게 황홀경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기대 속에서 주목하게 된다.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목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

건강한 한국인의 자화상 회복이 필요하다

하기중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서방경제를 독점했다면,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은 '교회설립'(church institution)이라는 특이한 양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태는 중국 대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1세기 동안 다교단(多敎團), 다신학(多神學), 다신학교(多神學校), 다선교단체(多宣敎團體)의 적지 않은 부작용

속에서도 각기 제자리에서 놀랄만한 양(量)적, 영(靈)적 부흥을 이룩해냈다. 특히, 한민족의 기질적 특성은 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끈끈한 구심력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좋고, 아름다운 결과만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서방문화(西方文化) 속에 침투해 있던 '탈기독교적 요소'와 '비기독교적 요소'는 어느새 소리 없

이 우리 신앙 속에 깊이 침투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때론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이 정당한 요소들로 자리잡고 주인 행세를 하며 크리스천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화는 기독교 문화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어 결국 ‘혼합적(混合的) 양태’로 나타나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이러한 민족적 정서와 다양한 종교성, 지리적 현실이 맞물려 우리 민족의 기질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배경을 갖고 동북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뇌,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려고 한다. 필자는 지난 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중심으로 몇 가지 모순을 회고해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사업가, 유학생, 선교사의 세 부류로 나누어 서술코자 한다.

밀물처럼 몰려 온 기업가들

국민소득 1만 불(\$10,000) 시대가 주는 문명의 이기(利器)는 이전 그 어느 시기에 못보지 못했던 짜릿함을 선사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후광은 세계 도처에 나가 일하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사(missionary)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밀물처럼 몰려드는 유학생,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상품(옷, 신발, 가전제품 등), 식당업을 비롯해서 각종 중소, 대기업들의 진출 등 한국인들은 중국 대도시 및 동북지역 내 거대한 상권과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미용업, 사우나업,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연변 내 경제특구로 지정된 훈춘 지역의 현대철강, 쌍방울섬유, 두산그룹의 주류산업(룡정), 난방산업의 경동보일러(연길), 섬유 원단사업에 갑을방직(연길), 주택사업에 한신공영(연길) 등 크고 작은 기업이 밀물처럼 밀

려 들어온 상태이다. 이처럼 밀물처럼 몰려온 기업들이 현재 물거품의 쓴잔을 마시고 있다. 투자한 기업에 비해 재미를 본 기업은 극소수라는 의미이다. 기업하는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이야기 뿐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제품 수송의 원활함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수속의 간소화와 법적보장, 그리고 사전계약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언어의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조선족(朝鮮族) 고용’은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포애, 즉 동족(同族)의 마음을 조선족들에게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 허탈한 심정 뿐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이 조선족 고용에서 한족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소자본(小資本) 중국 투자자들은 심각한 운영난으로 결국 공장문을 닫기 일쑤이다.

이처럼 만주로 떠난 디아스포라 한국사업가들은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들이다. 끈끈한 동족애(同族愛)보다 중화(中華)되어 버린 디아스포라 조선족의 아성은 높기만 하다. 큰시장 중국을 보고 밀물처럼 몰려 왔던 그들에게 이제 썰물시 백사장 모래와 같이 허무감만이 남아 있다. “쉽게 먹으려 했던 떡에 제한” 모습들이다.

고삐 풀린 유학생들

두 번째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유학생’에 관한 내용이다. 연변(延邊)의 유학생은 대략 700~800명 정도이다. 최근 중국 내 100개 중점대학에 들기 위해 연변 내 단과대학(연변농학원, 연변사범대학, 연변예술학원, 연변과학기술대학, 연변의학원)은 ‘연변대학(延邊大學)’에 통합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연변대학에서 언어연수와 본과(本科)에 있고, 일부는 연변의학원(中醫)에서 보람된 유학생활동을 보내고 있다. 이들 대학의 강의는 대부분 조선족 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시 사용

하는 언어도 조선어로서 초급언어 연수생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중 자기언어, 자기문화, 자기대학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한 마디로 높은 교육열과 지대한 민족심은 타민족에 비해 월등하다.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 한국유학생들에게 있어 엔벤은 미국 L.A를 방불케 한다. 대부분 19세에서 25세 연령층으로 누군가(?)의 감시와 보호의 눈길에서 제외된 ‘마의 사각지대’이다(유독 엔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잘못된 한국교육(대안과 정책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삐 풀린 유학생’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공손히 있을 리 없다. 그 언젠가 있게 될 그날(?)이 바로 오늘로 현실화되어 자기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날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에 실컷 누려나 보자는 속셈이다. 이들이 고삐 풀린 채 얼마나 더 쫓길지, 그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어디까지 갈지, 사뭇 가슴 아플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의 생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 넉넉한 물질소유로 인한 여유있는 생활문화, 둘째 자유로운 이성교제, 셋째 주변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향락문화, 끝으로 불분명한 목표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디아스포라 유학생들은 향방 없는 생활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 그러한 ‘어둠의 사각지대’에서도 내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유학생들’이 있기에 필자는 그나마 행복을 느낀다. 대륙의 밤하늘에 유성(流星)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집에서 샌 바가지들

끝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선교사에 관한 내용이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필자는 내용상 좋고, 근사한 부분보다 ‘디아스포라 한국선교사’들의 현주소를 노출시키므로 새로운 치료, 보

완, 그리고 반성을 통해 디아스포라 한국선교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고 싶었다.

필자 역시 선교사로서 이러한 글을 쓴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분명히 밝혀두는 대목은 서술된 글은 필자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자기독선(自己獨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을 자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은 종으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청되기에 주저할 수 없었다.

나는 얼마 전 흥미있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다. 『중국선교는 지금』 (도서출판 바울, 양명득 저)- 동북 조선족 마을로 간 선교사들 이야기-이라는 책이었다. 동북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소박한 삶을 사건별로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 책 내용 중 상당수가 선교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 역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가칭)’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디아스포라 한국선교사’들의 현재를 서술하고자 한다.





경쟁선교: 이미 ‘과다경쟁의 장’이 되어 버린 선교지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 선교사 개인 뿐 아니라 선교단체, 소속교단, 더 나아가 무소속(독자파송) 선교사들은 하염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당파별 모임은 ‘자기만족, 자기도취 병’에 빠지게 한다. 이 병의 특징은 다양성을 무시하고, 심각한 편견과 독선을 서슴지 않고 자행케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협력 독주선교’는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 우리 모두는 적(敵)이 아니다. 철저한 동반자(partnership)요, 동역자(同役者)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사역의 필요성을 말하기 전 협력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비방선교: 이 문제의 원인제공은 ‘비협력 독주선교’를 꿈꿀 수 있다. ‘자기생각’, ‘자기경험’, ‘자기방법’만을 고집하는 심각한 편견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절대기준의 칼로 아군을 무참히 해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비약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기

에 선교사 자신은 선명한 지체의식과 내 속에 숨어있는 고질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획일주의 사고를 배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교의식과 소영웅주의 배격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나보다 상대 선교사에 대한 포근한 관심, 그리고 남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넓은 가슴이 필요하다. 혹 아픈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매고, 상대 선교사의 훌륭한 사역엔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내 색깔이 아니면 처음부터 상종치 않으려는 마음과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면 일단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생각과 삶이야말로 비방 및 모함의 시작이다. 사실 내 교단이 더 잘나가기 위해선 다른 교단을 무시해야 하고, 우리 선교단체가 더 잘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교단체를 배척해야 하는 무서운 마음들이 내재해 있다.

공약선교: 이 제목은 필자가 쉽게 붙힌 제목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단기사역자와 철새사역자, 그리고 이동사역자(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약난발 선교’를 현지인 대상으로 서슴지 않고 해대는 현실이다. 이분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마구 떠벌려 놓고 선교지 지도자들에게 허무한 기대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결국 허풍을 떨며 내놓았던 공약은 와해되고, 현지인들은 기대치에 못미칠 때 선교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러한 공약성 선교는 선교지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즉 감정에만 치우치고 현실을 무시해버린 공약은 불신의 담만 높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떠벌리기식 선교’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언가 해주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전환이 필요하다. 즉 ‘주는 선교에서 배우는 선교’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물량선교: 선교에 있어 물질은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선교의 모두를 대신할 순 없다.

선교는 ‘복합 예술’(複合藝術)이다. 이 말은 물질뿐 아니라 선교지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에 따른 치밀한 선교전략, 그리고 영적 준비가 복합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을 의미한다. 이 말은 더욱 빛과 소금으로서 겸손한 삶이 선교사의 실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짐을 말한다.

이 예술적 행위가 어느 무대(field)에서 연출되더라도 선교사 자신은 성숙된 자기표현, 즉 고루고루 잘 연마된 세밀한 행위가 요구된다. 어설픈 연출과 연기는 금물이다. 현지인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보다 선교사의 진솔한 삶을 지켜보고 있다. 물질만 보더라도 잘 쓰이면 은혜지만 잘못 쓰이면 하나님 나라에 압적인 요소가 된다.

아쉬운 점은 선교사가 말쑥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려는 자세보다 물질로 그들의 삶을 정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매사에 이런 ‘정복주의적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많은 혐오감을 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 중 일부는 서서히 ‘물질의 노예화’되어 가고 있다. 섬세한 관리 없이 현지인들에게 채워주는, 필요 이상(?)의 물질은 오히려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에게 주도권(hegemony)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에 조심해야 한다.

나눔의 선교로 전환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을 맡기셨고 우리를 그 일의 관리자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은 비성경적이다.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웃과 나누어 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나누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임이 틀림없다. 가능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물심양면으로 나눔의 삶이 필요하다. 심적, 영적인 곤경에 있는 다른 선교사를 만날 때 ‘나’를 떠나 ‘우리’라는 개념을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한 지체를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다. 힘써 ‘공존공생(共存共生)’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결국 ‘똑같이’, ‘다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선교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되면서, 아니 그 일의 결말에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 있다면 ‘칭지기적 삶’을 꿈꿀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적 삶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좋은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두운부분, 상처난 곳에 더 깊은 상처를 줄게 뭐야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시기가 있다면 겸손히 받아드리고 싶다. 하지만 우리끼리 자화자찬(自和自贊)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서론에서도 밝힌 대로 깊이 상처난 혈루증은 그분 손에 드러져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샌 바가지를 수리해야 한다. 현재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미래는 우리를 외면한다. 일단 무성했던 디아스포라 한국인에서 열매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기업가는 구조적 모순을 딛고 전략적 경영과 장인정신을 갖고 경영을 풀어가야 하고, 유학생들은 친구와 부모 곁을 떠나 왜 이 곳에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아발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확립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주야로 말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의 참신한 모습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쉬운 때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백지 위에 ‘디아스포라 한국인’ 곧 나의 자아상을 그려보자.

젊은 교회, 젊은 지도력

이 글은 지난 5월 난징(南京)에서 열린 '동북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독교회의' 이후 23~29일까지의 동북지역방문 프로그램에 동행한 애덕기금회 사람들이 쓴 글이다.

동북지역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덕기금회의 허락을 받고 실었다 - 편집자 주

안중근 의사의 애국거사로 유명한 역 앞 광장이라든가, 만주벌판 말 달리던 독립투사들의 혼이 서린 듯 유유히 흐르는 송화강(松花江). 그로 인해 귀에 익은 지명 하얼빈, 동북의 곡창지대로도 알려진 헤이룽장성은 그래서인지 온통 너른 벌판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서조차 주변의 경계를 찾기 어려운 지평선만이 보이는 곳, 이곳에도 이제 제법 초여름의 기운이 온 도시에 감돌고 있었다.

헤이룽장성 기독교회

남방에 비해 기독교 전파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종파간 갈등은 거의 없으며 신도들의 신앙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헤이룽장성에는 현재 35만의 신도가 1,500여 개의 교회, 처소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30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다(이 수치는 삼자교회에서 낸 통계이다-편집자 주).

다른 지방의 교회와 다른 점은 이곳 헤이룽장성 교회 및 기독교협회에는 젊은 목회자의



평신도 훈련의 요람-흑룡강성 기독교 성경훈련센터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5일 양회 지도력이 대폭 교체되어 동북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 6명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들 말대로 전국에서 임원들 평균연령이 제일 낮은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헤이룽장성 교회들은 목회자 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요약한 헤이룽장성 기독교회의 당면과제는 첫째, 신도가 있는 곳에 목회자가 있도록 할 것.

둘째, 신도가 있는 곳에 교회당이 있게 할 것.

셋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도상 정립 등이다.

즉 신학생 배양사업, 교회 건립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 복지 사업은 아직 경제사정이 원만치 못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양로원이나 장애아동 교육 등에 손을 쓸 생각이다.

이들의 목회자, 전도인 육성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오랜 기도 끝에 지난해 말 문을 연 3년 제 성경학교로 구체화되었다.

목회자 양성소-성경훈련센터, 히얼빈 성경학교

도심을 벗어나 백양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반 시간이나 달렸을까, 진흙탕 골목길을 달려 도 달한 곳에 붉은 색 십자가와 그 밑에 '헤이룽 장성 기독교 성경훈련센터(黑龍江省基督教聖經培訓中心)'라고 쓴 아치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전성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배출 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인 즉, 여기는 옛날에 쓰던 장소이고 지금은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성경학교 캠퍼스를 마련 하여 작년 12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 곳은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성경학교센터는 중국 기독교인 실업가의 헌금으로 마련한 건물로 94년 가을부터 이곳에서 단기 평신도지도자훈련을 해왔다. 주로 농한기를 이용한 1, 2개월의 단기과정을 개설하는 이 훈련센터는 그간 400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해 내었다. 현재 이 건물은 주변의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은 처소교회에게 예배장소로도 제공된다.

우리가 성경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단층짜리 교사에 들어가니, 휴식시간인 듯 교실로부터 학생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교정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체조음악이 나오 고 체육부장인 듯한 학생의 구령과 더불어 학생들은 일제히 맨손체조를 시작하였다. 학생 이라기에는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고, 학

교생활을 마친 지 오래되어서인지 체조동작 이 그다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10여 분 계속된 체조는 확성기의 탁한 음악소리가 잦 아들면서 끝이 났다. 바쁘게 스쳐가는, 아까 구령을 하던 그 체육부장인 듯한 이를 불러 멈추게 하였다. 공교롭게도 조선족 학생이었다.

“영의 양식이 중요한만큼 우리들에게는 육 체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날 마다 이렇게 체조를 하고 또 방과 후에는 자유 스럽게 구기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교실 안으로 빨리 들어가고 나자, 교정에는 한가로운 새 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성경학교에는 8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여느 중국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반 수를 넘는 52명이고, 남학생은 28명이다. 이 중 조선족은 19명으로, 여학생 6명과 남학생 13명이 있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모두 교회의 추천을 받은 평신도 사역 2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전 성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수강 중인 학생들은 350명의 수험생 중 합격된 70명과 교회의 특별요청으로 선발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금은 두 번째 학기가 진행중이며 성경배경, 사도행전, 로마서, 모세오경, 교회사, 히브리 민족사 등을 개설, 강의 중이다. 이들의 학비는 연 인민폐 2,000원(한화 약 20만 원)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송교회에서 학비를 후원하고 있으나, 교회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비 부담을 하고 있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학비 외에 식비는 자비 부담해야 하고 기숙사는 무료이다. 학생 중 더러는 경제사정이 허락지 않아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양회 내에 '신학교육기금위원회'가 있어 전 성 기독교인의 헌금과 해외의 모금을 바탕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한편, 교통이 불편한 탓에 강사들은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대개 학교에 머무르며 가르쳐야 한다. 이들은 약 1, 2주 동안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는 거의 한 학기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20여 명의 교수진 중 3명만이 전



남강교회



교회에서 45세 전후의 청년들을 모집하는 광고

임강사이고 나머지는 헤이룽장성 내 목회자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성경학교가 4년제 정식 신학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에 있다. 앞으로 도서관 등 여타 기본설비가 완성되면 교수진도 더욱 보강하여 정식신학교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족한 목회자를 빨리 육성하기 위한 이들에게는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우선 도서관 마련인데, 책은 남경신학교나 해외에서 기증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장서 1,600권 마련과 이를 위한 건물을 지을 준비 중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이 약 3만 원(한화 약 3백만 원)이라 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식사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뒤편에 양어장을 만들어 학교에서 직접 물고기를 길러 학생들에게 영양공급을 하려 한다. 세 번째는 간단한 응급실 마련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마침 교사 중 한 명이 감기 몸살에 걸려 누워 있었고, 전직 간호사 출신 학생이 돌보고 있었다. 이미 학교 건물 안에 진료실로 쓸 공간과 진료요원이 확보되었으나, 기본적인 약품과 진료시설을 갖추려면 약 2만 원(한화 약 2백만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확보인데, 이곳에 입학한 학생들은 앞으로 전문 목회자로 일하기로 결심

하고 자신들의 직장도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다른 가족들이 일하거나 여성들일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남성들, 그것도 농촌에서 온 경우는 가정경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아깝게도 도중하차하기가 쉽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단지 그들의 학비지원이라기보다 그들의 가정도 함께 책임진다는 입장이 더욱 강하다. 자기 직업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앞으로의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인만큼, 더욱 많은 배려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양회 신학기금위원회가 장학금을 마련하여 노력 중이다. 우선 약 10명 가량의 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러 기도제목과 그들의 열성만큼 앞으로 이 학교가 중국의 최북단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많이 배양하리라 기대한다.

청년을 부르는 교회

헤이룽장성의 남강교회는 한족예배 외에 조선족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를 담당한 이가 이미란 목사이다.

남강교회는 '종교거리'라 불려도 좋을 만큼 많은 예배당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 남강교회 바로 옆에는 동방정교회 예배당이 운치있게 자리잡고 있고, 건너편에는 또 천주교 성당이

있다.

3년 전 들렀을 때만 해도 비좁은 교회당 건축이 당면과제였는데, 이제 남강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본당 뒤편에 신관 예배당을 갖게 되었다. 4층짜리 건물의 신관에는 최대 1,000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본당을 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새 예배당에서는 단지 폐쇄회로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 이 신관 외의 또 하나의 새건물은 본당 옆에 막 지어지고 있는 성정보급소.

교회 정문 오른쪽의 사무실 벽은 게시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교회 청년부 모임광고가 눈길을 끈다. “45세 전후의 신도들은 청년집회에 오십시오...” 중국인들이 얼마나 젊게 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은 노인이 다수를 이루는 중국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내문이 아닐까 싶다.

헤이룽장성 교회는 젊은 교회이다. 무엇보다도 서구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그다지 미치지 않았던 까닭에, 타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교파간의 불협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되는 교회를 이루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다. 한편 기독교협회의 대부분의 지도력이 30~40대의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 명실상부 젊은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또한 없지 않다. ‘광야파’, ‘엘리아파’ 등 이단들의 발호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이 곳이며, 그중에서도 조선족 교회가 당하는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한다. 게다가 소위 ‘지하교회’와의 갈등은 중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성숙하고 복음적인 목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새로이 선출된 젊은 지도력들이 어려운 시기 교회를 지키며 섬겨온 노목사님들의 경험과 신앙적 지도를 잘 받아 들여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출처/ <중국교회> 97년 7, 8월호-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 발행

어머니만 한국인이라도 자녀 한국 국적 취득 가능

앞으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는 남녀 구분없이 귀화 절차를 밟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월 20일 ‘부모양계(父母兩系) 혈통주의’ 채택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래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취학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10년 이전에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자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면 국적취득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천~1만쌍으로 추산되는 한국 여성과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 및 외국인 남편들이 국적 취득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과 결혼했던 중국인과 조선족들도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던 조항을 폐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국내 2년 거주자에 한해 귀화허가를 얻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중앙·국민일보 '97년 9월 20일

QAQAQAQAQAQAQAQAQAQAQAQAQA

어떻게 유학 수속을 해야 합니까?

A 어진 이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교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 특정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은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 삼분의 일 이상이 베이징(北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표준말을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 언어 진보에 장애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대학교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학생들이 적은 지역으로 유학을 가면 언어 진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활비가 적게 들고 언어 진보가 빠른 반면 지역 주민들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에게 아직 여권이 없다면 먼저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수속을 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정하신 후에 그 학교로 편지를 띄워(중문으로) 유학의도를 밝히면 그쪽에서 구비서류(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름)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 입학신청을 하면, 지원대학에서 심사 후 적격자라고 판단한 후 '입학허가서'와 'JW 202표(外國來華留學人員申請表)'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입학 신청을 할 때 신청비(報名費)를 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종합병원(예: 국립의료원, 대학부속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

Q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있는 남학생입니다. 다음 학기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 유학경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목포에서 이○○

며, 병원에 갈 때 중국어로 된 “외국인 신체 검사 기록(外國人體格檢查記錄)”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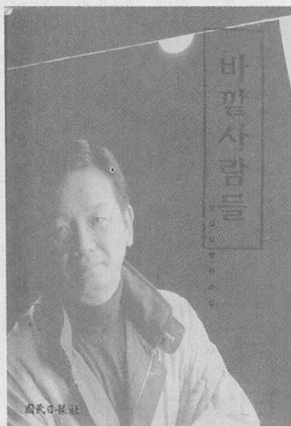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받은 후 ‘신체검사표’와 여권, 사진을 준비해서 중국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하면 1주일 후에 학생비자(X 비자)를 받게 됩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 중국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이미 받은 건강진단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거류증’을 줍니다. 입국한 후 30일 전에 공안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날짜를 어기게 되면 하루에 500원(한화 5만 원 정도)씩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학비와 물가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학연수일 경우 보통 1년에 6백~7백만 원 정도면 학비, 기숙사비, 식비, 용돈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씀씀이의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검소한 유학생이라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유학원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본 선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십시오.

석은혜/본지 편집장

신고 다이제스트



바깥 사람들

문학성보다는 복음성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일 씨가 11번째 장편 소설 『바깥 사람들』을 출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깥 사람들』은 소설(fiction)이라기 보다는 사실(nonfiction)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무대는 압록강 주변의 연변지역. 선교사 신분을 감춘 채 기업활동을 하는 강길례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속적인 인물 선창. 작가는 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중국 조선족들의 실태와 북한의 긴박한 상황 등을 보여준다.

작가는 말한다. 이 작품을 읽고 편안하게 웃어버린다면 화가 날 거라고. 이 무거운 선물이 사람들의 영혼을 강타하길 바란다고. 또 불신자를 전도할 때 웅색한 설명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이 진정 정답이 되길 바란다고….

저자/ 김성일, 발행/ 국민일보사, 401쪽
정가/ 8,000원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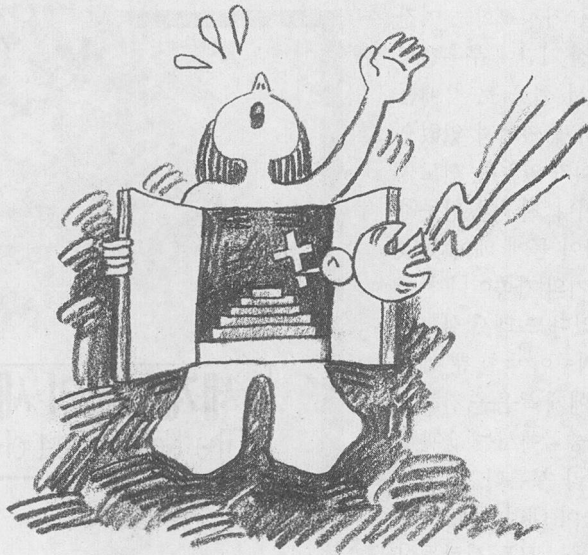
메이펑즈(梅增知)

복음 사역의 효과는 항상 환경 조건이 유리한
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주관
적인 마음이다. 한 심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이
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어떠한 불리한
환경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중국 교회의
성장과정에서 깊이 체험하고 나아가면서 느
낀 사실이다.

중국의 기독교 신도들은 지금 새로운 압력
을 받고 있다. 삼자에 등록해서 집회장소와 사
역내용을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
부하는 집회처와 그 사역은 잠시 중단된 상태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광활한 복음의
밭에 추수할 곡식이 가득하였는데, 그 누가 복
음의 전파를 막겠는가? 하나님께서도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중국 교회에 더해 주
신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여 나는 이러한 사
실을 몸소 체험하였다.

진중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H시에 도착했을 때는 주일 아침이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마중나온 사람이 없어 기분
이 안 좋았다(이것이 나의 단점이고 연약함이
다). 천천히 역에서 나온 후에야 P 자매가 바
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번달부
터 그녀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녀와 오빠, 어머니가 각각
한 층에서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어머
니의 집에서는 주일 아침 집회를, 오빠의 집에
서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그녀
의 집에서는 주일 아침 아무 집회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P 자매는 “신도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 집에 자리가 부족해 우
리 집에서 주일 아침 집회를 갖게 되었다”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고 말했다. 그녀의 집은 너무 작아
매번 집회마다 150명에서 160명 가량의 사람
들이 모이는데, 모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
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집회에 참석한다
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그녀는 일부러 나를



장승원 그림

마중나온 것이다. 늦은 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다. 나는 그들의 사역의 발전과 부흥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을 마중나오게 해서 불편을 주었을 뿐 아니라 늦은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형제자매에게도 미안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이다.

중국을 돌보시는 신 증거

P 자매의 집에 오니 과연 대문을 닫을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차 있었다. P 자매는 나를 그녀의 오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는 10세 가량의 아이들 20여 명이 모여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씩 기도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이들은 앞다투어 기도를 이끌어나갔는데,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의 성찰과 다른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지 정말 놀랐다. 가난한 환경은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끝난 후 P 자매는 나를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도 집회가 막 끝나 신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에서 10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들로, X 형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으니 오늘 집회는 분명 특별한 복음집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P 자매는 거의 매주일 이렇다며 적게는 몇몇, 많으면 10명에서 20명 이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아래층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도 두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이렇게 귀한 간증을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별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라고 말하였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했던 나는 복음이 중국에서 이렇게 쉽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중국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교회에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 해가는’ 축복을 어디에다 비할 수 있겠는가?

믿는 자를 날로 더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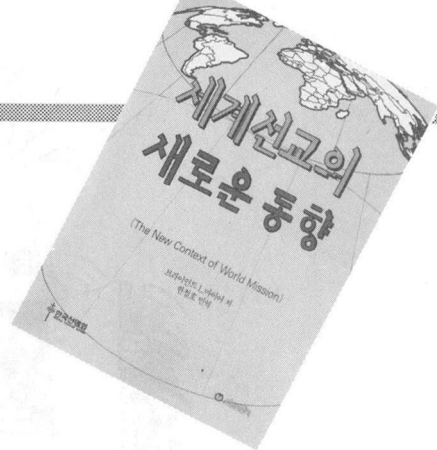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나로 하여금 죄인이 회개하여 기뻐하는 맛을 보게 하셨다. 이번에 나는 중국에서 춘제(春節:음력

설)를 지냈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전통대로 이 명절 기간에 부흥전도 집회를 했다. 내가 S시에서 설을 보낼 때는 그믐날부터 사역이 뿔뿔하게 짜여져 있었으며, 연초에는 하루종일 집회가 있었다. 신도들 대부분은 연초에는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와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설교는 신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어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를 '부흥전도집회'라 부른다.

선달 그믐날 밤, 많은 눈이 내려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친구를 만나야 하므로 매우 바쁠 것이고, 게다가 눈까지 내렸으니 분명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내가 막 집회장소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늦게 온 사람은 문 밖 눈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날 집회에서 1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다. 대부분 성인 남자였고 그 중에는 공산당원도 있었다. 몇몇 자매는 남편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신기도를 할 때 옆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해가 시작되는 첫날 그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연이어 이들 동안 S시의 한 그룹의 청년신도들이 교외 농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각기 전도지를 나눠주었고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우리들이 해외에 있을 때 종종 중국 신도들이 어찌면 이렇게 빠르게 많은 수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문이 어찌면 이렇게 쉽게 열리는가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H 시와 S 시 두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나의 이해를 도와준 귀한 체험이었다.

메이펑즈/ 중국 지도자 양욱 훈련 사역자
《守望中華》 97. 5/6월호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세계선교의 새로운 동향 (The New Context of World Mission)

그림과 최신 통계를 사용하여 오늘날 세계선교의 전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간략하고 읽기 쉽게 기독교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금세기 말의 세계 상황을 알리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게 두꺼운 책이나 학문적인 자료, 긴 정보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책자는 몇 가지 복잡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선교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선교의 역사적 맥락

선교개념의 변화되는 패러다임,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상황

종교로 본 세계, 가난한 자와 어린이들, 분쟁 속의 세계 인구, 지구통합경제, 인구와 수입, 통신망과 기술

세계의 교회

세계 그리스도인 분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의 교회

기독교 선교의 도전

선교를 위한 자원의 배치, 복합적 긴급구호 상황과 난민들, 여성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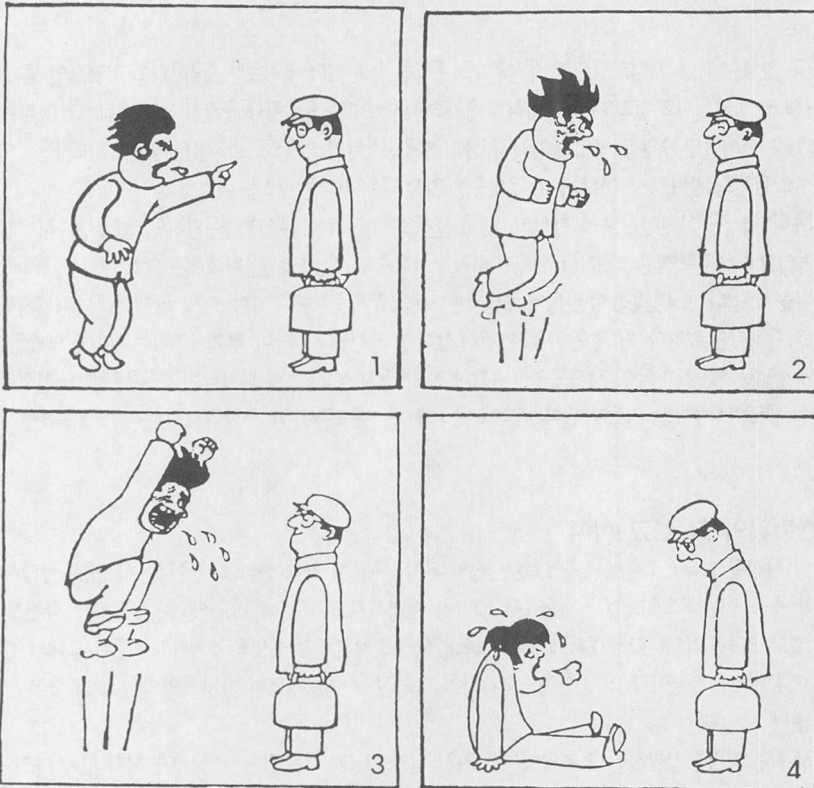
저자 브라이언트 L. 마이어즈 박사는 국제선명회의 선교화 전략을 위한 부서의 부총재이며 MARC(Mission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의 대표이다.

브라이언트 L. 마이어즈 저 · 한철호 역 · 61쪽 · 1,500원
· 도서출판 선교한국 발행
이 책은 선교한국에 연락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T. 02/555-2713

냉정한 일처리 冷处理

왕러텐(王乐天)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인 요즘, 많은 기업들이 큰 야심을 갖고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협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초반전부터 무리하게 기운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냉정한 일처리(?)'이다.



현지에서 온 소식

선교의 한냉전선이 흐르는 중국

송이민

지금 중국 전역은 개방 개혁으로 인한 물질주의로 홍역을 앓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사회를 지켜왔던 윤리나 가치가 돈에 의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 범죄의 증가로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운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회주의의 정신문명 건설은 돈에 혈안이 된 중국인들을 염려하여 내세운 운동이지만, 이것은 우리 식의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이들이 외치는 사회주의의 정신문명 운동의 초점은 마스 레닌, 덩샤오핑이 말하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을 더욱 당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교육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책, 잡지, 학습교재 등을 보면 교회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확장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라는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종교부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러워야 할 선교 사역

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상이나 사회주의의 적대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중국 전반에 흐르고 있다. 금년부터 베이징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에도 공산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들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며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 경계하게 만든다. 그래서 현재 신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선교사들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알고자 하는 열망은 강하지만 그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 갈급해 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이 학습장소를 마련하여 몰래 개인지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벌하고 척박한 중국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중국선교를 하는 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점이 중국선교의 꽃이요, 핵심이다.

중국선교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다만 한국인 선교사로서 중국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 및 신학적 훈련, 목회능력, 지도력 등이 겸비되어야 한다.

더욱 조여지는 감시의 눈조리

내가 보기에 중국 지도자들은 외국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듯하다.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킬까봐 그랬는데, 요즘은 이들이 중국 서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다거나,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비판하도록 만들까봐 그러는 것 같다.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좋은 지역에 함께 모여 일명 '제패니즈 타운(Japanese Town)'을 형성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공안당국이 한국 사람들을 민감하게 바라본다. 행여나 크리스천인 한국 유학생, 교민,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경계하여 감시를 늦추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중국 민간사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작년 11월,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베이징의 택시 기사들에게 지시가 내려왔고, 이들은 몇 주간 동안 몇 백 명씩 사회주의 재교육을 받았다. 특별히 공안당국이 이들을 지목한 것은 아무래도 택시기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인과 접촉하여 천안문 사건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확고해진 장쩌민 체제

금년은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사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제5차 전인대(全人大)가 9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정치노선을 확립하는 일이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장 국석이 티벳, 시짱과 같은 국내 문제, 대만 등의 외교문제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당분간 안정은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므로 장은 얼마 전 차세대 인민 해방군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으며, 일단 이것은 성공한 것 같다.

장(江)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는 작년부터 확고해져 작년 9월까지 군사회의를 할 때 마오(毛)의 초상과 덩(鄧)의 초상이 벽에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장의 초상도 그 옆에 나란히 걸린 것이다. 단지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한 마디로 장은 중국 법률을 이은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선교, 섬김의 자세로 지혜롭게

중국은 불교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유교는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단속하는 내부정책을 펼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특별히 중국은 문서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산당은 레코드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혹은 문서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중국인들이 선동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다. 문서를 전달하다가 발각되면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간첩으로 내몰려 구속조처된다. 한국 대사관에서 탄원서를 써도 소용이 없고 어찌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을 도라 옆에서 지원만 해주고, 조선족이나 한족이 직접 문서와 관련된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한국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연계하면서 그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도라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국 선교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일이 아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질 공세로 중국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조선족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는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선교사 후보자들은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 중국이 어떤 나라이며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수이다. 복음전파는 성경 몇 구절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총체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섬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선교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란다.

송이민/ 중국 선교사



신장(新疆)의 봄

옌사(晏沙)

3월이 되면 신장(新疆)의 북부 지방은 얼어붙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막지대 오아시스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풀이 돋아나면서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일교차는 매우 크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이슬람 교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한 손으로 꼽을 만큼 드물며, 신앙에 대한 태도는 진지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후다’(음역)라 부른다. 쿠룬시에서 일명 ‘교회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기독교는 반대의 물결에 부딪치고 있지만, 우리같은, 주께 속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죽을 위해 어디든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신앙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한 집회를 통해 우주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로 나는 줄곧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우리가 중국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슬픔을 주체할 길 없어 흐느꼈고 나도 강단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시편 126편의 마지막 두 구절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머금고 심겨진 것은 반드시 즐거움 속에서 벻단을 묶어 거두어 들일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 그 후 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멀리 신장으로 보내신 하나님

어느 날 장(張)이라는 성을 가진 한 자매가 교회를 방문했다. 그녀는 지금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전도할 동역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느낌이 왔다. 그러나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여기서 신장이 얼마나 먼 지역인데. 말도 안돼.’라고 생각하며 그 느낌을 지우려 애썼다.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나는 집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에겐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한 명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던 터였다. 우리 자매는 너무나 친밀했던 터라 만약 내가 멀리 신장으로 떠나게 된다면 둘 다 이별의 고통으로 힘들어 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장만은 안

됩니다. 그 곳은 너무 멀어서 여동생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다. ‘내가 네 여동생을 돌보아 주겠다. 네가 돌보는 것보다 내가 돌보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내 나이 불과 스무 살이던 해 교회와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신장에서 사역하게 될 16세의 동역자 자매와 같이...

시기 질투의 덫에 걸려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신장에 도착한 우리는, 천산(天山)을 바라보면서 ‘이 곳에서 무사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를 이 곳에 데리고 온 장 자매가 우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심하게 짜증을 냈다. 어느 날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당신네 교회에 간 것은 기독교 서적과 소책자를 얻으러 간 것이었지, 신장에서 사역할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 매우 실망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 멀고 낯선 신장 땅까지 와서 이

런 곤경에 빠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한 가정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우리가 찬양 시간을 인도했는데 뜻밖에도 함께 부른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통해 신도들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 집회가 끝나기만 하면 많은 신도들이 물려와 찬송 가사를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신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 자매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불만을 느꼈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네는 호합파(呼喊派: 중국의 한 이단 종파. -역자 주)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든지 우리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만 했다.

뜻밖의 곤경을 헤치고

마침 한 자매가 한 농촌 개간지에 세워진 부대 집회를 가는데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했다. 우리는 기쁘게 승낙하고 곧바로 출발했다. 그 부대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곳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흥분감에 들떠 있었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우리와 동행했던 자매가 정신병을 앓고 있

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낯선 가정으로 데리고 가더니 우리만 남겨 놓고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머물게 된 가정에는 매우 친절한 그리스도인인 할머니와 술주정뱅이 아들 부부, 그리고 두 명의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두 명의 손자 중 큰손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으나 작은 손자는 불량배였다. 그가 항상 우리를 섬뜩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므로 나는 ‘이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기거했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었고, 때때로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으므로 매일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행여나 그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장 자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이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매일 우리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들뜬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몇 번 기도한 후 딱히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한 우리는 다시 장 자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 자매는 그동안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죄수들로서 노동개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보통

처녀들이 그 곳에 가면 종종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했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갔다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와 매우 다행이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설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였다. 평신도였던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설교를 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신도들이 설교를 요청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성령충만하기를 간구한 후 말씀을 전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록 평범한 말들이긴 했으나 설교 도중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생각하지도 못한 힘이 생겨남을 보았다. 설교 내용은 나 자신까지 감동을 받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임이 끝난 뒤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으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일은 나와 동역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규모 가정 집회에서 설교했고 그 지역의 신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다. 한 번은 한 유목민 가정을 방문하였다. 그들이 양치는 것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녹색의 풀이 주단같이 깔려있는 대초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가 돌보던 양들에게 문제가 발생했

다. 풀을 먹은 양들이 내내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아닌가! 같은 초원에서 똑같은 풀을 먹은 이웃 양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말이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의 양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한 마리도 절대로 죽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무릎을 꿇고 양들이 무사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며, 반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양들은 더이상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는 도중 교회 지도자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황(黃) 형제를 만났다. 어느 날 특별집회 때 황 형제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내게 설교를 요청했다. 나는 설교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설교하기 전 성령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5가지 색상의 분필을 사용하여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하였다. 신도들은 매우 신기해했고, 설교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설교 내용이 녹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프를 구입하였다. 이번 일로 우리는 설교하는 것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한 학습·양육 집회에서 황 형제가 “예수의 생애”, “신앙의 중심”, “창세기” 등을 준비하였다. “창세기”는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강의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들은 우리가 더 많은 과목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 38일을 한 학기로 한 이 양성반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강의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부흥 집회에 일어난 회개의 역사

양육이 끝난 후 4월부터 8월까지 사역자 훈련이 있었다. 우리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우리의 강의는 4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황 형제는 나의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5월 이후부터 신장은 특별히 바빠지니까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는 우리를 질투하였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였다. 신장에서 전도하는 길이 이미 열렸는데, 장 자매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황 형제가 그 문을 가로막은 것이다. 우리가 신장에 온 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 황 형제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연히 고향에서 온 자매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녀가 우리를 방문하였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길



장승원 그림

을 열어 주셨다. 황 형제가 외출하고 자리를 비운 동안, 신도들은 우리에게 자위밍(賈玉銘) 목사의 ‘조직신학’을 강의해 주기를 요청했다. ‘조직신학’은 절반이 고문체(古文體)로 되어 있어서 강의 첫날은 1시간 동안 성경만 찾았고, 일주일 내내 집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쉬지 않고 공부했다. 형제, 자매들은 이와 같은 강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해 여름 제1회 부흥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자 목사의 ‘조직신학’의 관점을 과정 중에 적용시키는 것이 주였다. 대부분 지식인들이 참석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은 매우 흥분하였고 큰 격려를 받았다. 설교 내용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4일째 되던 날 저녁, 한 자매가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 성령의 빛이 그 자매의 마음 속 깊이 감추었던 어두움을 비쳤다. 문화대혁명 때 자기 자

신이 부친을 목매어 죽게 했던 어두움을 본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본 즉시 그는 부친을 죽도록 한 것이 죄임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한 달이 못되어 집으로 돌아온 황 형제에게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 듯하더니 울며불며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무슨 이단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어서, 황 형제는 매우 언짢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았다. 황 형제도 이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후 우리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도를 양육했고, 끊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다시 신장으로 부르신다면

엄동설한이 지나고 봄이 왔다. 3월은 농번기이므로 사역자 훈련은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지에 푸른 새 순이 돌아난 것처럼 생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자주 신장 지역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전도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한다. 언젠가 나는 신장,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 땅으로 다시 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천산 정상의 쌓인 눈,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광풍, 일망무제의 사막, 그리고 여름날 면화를 따는 노인들... 이러한 갖가지 장면들이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신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출처/「中國興福音」 제14기,
원제: 北疆之春

번역/ 정희정·자원봉사자

중국 교회 순례(7)

윈난(雲南)교회

근래

에 윈난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마케도니아의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는 호소가 점점 커졌다. 윈난성에 있는 교회 중 목자 없는 양들이 매우 많아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중국기독교 농촌사업위원회는 양회의 초청에 응하여, 1996년 8월 중 윈난성의 둥촨(東川)현, 누장(怒江)주, 따리(大理)시 등, 세 곳에서 사역자 훈련을 도왔다. 이제 이번 사역자 훈련에서 경험한 것을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모쪼록 이 글을 읽고서 변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갈급한 심령

8월 2일 둥촨현 사역자 훈련반 개학예배 때 그 곳에 모인 형제자매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날의 성과가 있기까지 그 동안 성도들이 주 앞에서 기도로 드린 시간이 자그만치 10년이었으니 어찌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았겠는가?

따리시 사역자 훈련반의 한 노인 집사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나 됐지만 사역자 훈련반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날 마침내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들을 둘러싸며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동안 내가 한 사역자로서 어깨에 지고 있던 책임감의 무게가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곳까지 오느라 힘들었던 모든 여행길의 피로가 금세 말끔히 씻어졌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강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려움 속의 부흥

윈난성에 있는 모든 지역의 경제는 보편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교회는 더더욱 어렵다. 누장주의 훈련생들은 매일 4원(한화 40원)의 식비를 내면서 두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그 곳에는 단돈 4원의 식비를 내지 못해 계속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둥촨의 훈련생들의 형편은 이들보다 더 어렵다.

작년 8월 전국 양회 농촌공작위원회는 윈난성 기독교양회의 초청을 받아 강소성의 주(朱月德) 목사, 안휘성의 마(馬建華) 목사, 절강성의 동역자 예(叶小蓮) 자매와 하남성의 탕(唐永權) 형제가 이 위원회의 부주임인 자오(趙志恩) 목사의 인솔하에 윈난성 몇몇 지역을 방문하여 그 곳 교회 제자양육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 이 글의 내용은 그들중 몇 분이 쓰신 것이다. [편집자 주]

그들의 왕복 교통비는 모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허름하고 비좁은 기숙사는 학생들로 꽉 차 있다. 외지에서 온 훈련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의 생활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깨끗히 청소한 후 외지 학생들에게 개방하기도 한다.

감격의 눈물

이번 사역자 훈련반은 훈련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 “사역자의 자질훈련”, “기층 교회 목회사역” 등을 골자로 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훈련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이 과목들이 영성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 모두 그들이 몇 년동안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 주었노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의 신앙관도 물질보다 영원한 생명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목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강의는 그들의 믿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으며 성경 연구와 목회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날 형제자매들의 축복송을 들으면서 모두 감사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증보기도 요청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호소는 원난성 도처에 있다. 그들의 기도제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소수민족의 문자로 번역 및 출판사역이 시급하다.

이 사역은 특히 소수민족인 크리스천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장주의 리쑤족은 총인구가 약 50만 명인데 그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0만으로 절반 가량 된다. 그들은 중국어로 된 기독교 서적이 리쑤어로 번역되어 그들이 읽을 수 있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말로 된 성경과 찬송가의 출판도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양(自養)의 어려움

원난성 지역의 낙후된 경제와 불편한 교통 때문에 한때 《天風》 잡지를 구독한 교회는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구독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의 위기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교역자에 대한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을 뿐더러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몹시 안타깝다.

종교 정책의 실현

원난성의 종교 정책은 대체로 불균형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정부와 종교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해외 세력의 침투

원난성은 지역상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서 유능한 젊은 사역자에게 장학금을 주어 외국에 공부하러 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



원난성은 다른 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기만 하다.

서 친척 방문이나 사업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외에 나가 신학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종종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양회의 설립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곳에 양회가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요즘 세간에 떠돌아 다니는 많은 이단들이 원난성에 와 활동하면서 이 곳 지역 사회와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양회가 설립되면 교회를 관리함과 동시에 이단사설을 타파하는 일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난신학원의 복교문제

원난신학원이 수업을 중단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 이로 인해 추수해야 할 곳은 많으나 사역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교회가 발전하는 데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의인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부디 원난성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天風 97년 11호

번역/차이나·본지 편집기자

관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왕짜이(王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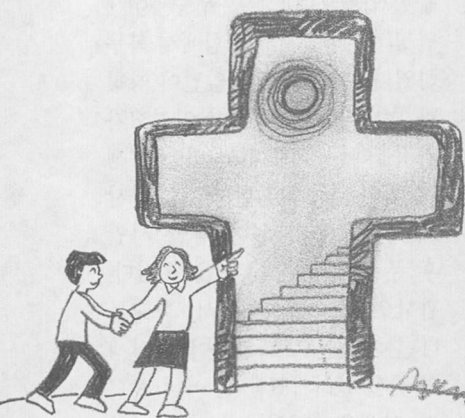
왕짜이 (1898~1975)는
청나라 말에 태어나
민국시대에 학

업을 마치고 좋은 관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관직을 버리고 교회 전도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푸저우(福州)에서 태어나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국내외 각 지역을 다니면서 더욱 크게 전도활동을 벌이며 40여 년을 바쁘게 사역하였다. 특히 그의 설교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단락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또한 매우 일찍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기울여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성취로 '중국의 무디'라는 칭호를 받았고, 중국 기독교사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성경과의 우연한 만남

왕짜이는 푸젠(福建)성 푸저우시의 난타이다오(南台島)에서 태어났다. 푸저우는 중국 남쪽 연해의 유명한 항구이다. 서방문화가 중국에 들어온 19세기 중엽인 그 당시에 가장 먼저 개방된 도시로, 외국인이 상점을 차리고 거주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허가한 5개 항구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감리교, 성공회, 공리종 등의 선교사들이 모두 푸저우로 들어왔다. 왕짜이는 그 당시 교회를 지어 열심히 전도하였다. 개종자 중 많은 신도들은 선교에 몸을 바치거나 전적으로 교회사역을 하였으며 유능한 목사가 되기도 했다. 이로써 푸저우는 중국 기독교회에서 지도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양육된, 두 개의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또다른 지역은 북쪽의 산둥(山東)성으로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왕짜이는 비록 기독교가 비교적 왕성한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그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왕



짜이의 자전 단편집 『모진 풍파 속의 30년-僕僕風塵 30年-』 중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왕짜이의 동생 왕즈(王峙)도 유명한 목사였다고 그의 자전 단편집 『부름받아 나선 40년-蒙召 40年』에서 가족을 소개할 때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나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 가정은 대가족으로 큰 정원이 있는 집에서 1~2백 명의 10대 가족이 함께 살았다. 1~2백 명 중에는 공부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등 여러 방면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왕짜이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촉한 것은 집 안에 감춰져 있던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였다. 이 성경은 왕짜이 부친의 친구인 쉬산요우(許珊友)가 왕의 부친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기독교의 교의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일이 바빠 읽을 만한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9살이었던 왕짜이는 그 때 한참 우표수집에 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우표를 분류해서 넣어둘 만한 책을 찾던 중 서고에서 이 성경을 발견하였다. 이 때부터 성경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우표 때문이었다. 성경책에는 글씨는 없고 우표만 꽂혀 있었다. 단지 아홉 살밖에 안 되고 글도 알지 못했던 그였지만,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은 있었다. 그에

게 성경은 정말 심오했다. 비록 성경을 접촉하기는 했으나 당시 왕짜이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는 성경책과 자신이 앞으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혼으로 예수께 이끄러지기까지

민국 2년(1913) 14살 때 왕짜이는 상하이(上海)의 남양공학교(南洋公學敎)에 진학했다. 이 학교는 당시 중국에서 새로운 학제를 실시했던 학교로 사범원, 상원, 중원, 외원 4부서로 나뉘어졌다. 왕짜이는 오늘날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원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비기독교에서 만든 것이어서 종교에 대한 강의가 없었으므로 학기 기간에는 기독교를 접촉할 수 없었다.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지적 열망이 가득했던 왕짜이는 푸저우

를 떠나 푸저우보다 더 변화한 상하이까지 왔으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은 발을 헛디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 2개월 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다리가 낫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부터 인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 불, 도교 등 여러 종류의 학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의 공허한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답을 해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살아갔다.

민국 4년(1915) 왕짜이는 남양공학교를 졸업한 후 더 높은 전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는 해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의 환경도 적절하여 평생 직업군인이 되고자 산둥성의 연대해군학교(煙臺海軍學校 -Chefoo Naval College)에 들어갔다. 졸업 후 해군계에서 원대한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1년 뒤 왕짜이는 연대해군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후 우쑹(吳淞), 난징(南京) 등지의 군함에서 복무하였다. 그는 참으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다. 직업이 안정되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이미 그와 약혼한 여자인 판샤오룽(潘少容)과 얼마 동안 사귀고 푸저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판샤오룽은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닌 지성인으로 왕짜이의 인생의 좋은 반려자였을 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사람이었

다. 왜냐하면 왕짜이에게 기독교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판 여사의 가정과 그녀 자신도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왕짜이와 약혼할 당시만 해도 그녀는 비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약혼한 이후 교내에서 열린 전도집회에서 안위츠(安汝慈) 여사의 설교를 들은 후 감동을 받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기독교인이 된 샤오룽 여사는 왕짜이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외지에서 일하고 돌아온 왕짜이에게 근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라고 권했다. 왕짜이는 샤오룽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왕짜이는 교회에 가라는 말에 깊은 반감을 표시했으며 샤오룽에게 야유가 섞인 편지를 보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게다가 나까지 교회에 초청해 주다니! 하지만 나는 정말 교회에 갈 시간이 없고, 설사 갈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왕짜이는 고향인 푸저우로 돌아와서 결혼준비를 하였다. 신부 측에서는 기독교 의식으로 결혼하기를 고집했다. 이에 대해 왕짜이는 결혼만 하면 될 뿐 의식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民国5년(1916) 푸저우의 화남여교에 있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들은 정식 부부가 되었다.

결혼 예배가 끝난 후 왕짜이는 신부를 데리고 난타이의 고향집에 갔다. 중국 전통상 결혼식을 막 마친 신랑, 신부는 먼저 옛 고향집

의 사당에 가서 조상의 위패에 절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신부인 샤오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할 수 없이 신랑인 왕짜이 혼자서 절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친척들의 눈에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고 불길한 조짐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신랑인 왕짜이 역시 아내의 행동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온 첫날부터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체통이람’하고 생각하였다. 결혼한 지 3일 쯤 되던 날, 이 날은 마침 주일이었다. 왕짜이는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예배가 끝날 때 불렀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에 매우 감동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를 때 ‘이분은 대단한 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전에 사람들이 <우상과 가까이 하길 원하네>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중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선단체, 예를 들면 병원, 학교, 고아원 등을 생각했다. 또한 세계역사도 BC와 AD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이 났다”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그날부터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던 그의 태도를 바꾸어 진실되게 기독교를 알기를 원했다. 샤오룽 여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좋은 인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왕짜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화남여자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화(華) 선생을 소개해 주어 그의 성경연구를 지도하게 했다. 왕짜이는 사

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어렵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읽으려다가, 마태복음 첫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는 읽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고 결국에는 단맛에 맞들인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갔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읽을 때는 예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태복음의 결말부분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칭의를 읽었을 때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심하였다. 결국民国9년(1920) 왕짜이는 세례를 받았다.

전도자의 길에 나서다

그는 전임사역자로 살 것인가와 해군에 종사할 것인가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때는 여러 해 동안 해군에 종사했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결단을 내리는 데 1여 년 간의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民国10년(1921) 그가 강정(江貞) 군함의 일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

역으로 부르시는 증거라고 느꼈다. 여러 어려움과 장애를 이기고 해군을 떠나 고향인 푸저우로 돌아가 정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이가 23세였다.

왕짜이의 전도 사역은 여러 면에서 중국 기독교사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정식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서양교회의 후원 없이 오직 믿음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서 '자유전도자'와 '전국을 다니는 전도자'라고 일컬어졌다. 그는 고향인 푸저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방전도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손에는 종을, 등에는 전도지와 기독교 소책자가 든 나무 상자를 메고 집을 나섰다. 때로는 나무상자 대신 전도지가 든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가 걸으면서 찬송하며 전도했다. 적당한 곳에 도착하면 걸음을 멈추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을 모은 후, 나무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준 다음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의 설교는 매우 쉬워 누구나 쉽게 이해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의 고향인 푸저우에 심어졌다. 왕짜이는 이 일에 동역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한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 효과는 이전보다 더욱 컸다. 고정적인 집회장소가 있으므로 초신자와 신자가 된 고향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푸저우에는 왕짜이와 함께 선교했던 그보다 어린 청년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푸저우 성공회에

서 세운 삼일서원 출신으로 믿음이 깊었으며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 중 위치만니, 왕짜이의 동생인 왕즈(王峙), 묘샤오원(繆紹訓), 루중신(陸忠信), 웨이광시(魏光禧)와 같은 몇몇 절친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교내에서 자주 전도하였고 휴일에는 거리로 나가 찬양을 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포스터를 붙이고 손에는 표어판을 들고, 빨간 글씨가 써어진 흰색의 조끼를 입고, 열심히 전도하여 푸저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령을 사로잡았다. 왕짜이는 이 학생들과 연합하여 푸저우의 창첸산(倉前山)에 12개의 전세방을 얻어 '기독교 집회처'를 만들었으며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다. 전도사역은 매우 빠르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푸저우를 넘어 동남아에 이른 복음의 발자취

왕짜이가 세운 집회처는 근대 중국 교회 역사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립, 자전, 자양 교회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의 집회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성공회 출신의 영국 여선교사 바버(ME. Barber, 何受恩)양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그것은 단지 영적인 권면으로 끝났으며, 그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 푸저우 지역의 여선교사로 두 번 오게 된 바버 양은, 두 번째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미 그녀를 파송한 성공회를 떠나 혼자서 자유롭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깊고 건

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므로 기도와 제자양육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면에 은사가 있어서 왕짜이와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사심 없이 그들과 동역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 주었다.

푸저우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밖으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였다. 게다가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언제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어, 당시 중국 교회의 강력한 신예부대로 떠올랐다. 그들은 각자의 사역에서도 뛰어났다. 왕짜이와 왕즈 형제는 국내의 전도로, 위치만 니는 교회 집회 설립으로, 묘샤오원은 필리핀으로, 루중신은 싱가포르로, 웨이광시는 홍콩으로 가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교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집회처가 설립되었던 푸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복음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다. 항상 겸손했던 왕짜이는 여러 편의 회고작품 중에 교회의 성파에 대해서는 적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는 회고록에서 이 일을 말하면서 몇몇의 청년사역자와 함께 푸저우에서 했던 사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왕짜이 등이 푸저우 교회 사역에서 이룬 성과와, 뒤이어 송상제(宋尙節)목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푸지엔(福建)성을 중국 기독교계에서 주목할 만한 지위로 확정지었다.

이후 집회처는 동역자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견해, 특히 왕짜이

와 위치만 니 두 사람으로 인해 분열하게 되었다.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왕짜이의 단편 자전집인 『모진 풍파 속의 30년』에서 그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위치만 니의 전기 『황하 가운데 지주산(中流砥柱-역경에 굴하지 않는 튼튼한 인물)』에서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다’라는 말로 갈등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민국 17년(1928) 후부터 왕짜이의 선교 방식은 조금씩 변화해 갔다. 이전에는 푸저우로 제한되어 있던 사역이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해 여름 홍콩의 초청을 받아 제2회 부흥사경회를 이끌었고, 그 기간 동안 선도회(宣道會) 출신인 제프리 목사와 동남아 선교에 대해 의논하였다. 제프리 목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광시(廣西)성으로 와 선교를 한 지 오래되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였고,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교와 원주민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왕짜이를 특별히 초청해 동남아선교의 가능성을 의논하였고, 왕짜이에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하도록 권면하였다.

민국 17년(1928) 겨울, 왕짜이는 안남(安南)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거쳐, 다음 해 네덜란드령의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과 보르네오섬을 돌아본 후에 홍콩을 거쳐 돌아왔다. 이런 전도를 통해 제프리 목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를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고정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왕짜이가 홍콩

을 거쳐 되돌아왔을 때, 몇몇 뜻있는 목사와 함께 ‘동남아전도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민국 18년 9월, 정식으로 왕짜이, 황위엔쑤, 제프리, 자오리우탕(趙柳塘), 량시아오(梁細羔), 우지화(吳濟華), 리우푸쥔(劉福群) 등과 함께 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과 경비를 독립시켜 전적으로 동남아시아 전도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왕짜이를 주석으로 광시(廣西) 우저우(梧州)에 사무실을 열었다. 민국 18년 10월 왕짜이는 상하이, 항저우(杭州), 칭다오(淸島), 지난(濟南), 베이징(北京) 등지에 부흥집회를 열고, 동남아시아의 전도를 위해 신도들에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 열기를 고취시켰다. 이 집회는 국내 사역자들에게 해외선교의 책임을 불러일으켰다. 각지의 많은 신도들은 동남아전도단의 사역이 곧 중국 교회 신도들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에 동의하고 아낌 없이 헌금을 보내주었다. 이후 ‘중화해외전도단(中華國外佈道團)’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중국에서 첫 파송단체가 되었다.

중화해외전도단은 왕짜이의 지도하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이 전도단의 우지화 목사가 설립 8년 후에 쓴 연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8년 동안 사역지의 선교사는 모두 21명인데, 이 중 17명이 전도단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단의 사역을 축복하신 것이 매우 확실하다. 3천여 명의 영혼이 이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후 왕짜이는 전심전력으로

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는데, 40여 년 동안 30여 개국을 다녔다. 전도단은 1955년을 전후로 이미 30여 명의 사역자를 베트남, 인도 등지에 파송하였으며, 1945년부터 1955년까지 10년 동안 9개소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신도는 5천 명 이상이 되었다. 왕짜이는 퇴직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건강하여 홍콩, 대만, 마카오, 미국 등을 다니며 선교하였고, 쉬지 않으려 하였으며,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비로소 미국에 정착하였다. 왕짜이의 설교는 매우 독특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동생 왕즈는 “그의 설교는 매번 30분을 넘지 않았으나, 매우 재미있고 감동을 주었다”고 말한다. 왕짜이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된 유명한 주목사는 왕짜이를 ‘개성있는 훌륭한 설교가’라고 말하였다. 민국 64년(1975) 12월 13일 새벽, 왕짜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왕짜이의 추모예배에 미국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교회 사역에 큰 공을 세운 그의 추모예배에서 40여 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왕즈 목사가 고인에 대한 인사말을 했다. 왕즈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보호해 주셨다”라는 네 마디 말로 그를 기념하였다. 이 말은 왕짜이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가장 합당한 말이다.

그동안 ‘중국의 신앙인물’을 애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국의 신앙인물’은 이번호로 마침내. **-편집자 주**

출처/『中國基督教人物小傳-上卷』
번역/김은희·본지 편집기자

자유의 염원

성경 못 읽게 되자 산 속에 숨겨 두고 묘지 찾아와 읽으며 기도

방지일

그의 말을 빌리면 공산당이 교회를 빼앗아 그들의 집무실로, 학교로, 공장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마굿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공산당

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였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나의 충실한 동역자이자 내 부친인 방효원 목사께서 사역할 당시 전도사로 일했던 중국인 완스캔 장로를 소개하려고 한다. 래양(萊陽) 마가포(馬家泊)교회를 섬겼던 그는, 전쟁이 나자 우리 노회의 순회전도사가 되어 중국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일본군 치하에서 힘을 잃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공산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한마디로 그는 충성된 주님의 동역자였다.

점점 더 살벌해져 가는 중국의

환경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들려주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빈농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활동범위도 점점 축소되어 갔다. 이 일로 그는 매우 고심하였다.

하루는 그가 몰래 나를 찾아와서 흥분된 어조로 여러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의 말을 빌리면 공산당이 교회를 빼앗아 그들의 집무실로, 학교로, 공장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마굿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공산당은 이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의 강요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마가포교회는 그 중에서 마굿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 이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

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함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목사님 얼마 갈 것 같지 않은 징조가 보입니다”였다. 이 말을 들은 내 마음도 매우 기뻛고 나는 계속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번에 마가포교회당이 마굿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도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주위를 돌아보게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인 보선이가 예배당 뒤에서 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구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재빨리 꼬리를 잡았는데 그만 꼬리가 떨어졌는지 뭐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한 다며 다음날 또 가보라고 시켰지요. 보선은 그 다음날 꼬리가 잘린 그 뱀을 다시 발견하고는 제가 시킨대로 가차없이 그 머리를 밟아 죽여가지고 저에게로 가져 왔어요. 뱀은 마귀의 표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꼬리를 끊었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밟았으니, 이제 공산당의 꺾박이 물러갈 날도 얼마남지 않았습시다.”

이 일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 2백리 길을 단숨에 달려온 그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놀린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 또 있다. 교동노회 쓰방교회의 목사로 사역하시던 저우형에(周恒業)란 분이 계셨다. 당시 그는 공산당의 큰 억압에 시달리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비행기 소리만 들

려도 혹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유가 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하소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염원은 다 이러했으며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의 자유에 대한 염원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간절히 바라던 것은 자유였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더욱이 신앙의 자유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나와 친분을 맺고 있던 사람 중 예수를 믿지 않는 지방의 한 인사이면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쥘향팅이란 분이 있다. 어느 날 그가 큰 한숨을 쉬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죄수가 형을 받을 때 유기형을 받으면 그나마 그 기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무기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요?”

이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유에 대한 염원은 다 가지고 있음을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때때로 나는 교회 묘지를 찾아갔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들 사이에는 ‘소조(小組)’라는 조직도 없었고 공산당의 추근거림을 당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무덤 앞에서 그들의 생전의 모습과 가족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당시 공산당은 목사가 교인 집을 방문한다던가, 길가는 도중에 만나기라도 하면 밤마다 열리는



신실한 동역자 완스캔 장로

소교회에서 목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다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몇 번씩 글로 쓰게 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하였다. 따라서 아예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으므로 나는 그들을 심방하기 위해 교회 묘지를 찾아간 것이다. 교회 묘지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 당시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목회는 묘소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곳에서 매우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많은 성도들이 묘지의 비석들 틈에 성경책을 숨겨 두고 이 곳에 와서 울부짖으며 성경을 읽고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마음놓고 울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묘지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개신교 중국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Robert Morrison, 1782~1834)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은 19세기 개신교의 중국 첫 선교사이다.

그는 영국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1804년 창립)가 파송한 중국 첫 선교사다. 당시 영국은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에 무역 독점권을 주어 식민지를 상대로 동양무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이르면서 영국 동인도회사가 동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상업적 이익 이외 기독교의 선교에 대하여는 비협조적이었다. 그래서 모리슨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왕래하는 동인도회사 상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을 경유, 중국령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마카오에 상륙했다. 그 후 25년 간(1823년 12월 5일부터 1826년 5월 1일까지 영국에서 안식년 제외) 마카오(澳門)와 광저우(廣州)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land)의 모페드(Mopeth)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어머니는 한나 니콜슨(Hanna Nicholson)이었다.

모리슨은 제임스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785년 뉴캐슬(Newcastle)로 이주한 후 그 곳에서 모리슨의 미래가 대부분 가꾸어졌다. 한때 갈등과 방황의 시절

을 보내기도 했다. 15세 때 비로소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 그 체험은 부친이 장로로 봉사하던 교회의 아담 레이들로우(Adam Laidlaw) 목사의 도움이 컸다.

1804년 5월 28일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인준, 고스포트 선교 아카데미(The Missionary Academy Society at Gosport)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그 후 성 바돌로메병원(St. Bartholomew Hospital)과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의학과 천문학에 관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1807년 1월 8일 목사로서 안수받고, 그라베센드(Gravesend)항에서 레미탄스(Remittance)호를 타고 뉴욕으로 출항했다. 원래는 동인도회사 상선을 이용, 인도를 통과하여 중국에 상륙을 시도했으나, 동인도회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미국을 경유한 것이다.

그 해 5월 뉴욕에서 미국 상선 트라이던트(The Trident)호를 타고 113일 간의 항해 끝에 중국 마카오에 상륙했다. 때는 1807년 9월 4일 금요일, 중·영 아편전쟁 33년 전, 동인도회사 창립 후 207년 즈

모리슨의 생애

로버트 모리슨은 1782년 1월 5일 영국 노덤버랜드(Northumber-

음이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1809년 2월 20일 마카오에서 메리 모턴(Mary Morton, 莫頓)과 결혼했다. 그 날 동인도회사 통역원으로 채용되어 25년 간 주(駐)광저우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했다(영국 동인도회사는 1671년(康熙 10년) 샤먼(廈門)에 이미 상관(商館)을 설치, 상선이 마카오와 광저우 및 Ningbo(寧波)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

1811년 3월 5일 첫아들 제임스 모리슨(J. Morrison)을 얻었으나 요람에서 옳고 말았다. 1817년 통역관 신분으로 앰허스트(W. P. Amherst, 1773년~1857년) 사절을 수행하여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1821년 6월 8일 주일 밤, 그의 아내 메리가 콜레라에 감염, 어린 딸 리베카와 아들 존 로버트(J. Robert)를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났다(후에 재혼). 결혼한 지 12년, 선교지에 온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1835년 8월 1일 오전 10시, 스코틀랜드인의 피를 이어받은 개신교의 중국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에서 아들 존 로버트 모리슨의 가슴에 기댄 채 52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선교사업

성경번역

만청(滿清) 황제 옹정(雍正, 1723년~1735년 재위)이 기독교의 중국선교를 금지(1723)한 이후 중국 정부의 대외관계는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런던 선교회가 모리슨을 중국에 파송한 주요 목적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모리슨은 1806년 대영 박물관

에 소장된 『사복음합참(Quater, evangelia Sinica)』을 빌려 룡산더(容三德)라는 중국 청년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당시 룡산더는 중국 광저우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다. 이 때 모리슨은 중국어에 상당한 실력을 쌓았던 것이다.

그 후 1810년에 『사도행전』을 번역한 데 이어서, 1811년에 『누가복음』, 1812년에 『마태복음』, 그리고 1813년에 그 외의 신약성경을 번역했다. 신약성경 번역을 완료한 후 1814년부터 구약의 『창세기』를 비롯, 『출애굽기』, 『신명기』(1819), 그리고 1823년에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다.

출판

모리슨이 마카오에 살면서 교역(交易)활동을 하던 기간에는 가족을 떠나 동인도회사가 있는 광저우에서 지내야 했다. 광저우 생활은 매일 중국 관리들과 상무(商務)관계로 인한 영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피곤한 일이었다.

1년 중 6개월은 마카오에서, 나머지 6개월은 광저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모리슨은 출판사역에 몰두했다. 마카오와 광저우에서 모리슨이 출판한 중국어(12종) 책은 선교 문서로서 기독교의 기초 교의와 생활에 관계된 책들이었으며, 영문 책(32종)은 중국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거나 서양의 문화 및 과학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었다.

그외 『印支接聞(Indo-Chinese Gleaner)』, 『福音雜誌(Evangelical Magazine)』, 『滿清志乘(The Canton Register)』, 『中華叢報(The Chinese Repository)』가 있다. 이 책들은 일부는 런던에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그리고 마카오에서 출판되었다. 모리슨은 이런 다양한 출판물을 통하여 영국 교회와 런던선교회의 중국선교 의식을 높였으며, 유럽지역에 동양선교에 대한 관심의 파장을 넓혔다.

교육

모리슨의 활동무대는 마카오와 광저우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 공간적 제한이 모리슨으로 하여금 중국선교에 대한 갈등을 빚게 하기도 했다. 다양한 출판물을 만들어 보았지만 글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없었으며, 중국의 교육이 낙후돼 있어서 우선 그들과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외 감정이 굳어 있어, 중국선교는 중국이 아닌 곳에 전진기지를 두어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가 오는 것보다, 같은 동양문화권 안에서 교육을 통하여 선교인력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 결과 1818년 말라카에 <영화서원(The Anglo-Chinese College)>이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 취지는 중서(中西)문화와 교육 및 기독교의 진리 선교, 그 방법으로는 유럽인에게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인도 동남 지역의 국가와 족속, 즉 중국과 동남아, 고려(한국)와 일본에 유럽의 과학지식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 학교 출신인 중국인 양발(梁發, 1789~1855)이 중국의 첫 목사로 장립되어(1821) 광저우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역본 표지
홍콩대학도서관 소장

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역본 일부

마 1:1-18절까지의 내용

의료

1827년 모리슨은 동인도회사의 주치의 토마스 박사(Dr. Thomas Richardson Colledge)의 동의를 얻어 마카오에서 안과의원을 개설했다. 그 의원 운영비는 동인도회사가 협조했다. 외래환자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시설이래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1832년까지 외래환자 중 4천여 명이 완치를 보았으며, 그 이듬해에 다시 광저우에 안과의원을 개설하리만큼 의료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모리슨의 의료선교는 1835년 광저우에서 미국선교사 파커(Rev. Peter Parker, 1804~1888)가 〈박제의원(博濟醫館)〉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의료활동을 시작한 이전이다. 파커는 1832년 기독교 최초로 '재화의약전도회(The Medical Missionary Society in China)'를 조직했다.

선교 공헌

중서(中西)문화의 벽을 돌파
기독교 선교가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영국은 1671년(康熙 30

년) 샤먼(廈門)에 상관(商館)을 설치하고 마카오와 광저우 및 Ningbo 등지에서 통상을 전개하던 중, 1737년(乾隆 22년) 청(淸)은 외국인 중국 연안에서의 활동을 다시 규제하여 광저우의 '13양행(Factory)'에서만 통상활동을 허용했다. 그것도 매년 5월~10월까지의 교역이 끝나면 모든 외국인은 광저우에서 철수해야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리슨은 선교사 신분으로서 통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으로 알려진 동양, 즉 중서 문화 교류에 공헌을 했다. 특히 『화영자전(華英字典, Grammar of Chinese, 1815)]의 출판은 유럽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지수문(印支搜聞, Indo-Chinese Gleaner)]을 통하여 유럽 학자들이 중국의 문화와 풍속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국을 서양에 소개

모리슨이 중국에서 25년 간 활동하는 동안 출판한 영문 출판물은 모두 21종, 이 출판물은 대부분 서

양을 중국에, 혹은 중국을 서양에 소개하는 내용들이었다. 1823년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때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조지 4세에게 봉정(奉呈)했으며, 이 기간에 『중국잡지(The Chinese Miscellany)]를 발간하여 영국인들에게 중국을 알렸다.

서양을 중국에 소개

모리슨은 1815~1821년까지 말라카에서 출판한 『찰세속매월통기전(察世俗每月統記傳)]을 통하여 서양의 종교지식, 문화지리에 관한 내용을 동남아 일대에 산재한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

모리슨은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뛰어들어, 그의 인생 전부를 중국을 위해 바쳤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다. 모리슨이 중국을 위해 한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중국 문자로 번역하여 중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라 하겠다.

로버트 모리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저서 『로버트 모리슨』-기독교역사연구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목사, 예정(고신) 총회 선교부 총무

깨어지는 금기

지슈오밍(紀碩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다. ‘구(舊)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신사회’에 이르기까지 범도덕의 문화가 퍼져 있는 분위기 아래서 ‘성(性)’은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고 더욱이 ‘성별을 바꾼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현대의 중국은 오랫동안 성에 대한 금기의식이 잠재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제기하는 것은 ‘저질’, ‘도덕성이 형편없다’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금지당했다. 또한 종종 도덕, 법률 심지어 정치적 측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자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다.

이성병(易性病)

최근 몇 년, 중국 시민은 의학 학술계와 전통의 금기구역을 깨뜨렸다. 치료의학에서 ‘이성병(易性病-성을 바꾸는 것)’이라 불리는 성을 바꾸는 방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수술성공률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오랫동안의 폐쇄정치에 젖어있는 중국에서 성전환한 사람의 권익은 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용납과 존중을 받기는 어렵다.

상하이(上海)에 살고 있는 조우단니(鄒丹妮)는 28년 전,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씩씩한 사내대장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승(正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일을 가지고 있는 정승의 부모님은 그를 외할머니에게 맡겼다. 외할머니의 집에는 이모, 언니 등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린 정승을 온종일 둘러싸고 화장을 해주는 등 여자아이처럼 꾸몄다. 이러한 것이 어려서부터 익숙하고 습관이 된 정승은 수줍음이 많아 잘 울었고 남자아이와는 놀기 싫어하고 여자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또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려고만 했다. 모두들 정승의 성격이 약간 ‘부드럽다’고 말할 뿐 나중에 크면 계집애같이 굴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정승은

커가면서 여자보다 훨씬 더 예뻐다. 또한 보통 남자같은 기질과 성격도 없었고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루종일 집에 처박혀 여자들처럼 화장놀이를 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승의 ‘미모’는 여자아이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여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정승의 마음 한구석에는 매우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절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여학생들은 모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매우 괴로웠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내 마음에는 태어날 때 성별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내 대장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철강회사에 배치되어 거친 일을 하게 된 그는 “저의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감당해낼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장남인 정승의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여자를 소개해주어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도록 하였다. 겉으로는 부모님의 뜻에 따랐지만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여자로 성전환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부모는 이 말을 들은 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놀랐고 그의 아버지는 거의 실신할 뻔했다.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상관 없이 그동안 고생해서 번 거금 2만 원을 수술비로 썼습니다.”

그는 작년 봄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희망을 품고 상하이로 갔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녀”를 검사한 후 정승의 여성적인 경향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이라는 진단을 내려 결국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 문진박대를 당한 후에도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정의 결심은 굳건하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다가 어느 잡지를 보고 결국 우한동즈의원(武漢同治醫院)의 의사인 자오젠쥔(趙建軍)을 찾아갔다. 자오의사는 상하이의 의사와는 달리 정승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느끼고 즉시 수술을 했다. 거의 5개월의 치료과정을 거치고 난 후 정승은 정식으로 여인이 되었다.

성전환, 수술보다 심리치료가 우선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생은 <금해안미용정형외과센터(金海岸美容整形外科中心)>의 주하이(珠海) 정형외과 센터 의사인 리우나이쥔(劉乃軍)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학교에 다닌 후 부터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여자의 외모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난 정말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성전환을 원하는 환자의 정서상태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홍콩 중문 대학심리학 박사 장젠신(張建新)은 대부분 열등감, 고독, 초조감, 의심 등 큰 사회의 압력을 받거나 치료할 길이없이 우울함에 시달리다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고 말했다. 심리학자들은 유전학상에 변이가 있는 생리유전적인 원인으로 이들은 사회 행동에 반역적인 행동과 사회 전통문화를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측면으로는 후천적인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심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장 박사는 말했다.

정형외과 의사 리우나이쥔은 이미 10여 년의 외과경험이 있다. 그는 성전환 환자들은 대략 이십만 명 중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리우 의사는 1988년 상하이의 ‘제2군요과대학’에 가서 정형외과 및 현미경 외과 전문가인 허칭렌(何清濂) 교수에게 배웠다. 허 교수는



성전환 수술을 한 조우단니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모습.

일찍이 1990년 말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에 성공하였고, 1년 후에는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에 성공해서 해외 여론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작년에 리우는 근 10년 동안 조금씩 연구해왔던 글 중 40여 편을 선택해 성전환 외과 논문집을 냈다. 전에는 중국에는 성전환 해석에 관한 글자는 단지 몇 백 글자뿐이었다.

리우나이권에게 예약된 다음 번 성전환 수술자의 40여 명은 1백여 명의 환자 중에서 뽑은 것이다. 리우는 수술 대기 중인 환자가 많아도, 그들은 적어도 2년 동안 관찰한 후 수술하기 전 8개의 증명문서를 받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환자들은 신중한 관찰과 연구, 사회 조사 등을 거쳐 약물과 심리 치료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리우나이권이 시간과 힘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수술이 아니고 수술전후의 심리 조사와 상담지도이다. 리우는 “이성뻔은 심리적인 병이므로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그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법률에 보호받는 성전환 환자들

성전환 환자 중 남자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바라보고 언젠가는 완전한 여성이 되어 사랑과 보호를 받기를 강렬히 희망한다. 여성환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남자로 보고 남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홍콩대학 정신치료학과 교수인 우민륜(吳敏倫)은 “홍콩 전문인들이 조직한 ‘성별인식 그룹’모임에서는 매번 성전환을 신청한 사람을 2년 동안 평가하고 심사하여, 성전환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그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설령 수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똑같이 1년이나 2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을 용납하는 반면에 홍콩법률은 여전히 그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가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성전환 환자들은 이미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출처/ <亞洲週刊> 97. 5. 26 “與上帝唱反調”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신중칭”의 오늘과 내일

-직할시로 승격된 충칭-

인구로는 서울의 3배, 크기로는 스위스의 2배만한 직할시가 중국에 탄생하였다. 쓰촨(四川)성 동남부에 위치한 충칭(重慶)시는 지난 3월 14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인민대회(全人大) 5차 회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원래는 2만 3천km²의 면적에 인구 1천5백만 명이었으나,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근 쓰촨성 푸링(涪陵)시와 완셴(萬縣)시, 첸(黔)강 지역을 포함해 8만 2천km²에 인구는 3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에 이어 중국의 네 번째 직할시가 되는 셈이지만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물론 세계 최대이다.

중국 4대 직할시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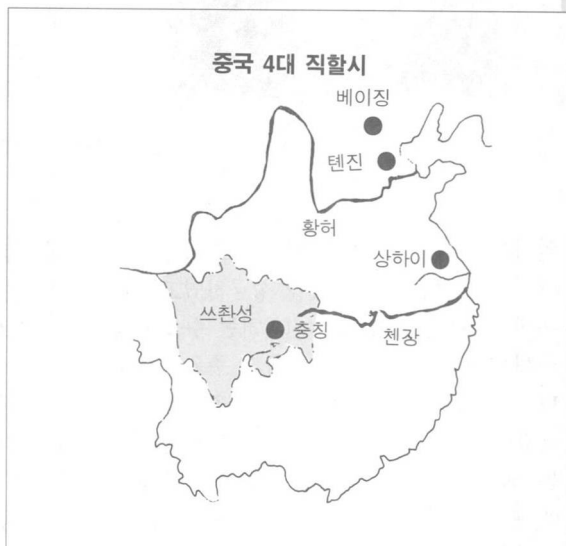
(단위:만 명, km², 한화(원))

구분	충칭	베이징	상하이	톈진*
인구	3,002 (1,500)*	1,000	1,232	900
면적	82,000 (23,000)*	16,800	6,200	11,000
국내 총생산액	4조	7조	10조	5조

* ()는 직할시 승격 전

서부 경제발전의 중심 지렛대

중국 국무원이 충칭을 직할시로 승격시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충칭시 위치도

첫째, 94년부터 시작된 산샤(三峽:삼협)댐 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인 약 120만 명의 이주민을 흡수함으로써 댐공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칭을 통해 산샤 저수지 지역 이민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산샤댐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댐의 저수로 인해 1백만 침수지구 이주민이 발생될 것이며, 배치가 필요한 이민의 절대다수는 쓰촨성 변경 내 푸링, 완셴 일대에 있다. 현재 댐건설은 아직까지 자금·설비투자 등 모든 것이 순조롭

다. 산샤댐 최고의 관건은 백만 명에 이르는 이민의 적절한 안치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 등 기존 3대 직할시가 모두 동부에 치중해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 지역 개발에 충칭을 이용, 지역간 개발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충칭은 중국 중서부가 결합하는 지대에 위치해 그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중서부 발전계획을 가속화하는 데 충칭은 가장 적당한 조건을 지닌 중서부 발전의 기점이 되고 있다. 창(長)강 연해 개발에 상하이가 용의 머리라면, 충칭은 용의 꼬리이다. 21세, 중국은 상하이의 푸둥(浦東) 지역과 충칭이라는 2개의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가질 것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리우는 충칭시 부시장 리더수이(李德水)의 말이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동부연해 개발전략과 장강연해·중서부 개발전략의 조화로운 발전은 중국 대륙 경제발전의 3대 지렛목이다. 충칭은 3대 지렛목 중간에 위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서부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행정구역과 인구 과다로 신음하는 쓰촨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쓰촨성은 현재 한반도의 2배가 넘는 56만km²의 면적에 인구 1억1천여만 명으로, 인구와 행정지역 모두 과대하여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앞으로 충칭은 장강 상류의 주요 도시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지구와 창강지역의 농촌 경제·사회발전을 이끌 사명이 있다.

이 외에도 충칭은 전국 6대 중공업기지의 하나로, 중공업 비중이 65%를 차지한다. 국가의 중공업 기지 우대정책에 따라 충칭이 그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직할시 승격 후, 정부는 충칭에게 더 높은 경제관리 권한과 행정관리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안개를 걷고 등장한 “신충칭”

지난 8월 11일, 충칭 직할시에 198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취임하였다. 충칭 당국은 정치개혁

도 추진하고 있다. 문을 열고 일하라고 강조한다. 시 정부는 행정정책을 공개하고 정부사업의 투명도를 높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관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예를 들어 베이징의 ‘박사단’), 이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충칭은 직할시가 된 이후, 상하이의 푸둥과 동등한 우대 정책을 누리게 되었다. 외자은행이 충칭에서 분점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외국기업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을 열 경우, 중앙은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하였다. 충칭 내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국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고, 충칭의 차관 비율을 중국의 평균수준보다 높게 할 것이며, 외자기업은 충칭이 지불할 소득세를 33%에서 24%로 인하하는 등의 투자를 할 것이다.

현재 충칭의 국유 경제는 전국 시 경제의 69%(절강성의 국유경제는 단지 16%)를 차지한다. 한편 농지면적이 광활하며 빈곤지역 또한 매우 넓다. 충칭은 창강 상류 최대의 경제 중심 도시이며, 공업·상업·금융에서 우세하다.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분할된 농촌의 판도는 80%에 달했다. 새로 나누어 편입된 ‘두개의 시가 하나의 구역으로 된’ 22개의 현중, 21개가 낙후하고 봉쇄된 산촌지역에 위치해있다. 농촌 인구는 총인구의 8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빈곤인구도 366만으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충칭은 승격 이후, 상대적으로 발달된 특대도시와 빈곤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나뉘는 구조를 이룬다.

풍부한 자원, 낙후한 경제

충칭은 계획경제 조건하에 형성된 공업구조와 시장경제 체제의 요구가 조화되지 못했다. 80년대 중반부터 날로 격화되는 동부 연해지구의 시장경쟁과 비교하여, 충칭의 낡은 공업기지의 심각한 모순이 명확히 드러났다. 많은 기업들의 설비는 낙후되고 생산품은 열악하다. 신흥공업과 첨단기술산업의 낙후는 물론, 우수한 전통공업도 쇠퇴해 어려움이 더해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근 푸링, 완선, 천장을 포함해 인구 3천만 명을 품게 됐다.

충칭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산업. 충칭은 2000년까지 재취업률을 5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충칭 주변의 광활한 변경 산악 지역은 비록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연가스·약재 등이 매장되어 있으나, 교통·통신의 부족과 낙후한 경제로 인해 여전히 빈곤에 처해있다.

직할시로 승격, 세기의 기회와 도전을 맞은 충칭에게 다음과 같은 4개의 커다란 난제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산사 침수지역 이주 총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백만 이민 문제(산사 댐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대부분은 주로 충칭에 살고 있다. 102만 명에 이르는 이민들은 충칭에 구역확장과 구역재건이라는 역사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새로 나누어 편입된 충칭의 6백여km²나 되는 저수지구 농촌은 창강경제 일대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며, 21개의 빈곤한 현은 거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 3백만에 이르는 빈곤인구의 빈곤탈피 문제.

셋째, 공업, 경제의 진흥.

넷째, 생태계의 균형과 환경오염 처리문제.

충칭의 사활이 걸린 재취업 문제

충칭은 “재취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원리’를 실현하는 시책이라 여긴다. 실업인구의 재취업 문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충칭시 개혁과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리게 될 것이며, 당 정부와 인민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며,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8월 14일 충칭은 “전 시 재취업동원대회”를 개최, 2000년까지 재취업률을 5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금년 5만 실업 인구의 재취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8월 15일, 1만 5천 명의 실업자들이 몰려든 “실업자 재취업 박람회”에 78개의 사영기업들이 참여하여 3,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 채용인원은 620여 명에 그쳤으며, 고용합의서에 계약한 인원은 1,400여 명에 불과했다. 경제발전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제와 시장경제 결합의 효과적 실현방식 모색이 시급하다.



신 충칭의 당정(黨政)기관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충칭시 위원회 현관식 광경.

충칭 금융시장의 잠재력

경제학자인 라오위엔허(寥元和)에 따르면, 본세기 말까지 충칭 농촌인구의 생활비는 인민폐 1백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며, 도시주민의 생활비도 140억 원으로 증가하고, 시장구매력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로 인해 외국 금융계에서는 앞다투어 충칭을 조사 연구해

이곳에 지점 및 사무소를 내고 있다. 거대한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충칭에 누구든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출처/ <亞洲週刊> 97. 3. 17 / 97. 8. 25

번역/ 김혜경 · 자원봉사자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폭염 속에 '휘귀'를 먹는 충칭인들

8월의 충칭을 일컬어 '화로'라고 한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충칭 사람들은 더욱더 뜨겁고 매운 '마라휘귀(麻辣火鍋: 고추를 넣어 매운 국물을 끓여서 각종 고기와 야채 등을 익혀 먹는 일종의 신선로 요리-역자 주)'를 즐겨 먹는다. 그들은 삼복더위에 휘귀를 먹고 땀을 흘리면서 참으로 시원하다고 느낀다. 보통 충칭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지독하게 더운 날씨와 여름에 먹는 '휘귀'이다. 거리마다 휘귀를 파는 식당을 쉽게 볼 수 있다. 에어컨도 없는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삼삼오오 모여 앉아 휘귀를 먹으면서 얼음피운 맥주를 마신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장사는 오히려 더 안 된다 고 할 정도로 충칭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아마도 충칭인들의 피 속에는 어떤 '자극욕'이 있는 듯하다. 버스나 차를 몰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매우 거칠고 자극적이다. 여성들마저 길거리에서 욕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것을 보면 꼭 무술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것은 아마도 날씨 탓일지 모른다. 충칭인에 대한 연구 권위자인 모화이치(莫懷威) 선생에 따르면, 충칭인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솔직하며, 소박하며 격정적이며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 <亞洲週刊> 97. 8. 25

번역/ 김혜경 · 자원봉사자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약칭 15全大·전대)가 지난 9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18일 폐막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당대표 2천여 명(올해는 2,048명)이 참석 ▶중앙위원회 보고청취 및 심사 ▶당의 중대문제에 대한 토론과 결정 ▶당장(黨章)의 개정, 중앙위원회의 선거 등을 하였다.

장쩌민 국가주석의 정치보고

12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밝힌 정치공작보고는 「당샤오팡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건설을 21세기를 향해 전면 추진한다」는 긴 제목의 61쪽 분량이었다. 장 주석은 경제부문에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겠으나, 정치부문에서는 서방 정치제도의 모델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주석은 또한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샤오팡(鄧小平) 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은 덩 이론보다 하위개념인 「지도지침」으로 설정했다. 경제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과 지도이념

당샤오팡의 이론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변하고 있다. 당은 덩 이론을 새로운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주의를 견지하며 당의 권력독점을 약화하는 어떤 개혁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제도

정치개혁은 법제도 개선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법치를 강화해 지도부 교체와 관계 없이 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소송·판결의 독립, 공정성이 확립되도록 사법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지방관리의 민주선거를 도시로 확대, 정책결정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개혁은 서구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十五大代表投票：
選舉的差額率為百
分之五點八

15차 공산당대회 투표 광경. 94.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사

80년대 군병력 10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앞으로 3년간 50만 명을 추가 감축한다. 군은 적극적 방어전략을 견지, 질적 향상과 소수정예를 지향한다.

부패

부패와의 전쟁을 당조직 정화(淨化)와 결합, 부패한 관리를 당에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고위관 리들은 규율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만문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무력 사용시 그 대상은 대만 내 독립세력과 통일을 방해하는 외국세력이다.

21세기 전망

국민총생산 목표를 2010년까지 2000년의 배로 늘려 인민생활을 더욱 여유있게 하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겠다. 공산당 창건 1백주년(2021년)에는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 건국 1백주년(2049년)에는 기본적으로 현대 화를 실현, 부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인사

폐막식이 거행된 9월 18일, 15기 중앙위원회 정위원 193명과 후보위원 151명을 선출했으며, 115명의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193명의 중앙위원(정위원) 가운데 약 40%가 신규로 충원된 인물들이며 평균연령도 14차 56.3세에서 이번에는 55세로 낮아졌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존의 5명 외에 웨이젠싱(66. 尉健行 정치국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란칭(66. 李嵐清 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 2명이

선출됐다.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력서열은 1위 장쩌민(총서기 겸 국가주석), 2위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 3위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상무부총리), 4위 리루이환(李瑞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5위 후진타오(胡錦濤 중앙당교 교장), 6위 웨이젠싱, 7위 리란칭 순으로 재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해당)이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탈락, 실각했다. 이로써 차오 위원장은 정치국원 피선거격을 자동 상실, 정계은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새로 구성된 중앙군사위원회는 14기 당시 부주석이었던 류화칭(劉華清)과 장진(張震)을 퇴임시키고 위원이었던 장완넌(張萬年), 츠하오텐(遲浩田)을 부주석으로 승진발탁했으나 위원수는 늘리지 않았다.

차오스의 실각으로 내년 3월로 총리직 임기가 끝나는 리펑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차오스와 류화칭의 퇴진으로 장쩌민 국가주석의 1인 체제와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193명의 중앙위원 가운데는 조선족으로 이덕수(54·李德洙) 당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유일하게 선출됐고, 후보위원으로 전철수(全哲洙) 지린(吉林)성 부성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조남기(趙南起) 장군은 이번에 탈락, 제15차 당대회에서 조선족의 정치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장쩌민이 주창한 국유기업 개혁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을 강조한다.

경제

“국영기업 개혁과 기술발전, 경제구조 재조정을 심화함에 따라 실업과 인력이동은 불가피하다.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과거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주요 국영기업은 공유로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감축돼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장 주석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유제를 주체로 한 혼합경제체제’로 규정했으며, 1921년 공산당 창건 이래 기본노선이었던 국가공유제를 경제구조 내에 존재하는 한 형태로 격하했다. 이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따른 것으로 국유기

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주식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주식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적 기업제도”라고 말해 이 제도의 초점이 기업과 자본의 효율성에 맞춰져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주식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한 국유부문의 대폭적인 감축과 사유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에 대한 강조다. 그는 고용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졌던 이른바 ‘철밥통(鐵飯碗)’ 관행은 더이상 혼합경제체제에서 통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업도 불가피하다고 공개 선언했다.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중국이 완전한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자체진단에서 나온 용어.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아직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는 뜻.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인 79년 11차 당대회 3차 중앙위 전체회의(11기 3중전)때부터 중국의 역사적 단계를 이같이 규정했다. 사회주의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초급단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과 개혁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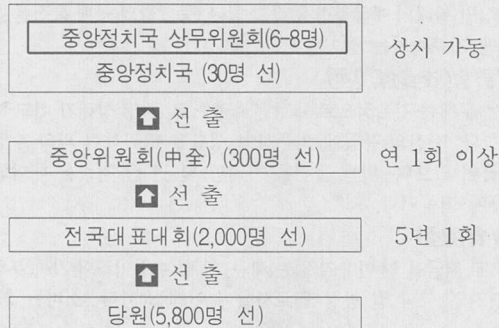
참고

중국의 권력서열과 공산당 조직

중국은 헌법상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노농(勞農) 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당(黨)과 정(政)의 2원적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기능이 구분되어 당의 역할은 정치, 이념, 조직적인 지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대부분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행정조직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 중추부인 공산당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공산당에서 결정된 정책이 각급 국가기관에서 집행되는 것을 감독, 통제한다. 공산당 조직은 중앙조직과 성(省)급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설치된 지방조직, 향(鄉), 진(鎮) 등 기층행정단위, 생산단위, 인민해방군 중대급 부대 내 당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쪽에서 최고권력기관은 전인대로서 국가주석,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 국가권력 기관의 주요 구성원은 모두 전인대에서 선출된다.

중국공산당 지도 조직체계



전국대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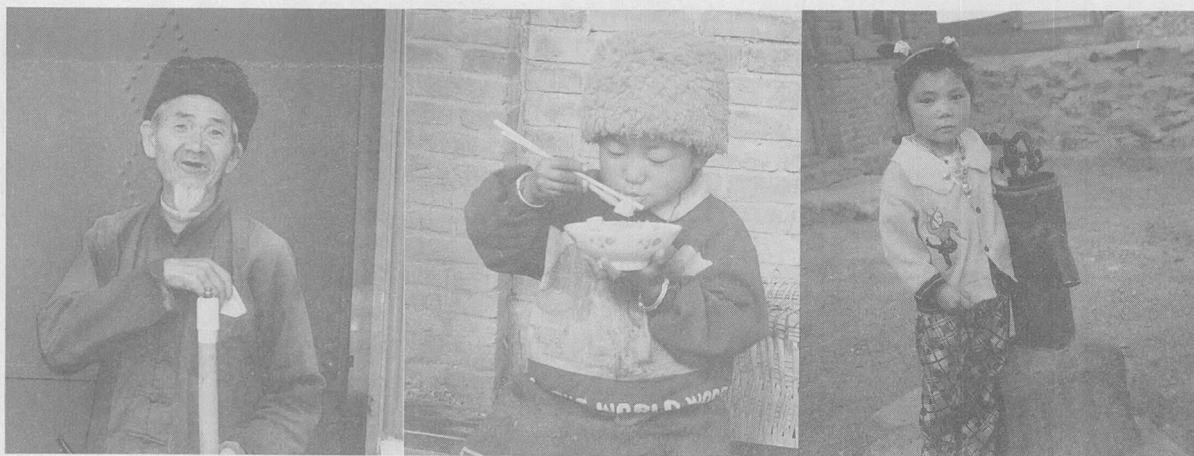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는 5천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최고회의체제이다. 전대 역할의 핵심은 당의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3백여 명의 위원(후보 포함)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중앙위원도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한 것이 바로 중앙정치국이다. 중앙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 6~8명이 당과 12억 인구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 핵심들이다.

전대는 중앙위원회나 중앙정치국과는 달리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다. 규모가 워낙 방대해 토의기관으로는 부적합하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형식적인 회합에 불과하며 회기는 대부분 1-2주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가 개막 전부터 국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덩샤오핑 사후 장쩌민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상황과 12억 인구의 경제적 선택이 이번 대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87년에 13전대, 92년에 14전대가 열렸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97. 9. 11~9. 19)/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김정계, 평민사.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비그리스도인 인구가 최대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중국의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지난호(47호)에 이어 내몽고 자치구의 소수민족 중

다워얼족, 어원커족, 어룬춘족을 다루었다.

중국 소수민족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이 정보는 소수민족 선교 관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몽고자치구의 소수민족(Ⅱ)

편집부

다위얼족(達斡爾族)

중국 내에서 알려진 다위얼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보면, 모리다와(莫力達瓦) 다위얼족 자치기(自治旗)를 실행구역(實行區域)으로 갖고 있는 자치민족으로 되어 있다. 주요 거주지는 네이멍구 동부의 후명(呼盟)과 모리다와 자치구, 어원커(鄂溫克) 자치기, 헤이룽장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 메이리쓰(梅里斯)구와 부라얼지(富拉爾基)구, 푸위(富裕)현, 그리고 소수가 신장의 타청(塔城)시와 취에(霍)성에 살고 있다.

다위얼족의 주거는 대부분 분산되어 있고 작은 집단으로 자연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래서 민족간의 결속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간의 방언차이가 심하지 않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서로간의 언어소통이 원활하다.

18~19세기의 청대에는 만주문자를 사용했고 그 후 잠시 소수가 몽고문자와 카자흐 문자를 썼다. 신해혁명 후에는 보편적으로 한자를 사용했다. 그 후 학자들에 의해 라틴문자를 쓰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문자제정 비준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모리다와는 중국 내의 다위얼족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우선 이곳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모리다와 다위얼족 자치기

이 곳은 1958년 8월 15일 자치기로 성립하였다. 일찍이 청대로부터 이 곳의 지방들을 관할하는 문호였다. 1946년 2월부터 네이멍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얼빈(哈爾濱)~만저우리(滿洲里)로 연결되는 열차노선 중에 치치하얼시에서 장거리 노선버스로 5~6시간 가면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아직은 외부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지역이 아니므로, 방문시는 상부기관의 허락을 받거나 관계

민족명: 다위얼족(Dagur, Dagour, Dawar, dawo'er, Tahir, Tahuerh)

본 포: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 구: 121,357명(1990년)

도시인구: 미확인

국외 거주지역 및 인구: 보고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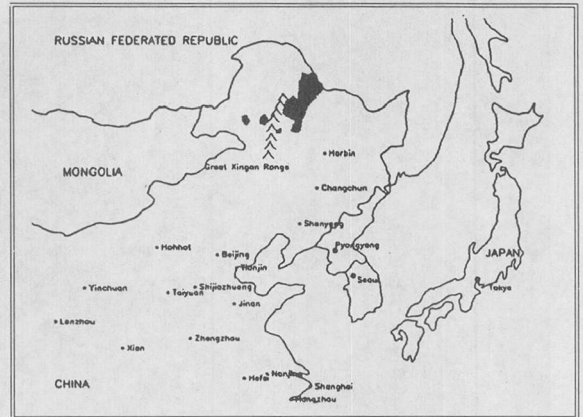
문맹퇴치율: 81%(1985년)

언어와 문자: 알타이계 몽고어족, 바타한, 하이랄,
치치하르 방언이 있음. 문자는 아직 없음.

종 교: 사머니즘, 라마불교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농업, 축산, 수렵 등으로 살아감.



(關係)를 통해 합당한 명목을 얻은 후 방문해
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리적 위치와 환경

모리다와 자치기는 네이멍구 후명의 동남부
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지도상에서 치치하얼
시를 찾으면 이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
역상으로는 네이멍구에 편입되어 있으나, 행
정적으로는 공권력과 인맥 등이 헤이룽장성
의 하얼빈과 치치하얼시의 통제 아래 있거 때
문에 외부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사무처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매우 엄격하
거나 때로는 매우 융통성(?)이 있음을 현장에
서 경험하게 된다.

넌(嫩)강이 흐르는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
에 있으며 서북쪽으로 어룬춘(鄂倫春) 자치기
와 인접해 있다. 전기(全旗)의 남북의 길이는
120km이고, 동서폭의 길이는 평균 약 70km이
다. 총면적은 13,800km²로서 후명 총면적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은 북쪽지
대는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전체의 74%를 차
지하고, 중부지대는 구릉지대로 20%, 남부지
대는 평원으로 6%를 이루고 있다. 년강과 뤼
민허(諾敏河) 등 40여 곳의 크고 작은 하류가
있고 협곡지대의 영향으로 물살이 급하고 낙
차가 크다. 대부분이 추운 대륙성 기후이고 연
평균 기온은 13℃이다. 자치기 내에 5개의 국
도가 있고 총길이는 328km이다. 현재 대부분
의 도로가 온전치 못하여 정상적인 차량 운송

이 불가능하다. 특별히 북쪽의 많은 촌락들은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리다와 자치기는 여러 소
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다위얼, 어원
커(鄂溫克), 어룬춘(鄂倫春), 한(漢), 명구, 만
(滿), 조선(朝鮮) 그리고 후이(回)족 등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곳에 사는 각 소수민족
의 인구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1964년		1982년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88,225		258,877	
다위얼족	17,263	19.6	22,609	8.73
한 족	65,276	74	218,311	84.33
명 구 족	402	0.45	2,659	1.03
만 족	2,715	3	9,220	3.56
어원커족	1,945	2.2	4,528	1.75
조 선 족	508	0.57	939	0.36
후 이 족	50	0.06	312	0.12
어룬춘족	33	0.04	199	0.08

간주린 다위얼족 이야기

다위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설은 17세기
중엽에 현 러시아 국경과 헤이룽장성 지역 그
리고 현 러시아 지역의 징치리(精奇里)강 하
구에서 발원하여 이동하다가 수(隋), 당(唐)과
원(元), 명(明)대를 거치면서 헤이룽장 이북에
정착한 토착민족의 후예라는 토착설과, 다른



다위얼족 어린이들

한 가지 설은, 그들의 언어와 역사, 전설 그리고 많은 문화와 풍습이 거란족과 상통하므로 거란족의 일파라는 거란 후손설이 있다.

1644년 러시아가 헤이룽장성 북부지역을 침입함으로 이들은 대거 년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후에 청대에 이르러 청장년 수비대를 조직하여 동서 변경을 지키게 함으로써 현재 일부가 신장의 타청(塔城)현에도 살고 있는 인구분포가 형성되었다. 년강 중상류에 정착하게 됨으로 자연히 농경문화가 발달되었고, 강과 산악지대에서는 수렵이 행해지고 풍부한 목초지에서는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와 풍습

현재 정착지대의 집들은 대부분 벽돌로 지어졌고 때때로 초가집도 보인다. 이 곳에 사는 조선족들은 주로 논농사를 짓고 쓰는 말이 다를 뿐, 외부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아서는 구분하기 힘들다. 주식으로는 주로 쌀을 먹는데, 특이한 것은 우유를 넣은 더운 쌀밥, 우유를 넣은 밀, 빵을 먹는다. 그리고 우유와 개고기를 넣은 밀죽을 영양식으로 노인들에게 대접한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같이 흡연과 술, 그리고 차를 즐겨 마신다. 이 곳은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반드시 담배, 술, 우유

차나 유제품을 권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며 서로 간의 협동심이 강하며 손님접대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의상으로는 동·하복이 있는데, 공히 긴 외투이고 겨울에는 가죽 옷을 걸친다. 특징으로는 남자는 모자와 허리띠를 매고, 여자는 장신구를 달아 멋을 낸다. 절기로는 설날(春節), 단오절, 양력 정월 16일의 흑회일(黑灰日)을 지낸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이고 씨족의 혼인이 원칙이다. 결혼은 주로 꽃이 피는 봄에 하며 신랑은 일반적으로 해가 뜰 때 신부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장례는 주로 토장(土葬)을 한다. 다위얼족은 풍부한 민간 구두문학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에 유전하는 이야기는 신화와 사회생활 이야기, 그리고 농민혁명 등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야기는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소년과 의사」로서, 봉건사회에 반항하는 영웅 이야기를 매우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노래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쁜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주로 불리워진다.

민간예술은 주로 여성의 섬세한 손으로 만들어지는 자수나 수공예 장식품이 많다. 전통적인 놀이로는 필드하키, 말타기, 활쏘기 등이

있는데, 그 중 필드하키와 아이스하키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권장되고 있는 스포츠이다.

전통종교는 사머니즘이 주류를 이루나 후명에는 라마불교의 영향이 명목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특별한 종교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중국에서 나온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다위얼족 인구는 17세기 중반에 약 4,000명이던 것이 청나라 통치 200년 동안 25,000명으로 증가되었다. 그 후 러시아의 침입과 인구의 분산 이주로 인해 자치구가 성립된 1947년에 자치구 내의 다위얼족은 16,281명이었다. 그 후 1990년 제4차 인구에 근거하면 총인구수는 71,000명에 이르며 자치구 총인구수의 0.33%를 차지한다(매년 평균 증가율 3.5%). 인구의 지역 분포를 보면 후명 6.5만명 이상, 호호트시 2,000명 이상, 싱안명(興安盟)에 1,0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시명(錫盟), 바오터우(包頭)시, 저명(哲盟), 츠핑(赤峰)시, 우명(烏盟)이고, 100명 이하는 우하이(烏海)시와 아명(阿盟)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주요 분포지는 후명, 싱안명, 호호트시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위얼어 사용 현황

모리다와의 다위얼족 분포상황을 볼 때 비록 분산해서 살고 있지만 본 민족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5년에 행해진 언어사용 상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한어와의 이중언어 사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은 본 민족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모리다와 자치구의 언어사용 상황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순 한어사용지역: 한족, 만주족, 후이족과 그 밖의 소수민족과 함께 주거하는 지역으로 자치기 인구의 약 88%를 차지한다.

▷ 다위얼어, 한어 이중 사용지역: 다위얼족 가정과 집중해서 사는 촌락에서는 다위얼어를 주로 사용하나 학교 교육과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는 한어를 사용한다.

▷ 어원커어, 다위얼어, 한어 삼중 사용지역: 역사적으로 어원커족과 다위얼족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통혼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중어를 구사한다.

지금까지 행해진 일반언어 조사와 표준언어 사용을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①대부분의 다위얼족은 본 민족어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다. ②다위얼족은 약 80%가 한어 사용이 가능하다. ③약 10%는 오직 본 민족어만을 쓴다(대부분 노인, 어린이와 부녀자). ④어원커족의 60% 이상이 다위얼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중국 내에서 자체의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분포, 교육 그리고 본 민족문자가 없음으로 인해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원커족(鄂溫克族)

중국 내에서 알려진 어원커족에 대한 소개를 보면, 어원커족 자치기를 실행구역으로 갖고 있는 자치민족으로 되어있다. 이 민족의 대부분은 자치기에서 다위얼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소수는 치치하얼시를 중심으로 헤이룽장성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민족은 베이자얼(貝加爾)호 유역에서 발원하여 기원전 2000년, 즉 하(夏), 상(商)나라 때부터 호수 주변지역에 주거했다.

어원커라는 뜻은 “큰 산림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주로 목축에 종사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목축과 수렵을 겸한다. 특히 어얼구나(額爾古納:멍구족의 발원지) 좌기(左旗)에 살고 있는 소수의 어원커족은 아직도 수렵만을 하며 산다. 통구스 북부어 계열의 언어이며 현재 문자는 없지만, 1945년 이전에는 지식있는 사람들이 만주, 한, 명구문을 사용하였다. 아직까지도 목축지대는 몽, 한문을 주로 쓰고, 농업을 하는 곳에는 주로 한문을 사용한다. 어원커족의 언어는 중국 학자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서 현재 연구 논문과 어원커-일본(鄂溫克-日)사전이 나와 있다.

이제 이 민족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어원커족 자치기에 대해 알아보자.

어원커족 자치기 지리 및 자연환경

18세기 초 (1732년) 청나라 때 1,600명의 어원커 장정을 강제 이주시킴으로, 이 곳에 어원커족이 집중해서 살게 되었다. 이 곳은 1958년 8월 1일 자치기로 성립되었다. 실제로 이 곳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하얼빈~하이랄(海拉爾), 베이징~하이랄 열차편이나 비행기

편으로 하이랄에 도착하여 시내에서 이 곳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면, 20~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 이 곳에서 다시 하이랄로 돌아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계속 머무르기를 원할 경우 합당한 허락과 관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머무를 수 있다.

이 곳의 면적은 16,800km²으로 평원, 구릉, 산 등성과 계곡이 교차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 동은 높고 북과 서는 낮은 지세를 가지고 있다. 17개의 강과 계곡이 있으며, 호수와 온천이 무려 600개나 된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 연평균 -2.3℃.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며 봄과 가을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의 변화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다. 연평균 강우량은 약 380mm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곳에 사는 각 민족의 인구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1964년		1982년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18,861		91,313	
어원커족	3,588	19.02	6,455	7.07
한족	4,246	22.5	54,611	59.8
멍구족	6,473	34.3	16,124	17.66
다위얼족	4,304	23.01	11,710	12.82
만족	51	0.27	1,144	1.25
후이족	105	0.56	1,007	1.1
어룬춘족	12	0.06	36	0.04
기타	46	0.24	226	0.25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민족과 언어를 연구하는 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곳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어원커·브리야트 멍구족, 어룬춘족, 심지어 조선족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간주린 어원커족 이야기

헤이룽장 상류에서 발원했던 이들의 조상들의 일부가 강 중류로 이주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역사상에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였다. 시대

민족명: 어원커(Evenki, Owenke, Khamnigan)

분 포: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인 구: 26,315명(1990년)

도시인구: 미확인

문맹퇴치율: 81%(1985년)

국의 거주지역 및 인구: 시베리아(28,000명/1979),
몽골국(2,000명/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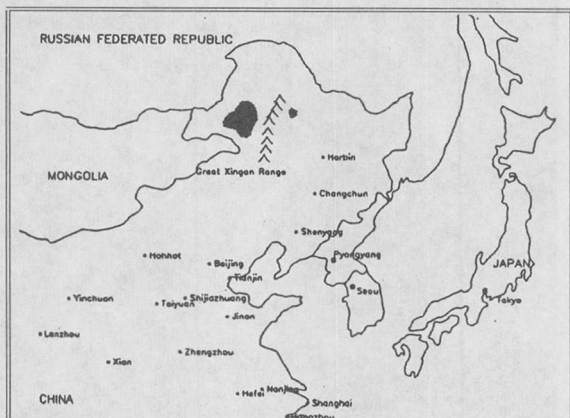
언 어: 만주 퉁구스계 퉁구스족,

솔론(solon)과 21방언, 문자 없음

종 교: 샤머니즘, 라마불교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축산, 수렵, 농업 등으로 살아감.



와 지역에 따라 이 민족을 ‘썬(索倫)’, ‘따오구쓰(道古斯)’, ‘야쿠타(雅庫特)’ 3족속의 이름으로 불리웠으나 그들의 언어와 풍습은 거의 상통한다. 17세기 중엽 러시아가 침입하자 청나라는 이들을 난강 유역에 이주시켰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1732년에 1,600명의 어원커 군인들이 청나라에 의해 후명의 현 자치기에 주둔시킴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혁명사에 보면 소수민족의 투쟁 역사 중에 반제국 및 항일전쟁에서 이 민족이 행한 전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혼인관계는 일부일처제이며 씨족 내 혼인을 금하나 현재 지역의 특성상 다위일, 어륀춘, 명구족과의 통혼이 비교적 많다. 이전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짝을 정하는 정혼의 풍습이 있었고, 현재도 조혼(早婚)이 매우 보편적이다. 6, 7세 되는 어린 나이에 목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축의 습성을 잘 알고 말 타기, 순록 기르기, 방목 기술 등에 능하다.

또한 근면, 정직, 성실하며 매우 용감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접대를 좋아하며, 사냥할 때 동행하여 사슴의 가슴살과 우유로 손님을 접대한다. 예절을 바르게 지키며 장유(長幼)의 질서가 확실하다. 특히 담배나 술을 권할 때와 말에서 타고 내릴 때 예의에 주의해야 한다. 예술적인 면은 매우 실제적인 생활용품에 많이 나타나 있으며, 여성들의 섬세한 손으로 만든 수공예와 수예품들이 있고, 여성들

을 위한 장식용품들이 있다. 남녀 모두 춤과 노래를 잘하고, 그 속에서 삼림(森林)생활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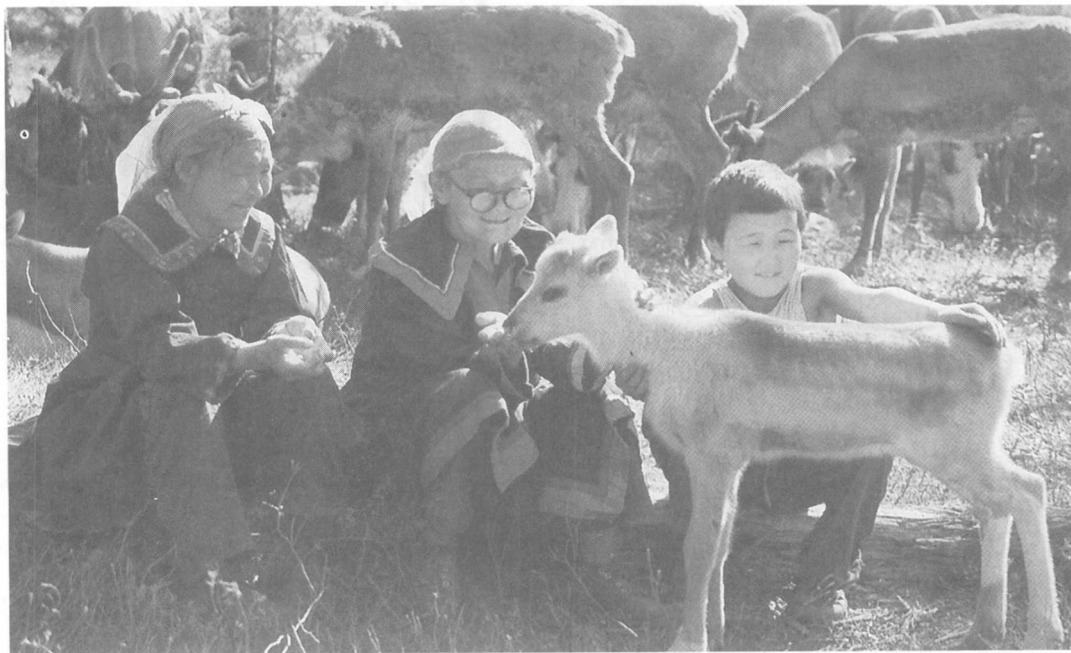
과거에는 이들이 유목을 하거나 수렵을 하면서 텐트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유산과 습관들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대부분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의상이나 춤과 노래 등을 통해 그들의 전통과 민속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정부의 지도 아래 개선된 축산과 농업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공업도 자치기 내에서 권장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민족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반면, 그들의 주관심사가 경제인 것에 있기에 약간의 문화충격을 받는다.

전통종교는 다신을 믿는 샤머니즘과 라마불교의 영향이 있으나 그들의 종교심은 매우 내재적이고 명목적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종교행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동방정교가 이 민족에게 전해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약 100명의 신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동방정교 신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앞에서 어원커족의 인구이동 역사를 살펴보고 왔듯이, 인구의 주요 분포는 후명의 자치기에



어원커족 사람들은 순록 기르기에 능하다.

집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49년 통계에 의하면 자치구 내에 5,118명이던 것이 1990년 인구조사에 의하여 자치구 내에 23,367명(총인구의 0.11%)이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 중국의 어원커 인구의 88.8%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원커족의 절대다수인 97.91%가 후명에 거주하고 있다.

어원커어 사용 현황

어원커어는 크게 3대 방언으로 나뉜다. 첫째는 휘방언(輝方言, 역사상 쉼룬어-索倫語)으로 약 1.1만 명이 사용한다(1982년 인구 기준). 둘째는 진방언(陳方言, 역사상 통구스어-通古斯語)으로 약 1,770명이 사용하고, 셋째는 오방언(敖方言, 역사상 야쿠티어-雅庫特語)으로 255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원커족의 언어 사용 상황을 보면 5대 언어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 ① 어원커어 지역
- ② 다중언어 지역
- ③ 명구어 지역
- ④ 다위얼어 지역
- ⑤ 한어 지역이다.



어원커족

7,251명의 어원커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 ① 89.5%가 본 민족어를 이해한다.
- ② 52%가 한어를 약간 이해하고 그 중 39%가 한어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 ③ 75%가 몽고어, 32.6%가 다위얼어를 이해하고 약 80%가 어룬춘어를 약간 이해한다고 되어있다. 어원커족은 자기 문자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몽고문과 한문으로 이중어 교육을 해왔다. 이 곳의 민족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중어를 사용하는 수업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상황에서 자라난 어원커족은 보통 2~3종의 언어를 쉽게 구사한다.

어룬춘족(鄂倫春族)

중국내에서 알려진 어룬춘족의 소개를 보면 어룬춘 자치기를 실행구역으로 갖고 있는 자치민족으로, 주 분포는 후멍과 자치기에 주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족의 발원은 헤이룽장 유역이다.

어룬춘이란 뜻은 통상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사슴을 기르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같은 해석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어룬춘족은 수렵과 강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주된 생산활동이었는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룬춘족은 동북 네이멍구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가장 공개되지 않은 민족인 동시에,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 민족 고유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원시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샤머니즘이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민족이다. 어룬춘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외부에 알려진 지역은 역시 어룬춘족 자치기이다.

어룬춘족 자치기

1951년 10월 1일에 성립되었고,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멍에 속해 있다. 모리다와 다위얼 자치기와 어원커 자치기와 일직선을 긋고 위로 삼각형을 만들면 꼭지점이 위치하는 곳에 어룬춘 자치기가 있다. 치치하얼이나 하이랄에서 직접 가는 열차 노선은 없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만 그 곳에 도착할 수 있다. 물론 겨울

에는 여행할 수 없고 여름에도 적어도 1주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아주 민감한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답사가 가능하다.

지리와 자연환경

전체 자치기의 면적은 48,970km²이며 후멍 총 면적의 19.54%를 차지한다. 이것은 후멍 안에 있는 자치기 중에 최대의 면적이라 할 수 있다. 지형은 북부가 높고 동남쪽이 낮으며, 대부분 기복이 심한 낮은 산형을 이루고 있다. 평균 해발 200~300m이다. 7개의 강이 흐르고 그 중에 간허(甘河)와 뤼민허가 가장 크며, 년강의 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곳 자치기의 경작 가능한 면적은 7.1%이다. 기후는 1년 사계절의 기온차가 크며 겨울이 9월부터 시작된다. 연평균 기온은 -2~-3℃이고 연 강수량은 500mm이다.

현재 자치기 내의 5개 진(鎮)과 1개 수렵지구에 열차노선이 있다. 철도노선의 총 연장은 324km이며 목재 운송을 위한 산림전용 철도는 약 600km가 된다. 현재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수단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기 내에 어룬춘족 외에 많은 민족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 최근의 자치기의 인구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구분	1982년		1986년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273,897		288,162	
어원커족	1,478	0.54	1,672	0.58
한 족	251,495	91.82	267,287	92.75
멍 구 족	6,938	2.53	6,105	2.12
다위얼족	5,897	2.15	5,616	1.95
만 족	4,520	1.65	3,668	1.27
후 이 족	1,481	0.54	1,240	0.43
어룬춘족	2,088	0.76	2,097	0.73

민족명: 어룬춘(Orogen, Orochon, Olunchun, Elunchen, Ulunchen)

본 포: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성

인 구: 6,965명(1990년 현재)

도시인구: 미확인

문맹퇴치율: 84%(1985년)

국외거주: 미확인

언 어: 만주 통구스어계, 통구스족어, 방언 미확인, 문자 없음.

종 교: 샤머니즘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수렵, 제재업, 농업 등으로 살아감



간주린 어룬춘족 이야기

기록에 의하면 남북조 시대에 헤이룽장 유역의 스웨이(室韋)인이 어룬춘족의 선조라는 설이 유력하다. 어룬춘이라는 이름은 청조 초에 문헌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헤이룽장 이북에 주거하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이후 러시아의 헤이룽장 유역 침공으로 인해 밀려나 싱안링(興安嶺) 일대에 떠돌아 다니다가, 그 후 일본군의 동북삼성 침공시 세균실험의 대상이 되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다.

1945년을 전후로 하여 인구가 1,000명까지 급감소하며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4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어룬춘족의 수렵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이나 사양업으로 정착시키려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정부주도의 개발과 다른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 어룬춘족이 누려왔던 원시적인 생태계는 날로 파괴되고, 많은 실망감에 빠져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술이나 오락으로만 보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어룬춘족은 부계 씨족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선조신을 모시고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수렵에 능하며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다. 혼인은 일부일처제이며 씨족 외 혼인이 엄격히 지켜진다. 노인을 매우 공경하며 사냥한 물건을 나눔에 있어서

도 좋은 부분을 약하고 병든 집에 먼저 나누어 주는 미덕을 지키고 있으며 서로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음식은 주로 육식에서 채식도 함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많은 생활 거주 환경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들의 구전문학은 매우 풍부하며 신화, 전설, 민간고사나 민요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의 춤과 노래는 수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어룬춘족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장례는 풍장(風葬)인데, 남자가 죽으면 시체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 관에 넣어 나무에 올려놓는 풍습이다. 그 밖에 토장과 화장도 행해진다.

이들의 종교는 주로 샤머니즘인데, 자연숭배, 조상숭배 등이 결합된 일종의 원시종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잡은 사냥감을 앞에 놓고 경건한 제사의 예의를 지키며 산신(山神)에게 감사하고 죽은 짐승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맹수에 대해서는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 호랑이는 '바오루칸(寶如坎- '신'이라는 뜻)'이라 부르고 곰은 '아마하(啊瑪哈- '할아버지'라는 뜻)'라고 존중해서 부른다.

지금까지 완전한 미전도종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인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대 위기를 만났던 어룬춘족의 인구는 1947년 905명에서 1990년에는

3,102명이 되었다. 이것은 자치구 총인구의 0.01%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지역 분포별로 보면 후명(呼盟)이 최고로 2,744명이며 200명 이하가 상안명(興安盟)이고 100명 이하가 츠평(赤峰)시, 호호트시, 바오터우시, 저명(哲盟), 시명(錫盟)이다.

어문준어 사용 현황

어문준어는 남부방언과 북부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부방언의 주요분포지는 헤이룽장성의 어문준족 주거지이고, 북부방언은 네이멍구의 후명의 어문준족 주거지이다. 양쪽 방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서로 능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원커어와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유사한 단어가 많다. 언어사용 상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문준족 35세 이상의 중노년층은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본 민족어를 사용하고, 성(城)이나 진(鎮)에 사는 청소년들은 주로 한어를 사용하며, 때에 따라 본 민족어를 쓴다. 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본 민족어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 한어를 사용한다. 다위얼족과 어원커족과는 달리 수렵지대에 사는 어문준족은 기본적으로 명구어나 다위얼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곳에 사는 명구족과 다위얼족은 어문준어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가 소수민족어로는 통하지 못하는 특이한 현상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어문준족은 자기 민족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를 시작하자 한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모든 공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한어를 사용하게 된다.

1956년 이후 어문준족 성년을 위한 문맹퇴치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중노년 가운데에는 아직 문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곳의 방송에서 명구어나 한어를 사용하면 시청자들은 좋아하지 않고, 어문준어 방송이나 노래가 나오면 듣기 좋아한다. 그러나 어문준어 방송은 전 방송시간의 4%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부분의 방송 내용은 한어를 사용하여 전달된다.

접근방식의 선별화

지금까지 네이멍구자치구에 주로 사는 주체민족(한족은 제외)을 소개했다. 사역의 목적상 명구족, 다위얼족, 어원커족, 어문준족은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밖에 한족, 후이족 등은 주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사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주족과 허저(赫哲)족은 민족과 언어를 관련하여 볼 때 기타 소수민족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본 민족어를 거의 잃어버렸고 현재 대부분 한화(漢化)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족 사역은 지금까지 많은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족단위별로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22,000명이 살고 있는 네이멍구자치구 내의 조선족들은 조선족 중에서도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선족 사역과 차별화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사역목적과 접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네이멍구자치구의 일반적인 현황과 교회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어문준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들

- ① 호호트(약 120만)
- ② 바오터우(약 160만)
- ③ 하이랄(약 30만)
- ④ 지닝(약 10만)
- ⑤ 닝허(약 10만)

현재 이 도시들만이 외국인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장기 거주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도시들이다.

대학이 있는 도시

- ① 호호트(종합대 2, 단과대 6)
- ② 바오터우(단과대 3)
- ③ 하이랄(종합대 1, 단과대 2)
- ④ 지닝(단과대 1)
- ⑤ 닝허(단과대 1)

1996년에 네이멍구 대학이 앞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집중지원하게 될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범대학은 각 소수민족 지역에서 온 우수한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때문에 위의 대학들은 사역의 목적상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1996년 네이멍구 종교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삼자교회(8개의 교회)

- ① 호호트시(2개)
- ② 바오터우시(1개)
- ③ 하이랄시(1개)
- ④ 지닝시(1개)
- ⑤ 우하이(1개)
- ⑥ 닝허시(1개)
- ⑦ 평전시(1개)

실제적인 삼자교회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호트시에도 보면 확인된 삼자교회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문서보다는 직접 확인한 숫자가 보다 정확하다.

네이멍구의 신학교 현황

현재 호호트 시내의 신시가지(新城)에 있는 대표적인 삼자교회 내에 2년제 단기 성경학교가 있다. 1987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약 300명의 학생이 졸업하였고, 현재는 46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학비는 1년에 300원(元)이고 학생들은 졸업 후 대개 농촌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신학교는 1997년에 중국에서 14번째의 공식적인 신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가정교회 현황

현재 네이명구의 가정교회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 가정교회들은 호호트와 바오터우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데 현재는 도시 지역에서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서로간의 연결점은 없지만 함께 사역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가정교회 전도자들의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확장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가정교회의 문제점은 지도자의 노령화 현상(대개 60세 이상)과 지도자의 훈련부족, 그리고 성경 및 성경공부 교재의 부족 등이다.

어떻게 접근할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3단계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준비 사역 단계)

- ① 조사 연구사역: 언어학, 민족학, 소수민족 역사 및 정책을 연구할 목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서류증을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리서치 사역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
- ② 성경번역 사역
- ③ 전문개척 사역(지도자 양육)
- ④ 교육복지 사역
- ⑤ 문서 및 방송사역
- ⑥ 민족 입양사역
- ⑦ 중보기도 사역

2단계(간접적 사역 단계)

- ① 가정교회, 삼자교회의 관계를 조성하고 그들의 필요(성경 및 성경교재 보급)를 후원
- ② 공식 신학교 및 가정교회 신학교 후원
- ③ 현지 지도자 훈련 및 제자훈련에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후원

3단계(직접적 사역 단계)

개인 접촉에 의한 복음 전도라 할 수 있다.

- ① 한족: 도시 및 농촌
- ② 네이명구족: 도시 및 학교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를 방문
- ③ 외몽고족(유학생 대상)
- ④ 기타 소수민족(조선족을 포함 창조적 사역의 가능성)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는 이 지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심있는 사람들은 중국어문선교회에 직접 문의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담과 안내를 받기 바란다.

기도제목

- ① 한족교회가 부흥하고 소수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 ② 삼자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 ③ 사역자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 ④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번역의 문이 속히 열리고, 번역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현지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 ⑤ 대학 내의 젊은이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 ⑥ 생활의 어려움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성립 50주년을 맞은 내몽고 자치구

올 해로 '내몽고 자치구'가
성립 50주년이 되어 경축행사를 가졌다.
내몽고 자치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축행사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여 실었다
편집자 주

중국의 첫 소수민족 자치구인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 당국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 각 자치구 민족의 화합과 안정을 모색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省) 중에 하나였으나, 당국의 협조로 외자를 흡수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호호트(呼和浩特市: 중국어 음역은 '후허하오터' 이나 국제적으로 '호호트'로 통용된다)는 면모를 일신해 새롭게 단장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1947년 5월 1일 성립했다.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치열했으나, 마오쩌둥(毛澤東)과 주더(朱德)는 5월 20일 산베이(陝北)에서 자치구 정부 탄생을 위한 축전까지 보내었다.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5월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축하 행사를 특별히 초원의 기후가 가장 좋고,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여름에 거행하기로 했다. 경축행사를 주관하는 한 관리는 "이번 경축행사의 주제는 단결, 문명, 개방, 발전이며, 각 초원에서 민족의 자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네이멍구 자치구 50

주년 발전 성과를 세계 시민에게 선보이려 한다"고 했다.

수도 호호트의 각 지역 단위에 맡겨진 도시 미화작업은 반드시 7월 20일 전에 완성해야 했으므로, 전 시가지는 하룻밤 사이에 온갖 꽃이 만발했고, 주요 지역마다 붉은 등(紅燈)을 걸어 장식했다.

호호트는 몽고어로 '푸른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운이 없게도 봄이 일찍 찾아와 푸른 초원의 아름다움을 뽐냈

던 이 도시가 몇 마지기의 푸른 초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 시민은 푸른 초원을 가리키며 이렇게 반문했다. "이것은 풀이 아니라 보리씨이에요. 어떤 곳은 씨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녹화지와 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변의 양쪽 녹화지역은 모두 보리씨가 풀밭을 덮었다.

개막식에서는 대형 매스게임뿐 아니라, 축제기간 동안 "몽고민족 교류회", "나담축제-네이멍구 자치구 명구족의 전통적 축제-역자주", "초원 축제의 날", 그리고 자치구 18개 중점건설사업의 테이프 커팅식이 펼쳐졌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의 접대비와 장식비, 서비스비 등으로 모두 인민폐 3~5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삼림보호 지구에서 30여 년 간 일해온 한 전문가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곤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겨우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양만 번지르하게 보이려는 처사이다. 많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의 한달 임금이 고작 200원이니 정부는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라고 개탄했다.

이 산림전문가를 비롯하여 네이멍구 자치구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돈이 있어 큰 행사를 치루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정부가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백성들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 정부 측 인사에 따르면,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은 단순히 경축활동에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빌어 네이멍구 자치구를 혁신시켜 더욱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18개 중점목표 중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비행장, 기차역 보수, 고속도로, 건물 등 환경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이런 성대한 행사를 치루면서 중앙 정부에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정부 지원은 이미 소수민족들의 전통적 관례가 되고 있다. 시짱(西藏)이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등도 40주년 행사를 통해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보조금을 받은 전례가 있다.

중앙 정부는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 관영 통신 <신화사(信華社)>는 일찍이 경축행사 준비 기간부터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했고, 「인민일보」는 경축행사 당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찬란한 반세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중앙방송(CCTV)도 뉴스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 행사를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특집방송을 편성하여 이 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 추자화(鄒家華)를 단장으로 구성된 중앙대표단도 호호트에 와서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수행인원으로 중국 중앙 전국인민대표 상무회, 국무원, 전국정협, 인민해방군 관련부서의 지도자들이 따랐다. 홍콩특별행정부 부장

인 량아이스(梁愛詩)도 중앙대표단원의 자격으로 이 행사에 참가했다. 중앙대표단 단장 추자화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친필로 쓴 “경축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이란 제목의 휘장을 증정했다.

경축 개막식장에서 추자화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성립은 우리 나라 민족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신중국이 각 민족자치제를 시행한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나라 민족관계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라며 치하했다. 그의 말대로 네이멍구 자치구에 뒤이어 성립된 광시(廣西), 녕샤(寧夏), 신장, 시짱 등 4곳의 자치구는 모두 네이멍구 자치구 모델을 답습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 몽고와 한족 사이에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장과 티벳에서는 여전히 소수민족과 한족 간에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네이멍구 자치구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네이멍구 자치구 제도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신장과 티벳 자치구의 평온한 발전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 전문가들은 네이멍구 자치구와 신장, 티벳 등 자치구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시 자치구 주석이



경축일 전통복장을 입은 아가씨들.



경축개막식

있던 우란푸(烏蘭夫)는 적극적으로 산베이(陝北)에 있는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쳐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겠다고 했으나, 신장과 티벳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몽고족을 포함한 다위얼족, 어원커족 등 유목민들, 그리고 시내 정착민 등 네이멍구의 소수민족들 모두 자기 민족의 문자, 언어 그리고 고유한 전통 생활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한족과 동화하기를 택했다.”

다위얼족의 학자 타지(塔姬)는 “호호트의 몽고족, 다우르족, 어원커족, 만족 등 소수민족 청년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의 문자와 언어를 모른다.”고 말한다. 신장, 티벳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상황은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하지만 네이멍구의 소수민족 중 해외에 망명 중인 일부 분리주의자들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며 폭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7월 17일 경마장에서 매스게임 예행연습을 마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려 했으나 입장이 허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기념식장에 폭탄을 장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현지 공안당국에 걸려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공안경찰은 폭탄탐지기

를 이용해 현장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축행사 기간 동안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7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경마장에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중앙대표단을 비롯해서 모든 참가자들은 오전 7시 전에 모두 입장했고, 7시 이후에는 경마장으로 가는 길과 경축 행사장의 통행을 모두 차단시켰다. 행사기간 동안 도로와 거리에는 공안당국 경찰과 무장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주요 거리에는 10m마다 경비를 켜고 100m마다 초소가 마련되었다. 중앙대표단이 머무는 숙소 주변의 경비는 더욱 삼엄했다.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장밍(張明)은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경찰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마치 게임치하 같다.”고 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7월 25일 중앙대표단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행사장에는 한 번도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행사는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출처/ 『亞洲週刊』 97. 8. 4일자, 風吹草低萬馬齊賀
번역/ 나현경 · 자원봉사자

重振雄风

남편의 위풍을 떨치다가

几位怕老婆出名的丈夫聚在一起，
商议一个不怕老婆的方法，
以振男子汉的雄风。

공처가로 이름난 남편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사나이 대장부의 용기로 마누라에게
떨떨매지 않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忽然，有人前来报告…。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급히 알려왔다.

各位的夫人已约好了，
马上打上门来！

당신네 부인들이
모두 와서, 문을
열려고 해요!



众丈夫闻言，惊散。

이 소식을 들은 남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흩어졌다.

唯有一人坐定不动，
原来早已吓死。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미 죽어버렸다.



종교다원주의 세계관과 중국선교

김태연

1983년 12월 아시아신학협회(The Asian Theological Association)는 대만에서 ‘조상숭배의 관행들’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에 이 협회는 「조상숭배의 관행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Christian Alternative to Ancestor Practices)」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Ro, 1985). 이 책에서 각 주제들에 대해 검토하는 동안, 조상숭배(Ancestor Worship)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개념이 그 기초가 됨을 재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국인에게 남아 있는 민속종교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인간의 영혼에 대해 중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사후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생각은, 중국선교와 종교다원주의를 연구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인의 종교적인 행동은 영혼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특히, ‘두 영혼 사상’은 민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음양(陰陽)의 이중성에서 유래되었다. 중국 서민들은 사람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혼들에 의해 그 자체에서 나오는 생기의 덕에 의해 살아간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영혼에 대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한 영혼이 선조의 명판에 기록되고, 하나는 무덤속에서 서성거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다른 믿음은 영혼이 저승세계에서 삶을 지속하다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과응보, 환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러한 사상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불교가 중국에 소개되어진 이래 중국 무속신앙속으로 모두 흡수되었다.

중국에서 조상숭배에 대한 연중행사를 보면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모두 그 본질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상제례는 중국 전역에서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지켜지고 있다. 저명한 조상을 가진 집에서는 특히 엄격히 지켜지며, 황제의 조상은 그 정체적 중요성 때문에 국가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황실은 종묘를 가지며 유력가족은 보다 작은 가묘를 만들고 서민은 집안의 주실에다 제단을 설치한다. 가족이 공물을 바치고 기원한 조상신은 그 가족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 관계한다고 중국인들은 믿는다.

이러한 조상숭배는 인간이 곧 소우주라고 하는 우주적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들 조상의 무덤에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다. 특히 세 번째 영혼은 조상의 명판에 흡수되어 거주한다. 조상의 명판은 타이완 사람들의 조상제사에서 핵심을 이루는 신앙이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이 세상 안에 있으며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죽은 영혼들의 불사로 믿는다. 만약 후손들이 그 필요들을 공유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은 화를 내며 후손에게 불행을 보내는 등 후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승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은 효성을 다하여 조상제사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실상 중국인 대부분은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가 혼합된 종교를 믿고 있다. 그들은 세 가지 종교를 분리시켜 서로 투쟁하게 하지 않고 혼합한 종교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각각의 전통 종교들을 '같은 목표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로 여긴다.

이러한 종교적 관습에 중국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를 세 가지 실제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면 첫째, 영적인 힘을 통제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둘째, 죽은 영혼을 두려워하고 셋째, 이러한 힘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모든 악한 영혼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삶과 죽음의 연관성 사이에서 중국의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들은 그들 자손의 호의에 의존함으로써 큰 위로를 받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죽은 조상은 배고픈 유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와 매우 다르다. 죽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은 더이상 인간의 호의와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의미와 힘이 되어준다. 중국의 종교 안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성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바쳐진 제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죽은 영혼이 제물을 통해 물질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인 배려일 뿐이다.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가족 구성원의 삶에 선악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애정을 가지고 다루어야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조상의 영혼을 무시하거나 제사를 정지한다면 그들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갈 2:20) 자세를 가져야만이 종교다원주의 세계관이 당연시되는 중국에서도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들을 신격화시켜 숭배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인간을 죄에서 해방케 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판함으로써, 옛 관습으로부터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 불교, 도교, 샤머니즘은 깊게 뿌리내려 있는 사상이므로 선교사가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들추어 진리를 변론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느 종족에게서나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은 곳곳에 다 있다. 중국 종교에서 구속적 유비(Redemptive analogy) 개념을 발견하여 그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 앞으로 중국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현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통해 언젠가는 중국인들도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눅 4:33~36).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게 된 그들은 더이상 조상신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기행

여인천하에 가다

석은혜

멀고 험한 여행길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누구후(瀘沽湖)'를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호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말한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던 나는, 지난해 12월 초 이 아름다운 호수를 찾아 여장을 챙겨 긴(?)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이야말로 아마 내 평생에 걸쳐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여행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찾아가기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좀 다른 또 하나의 '세계', 바로 '여인천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윈난성 쿤밍(昆明)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그와 함께 이 호수를 찾아 떠났다. 닝량(寧謐)을 거쳐야 누구후를 갈 수 있기에 우리는 쿤밍에서 먼저

닝량으로 가기 위해 '침대버스'를 탔다. 중국에서 여행할 때 '침대기차(臥鋪車)'는 많이 타 보았지만 침대버스는 처음 타보는 것으로 또하나의 색다른 경험이었다. 의자를 겸용한 침대는 버스안에 3줄로, 2층으로 놓여 있었다. 좁은 통로에는 많은 짐들이 놓여있어서 그 짐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꽤 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게다가 여기 저기에서 시커멓게 생긴 아저씨들이 뿌연 연기를 내 뿜으면서 줄담배를 피워댔다.

아래층 맨 뒷자리가 친구와 나의 자리였다. 아무리 사계절이 봄과 같은 중국의 남방이라지만 밤이 되자 추워지기 시작했고, 체감온도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졌다. 차 안에 준비되어 있는 얇은 이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그나

마 덮지 않고서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불도 없는 캄캄한 차 속에서 추위에 떨며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남녀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차에 올라와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비춰가며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설명이나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손전등으로 얼굴을 마구 비춰대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려니 하고 우리는 여권을 보여주었다. 영어로 쓰여진 여권을 읽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난감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다



시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는 한국사람입니다. 누구 후로 여행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학생증을 돌려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들은 마약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고약한 냄새, 추위와 싸우면서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꼬박 이틀 만에 닝랑현에 도착했다. 누구후로 가는 차는 이미 다 떠나버리고 없어, 부득이 닝랑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숙박비 20원(한화 2,000원)을 주고 중국인들이 자는 숙소에서 또 추위로 잠을 설치면서, 겨울에는 남방여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던 그 누구가를 원망했다. 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하나님 작품 누구후

아침 7시에 출발한다는 차는 사람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9시가 되어서야 출발을 했다. 아무리 ‘만만디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걸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한단 말인가? 이게 다 혼련이려니 생각하면서 혼자 끄끙거리면서 참는 수밖에. ‘내가 왜 돈을 써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구후로 가는 길은 해발 2천미터(m) 산길의 비포장 도로. 우리나라 마을버스와 같은 크기의

미니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더 가야 했다. 차는 몹시 덜컹거리려 엉덩이와 허리가 아파왔다. 이런 차를 타는 것에 이미 익숙할 법한 한 중국인 아저씨가 건디다 못해 구토를 했다. 그 아저씨는 육육거리더니 하필이면 내 옆에서 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오물이 내 바지와 신발에 다 떨어진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중국 아저씨가 정말 알미워지면서, 순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짐을 줄이기 위해 이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짐은 큰명 친구 집에 맡겨 놓았었다. 여벌의 바지를 준비해오지 않아 난감했다. 마을도 작고 낙후된 누구후에서는 옷을 파는 상점도 없었다. 결국 그 오물 묻은 바지를 대충 정리(?)해서 여행기간 동안인 1주일 내내 입고 다녀야 했다. 정말 평생에 딱 한 번으로 족한 여행이었다.

누구후 호수면의 해발고도는 2,685m로 백두산 천지보다 위에 있는 셈인데, 인공이 아닌 천연호수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저녁녘 낙조의 붉은 햇살에 반사되는 호수를 바라보노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황홀경 그 자체이다. 그동안 힘들었던 여행길에 위로가 되어 주었다. 배를 타고 호수를 둘러볼 수도 있었지만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우리는 배를 타지는 않았다.

여인천하의 모쉴족

누구후 호수 주변에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모쉴족(摩梭族)이 살고 있



었는데, 그 곳에서 2시간 거리인 용녕(永寧)에도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모쨌족이 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족속을 나씨족에 포함시켜 버렸기에 55개 소수민족 중에는 모쨌족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 민족은 문자는 없지만 언어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같은 족속끼리는 모쨌어로 대화를 나눈다. 이곳은 지구상 유일한 모계사회의 '여인천하'의 세상이다. 모든 것이 여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아이가 태어나도 어머니 성을 따르고, 가정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여성이 가장이 된다. 이 사회에서 남자는 무력한 존재이고, '아버지'라는 단어와 그 개념이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곳에는 결혼제도가 없다. '아쭈혼(阿洲婚)'이라는 자유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택할 수 없도록 그들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 먼저 찾아간 남자가 대문 밖에 자신의 모자를 걸어 놓는 것으로 표시를 삼는다. 밤이 되면 남자가 여자를 찾아갔다가 동트기 무섭게 자기 집으로 되돌아 간다. 자기 집 역시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가장이며 외삼촌이 있는 집에서는 외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상대편 여자의 요구에 따라 남자가 낮에 찾아가서 힘든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 아쭈혼 제도는 예쁘고 인기있는 여자는 많은 남자와 자유스럽게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자에게 유

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부터 아쭈혼을 치를 수 있는 것일까? 이 민족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그들의



전통복장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고,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여자 아이들은 여인 대접을 받게 되고, 자기방을 갖게 되면서 이 아쭈혼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멀고 먼 이색지역에서 그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모쨌족의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늦게 찾아간 그 집에서 집주인 여자를 찾아온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굉장히 포착하기 힘든 기회를 만난 것이다. 그 남자는 외국인인 우리를 보자 좀 쑥스러워했지만 손수 차와 간식(해바라기

씨)을 대접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 여자주인에게서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이 아저씨의 아이란다. 만약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하면 묵시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되고 찾아오는 남자가 서서히 한사람으로 고정화 되다가 중년이 넘어서면 완전히 고정화 돼버린다. 그러나 설사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륜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는단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짓궂은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그 아저씨는 수줍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잘 이야기해주었다.

농업이 주업인 그들은 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식 원룸시스템인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 한쪽에 시커먼 석쇠가 놓여있었다. 여기에다가 장작을 지피 밥도 하고, 차 마실 물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다. 방은 땅보다 약간 높게 하여 칸막이를 설치해서 분리해 놓았다. 집안은 그을음으로 인해 온통 새까맣게 되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 틈에 저녁을 다 지어 걸레인지 행주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형식으로 그릇을 쓱쓱 닦아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 주었다. '돌아가서 꼭 회충약을 먹어야지.'

집안 한 모퉁이에는 이들이 믿고 있는 라마불교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모쨌족의 대부분이 라마불교를 믿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원에 가서 참배를 한단다. 만약 아들이 둘이라면(소수민족은 아

이를 두 명 낳을 수 있음), 그 중 하나는 라마불승이 되게 한단다. 라마불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시짱(西藏, 티벳)자치구로 유학을 가기도 한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 좁은 마을 곳곳에다 여관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여행철이 아니라서 쓸데없는 여관에서 여전히 추위에 떨면서 잠을 설치다, 다음날 아침 다시 그들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의 강권에 못이겨 모쪼록 전통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사진 찍을 기회가 많지 않을 그들을 위해서도 사진을 몇 장 찍어 주었다. 그러나 누구후 호수 옆에서 그 아저씨와 아줌마가 함께 서있는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며 극구 사양하였다. 아직까지 그들 문화권에서는 낮에 남녀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단다.

누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죽과 빵으로 아침을 먹고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은 약간 복잡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듯한 부담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삼아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그런 삶을 권장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 문화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모쪼록이야말로 미

전도종족으로 한 명의 크리스천도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족속보다는 더 많은 연구와 거기에 따른 선교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며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아마 ‘하나님 어머니’로 토착화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그들의 ‘아쭈혼’ 자유결혼 풍습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간음하지 말라’는 제칠 계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이런 자유결혼 풍습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의 그런 삶의 방식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허용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크리스천 문화와 모쪼족의 문화의 대립을 어떻게 접목, 토착화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한단 말인가? 아직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누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민족은 영원히 버림받은 족속인가?

복잡한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리장(麗江)으로 향했다. 미니 버스에 앉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가렵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만 혼자 가려워하고 있었다. 친구말에 의하면 버스 통로에 놓여있던 벧짚에서 나온 벌레가 바지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가려울 거라고 했다. 친구도 예전에 그 벌레에게 물려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 벌레

는 너무 작아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단다. 결국 그 벌레의 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려움으로 일주일간을 고생해야 했다. 지금까지 벌레 물린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나....

파리(大理)를 거쳐 쿤밍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올 때도 ‘침대버스’를 타고 왔는데, 갈 때 탔던 버스보다는 좀 깨끗했지만 그 길도 여전히 순탄하지 않았다. 새벽에 쿤밍에 도착해서 짐을 챙겨 하차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침대 밑에 놓아 두었던 친구의 신발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혹시하고 찾고 또 찾았다. 사람들은 다 하차하고 우리 둘만 남아 계속해서 신발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 때의 당혹감이란... 한국 운동화가 그들 눈에 색달라 보여서였을까?

중간에 휴게실에서 하차해 화장실을 다녀온 친구는 ‘설마 누가 신발을?’ 하는 마음에 신발을 챙기지 않고 그냥 침대 밑으로 밀어놓았단다. 너무 챙기다보면 궁상스럽게 느껴져 매번 당(?)하면서 이런 것조차 ‘설마’ 하다가 또 여지없이 당하는 경험을 반복해야 하는 중국에서 삶. 언제쯤이면 이런 일들이 끝이 날 것인가? 결국 친구는 신발을 찾지 못하고 쓸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맨발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밤마다 추위와 싸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이 특별한(?) 여행 덕분에 중국의 진짜 얼굴의 한 단면을 보게 되었고, 중국은 내 가슴 안으로 성큼 다가왔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最大的财富

Zuì dà de cái fù

최대의 재산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힌 이 집사는 어느날, 은행에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녀는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李执事：金太太，早上好。你又来存钱啦。

Lǐ zhíshì: Jīn tàitai, zǎo shàng hǎo. nǐ yòu lái cúnqián la.

이집사: 김씨 아주마, 안녕하세요? 또 저금하러 왔네요.

金太太：是啊，每天赚钱积蓄是我人生最大的乐趣呢。

Jīntàitai: Shì'a, měitiān zhuànqián, jīxù shì wǒ rénshēng zuìdà de lèqù ne.

김씨 부인: 그럼요. 매일 돈벌어서 저축하는 게 제 삶의 최고의 낙이지요.

李：我以前也是不分早晚拼命赚钱，结果病倒了。

Lǐ: Wǒ yǐqián yě shì bù fēn zǎowǎn pīnmìng zhuànqián, jiéguǒ bìng dǎo le.

이: 저도 이전에는 밤낮없이 목숨걸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몸이 늙게 됐어요.

那时我认识了上帝。

Nà shí wǒ rènshì le Shàngdì.

그 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信耶稣以后我才知道，在人生中有些事比赚钱更重要。

Xìn Yēsū yǐhòu wǒ cái zhīdao, zài rénshēng zhōng yǒu xiē shì bǐ zhuànqián gèng zhòngyào.

예수를 믿고나서 비로소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金：不管怎样，我还是相信，有钱最可靠。

Jīn: Bùguǎn zěnyàng, wǒ hái shì xiāngxìn, Yǒu qián zuì kě kào.

김: 어쨌든 나는 돈 있는게 무엇보다 든든하다고 믿어요.

李：只要你信耶稣，便会发现原来人生最大的财富就是神。

Lǐ: Zhǐ yào nǐ xìn yēsū, biàn huì fāxiàn yuánlái rénshēng zuì dà de cáifù jiùshì shén.

이: 예수님만 믿게되면, 아주머니께서는 비로소 인생 최대의 재산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财富(cái fù): 재산

存钱(cún qián): 적금하다. 돈을 모으다

积蓄(jī xù): 저축하다, 저축한 돈

拼命(pīn mìng): 온 힘을 다하다, 필사적으로 하다

可靠(kě kào):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다

早上好(zǎo shàng hǎo): 아침인사

赚钱(zhuàn qián): 돈을 벌다, 이문을 남기다

乐趣(lè qù): 낙, 보람, 재미거리

病倒(bìng dǎo): 병들어 눕다, 병상에 쓰러지다

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以马内利来临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 104장)

以 马 内 利 恳 求 一 降 临 救 赎 解 放 以
Yǐ mǎ nèi lì kěn qiú jiàng lín jiù shú jiě fàng Yǐ
이 마 네이 리 컨 치우 장 린 지우 슈 지에 팡 이

色 一 列 民 沦 落 异 邦, 寂 寞 一 伤 心
sè liè mín lún luò yì bang jì mò shāng xīn
써 리에 민 룬 루오 이 뺱 지 모 상 신

引 颈 渴 望 神 子 一 降 临。 欢 欣! 欢 欣! 以
Yǐn jǐng kě wàng shén zǐ jiàng lín. huān xīn huān xīn Yǐ
인 징 커 왕 셴 즈 장 린 환 신 환 신 이

色 一 列 民 以 马 内 利 定 要 一 降 临! 阿 们
sè liè mín yǐ mǎ nèi lì dìng yào jiàng lín! ā mēn
써 리에 민 이 마 네이 리 땡 야오 장 린! 아 멘

우리말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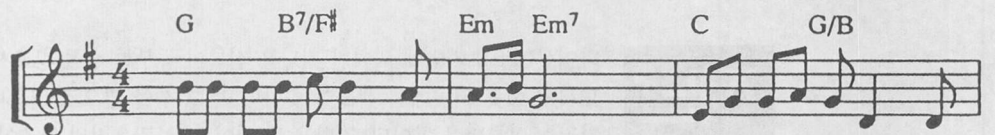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중국어 복음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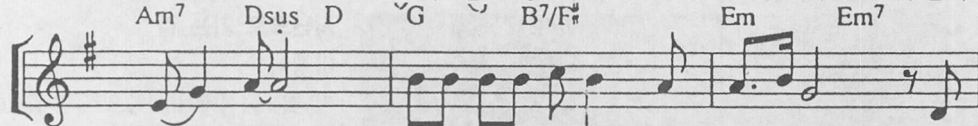
因祢聖名我們敬拜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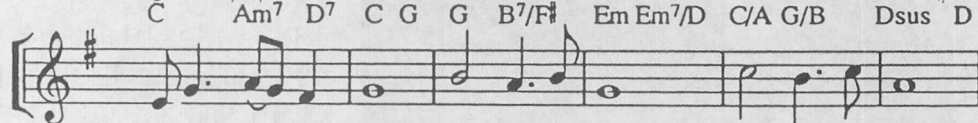
Chris A. Bo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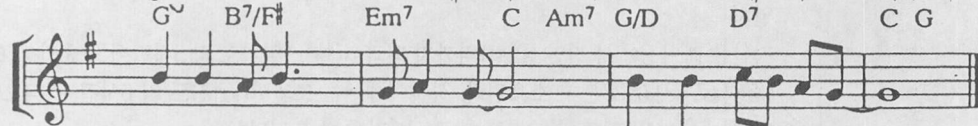
耶 穌 因 祢 聖 名 我 們 敬 拜, 跪 下 在 祢 面 前 來
Yēsū yīn nǐ shèng míng wǒmen jìng bài guì xià zài nǐ miàn qián lái
예 수 인 니 성 명 위 면 정 빠이 구이샤자이니미엔치엔라이



敬 拜, 耶 穌 因 祢 聖 名 我 們 敬 拜, 也
jìng bài Yēsū yīn nǐ shèng míng wǒmen jìng bài yě
정 빠이 예 수 인 니 성 명 위 면 정 빠이 예



承 認 祢 - 是 主. 耶 穌 是 主! 耶 穌 是 主!
chéng rén nǐ shì zhǔ yē sū shì zhǔ! yē sū shì zhǔ!
청 런 니 - 스 주 예 수 스 주! 예 수 스 주!



懇 求 聖 靈 指 教 我, 耶 穌 基 督 是 主!
Kěn qiú shèng líng zhǐ jiào wǒ yē sū jī dū shì zhǔ
컨 치우 성 링 즈 자오 위 예 수 지 두 스 주

우리말 가사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난(濟南) · 다롄(大連) · 칭다오(靑島)

유재승

지난

타이산(泰山) 기슭에 위치한 지난은 신록이 풍부한 샘물의 도시이다.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샘물 옆으로 버드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지난은 또 베이징(北京)요리의 원조이며, 산둥(山東)요리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지난의 대명호

지난으로 가는 길

비행기

지난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7km 쯤 떨어진 곳에 장쑤(張莊)국제공항이 있다. 베이징에서 지난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주 6편의 항공편이 있고, 상하이에서는 주 4편으로 난징(南京)을 경유하여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항공편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열차

지난은 베이징에서 지난 동(東)역까지 터콰이(特快)열차로 약 5시간이 소요되고, 즈콰이(直快)로 7시간 38분이 소요된다. 상하이에서는 즈콰이(直快)로 약 6시간, 칭다오(靑島)에서는 뤼여우 터콰이(旅游特快)로 5시간이 소요된다.

시내로 가는 교통

트롤리버스를 포함하여 약 30개 노선의 버스편이 있다. 택시는 역 앞의 동쪽에 있는 공영추쭈(公營出租)역 앞에서 이용한다.

여행계획

지난은 북쪽으로 황허(黃河)가 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의 명산으로 꼽히는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타이산(泰山)을 끼고 있으며, 또한 시내에 천포산을 안고 있다. 현재 공업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는 지난은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기도 한 곳이다. 집집마다 “샘물”, 대문마다 “버드나무”라고 기록할 만큼 그대로의 경관을 지금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천포산공

원을 돌아본 뒤 대명호(大明湖)나 표돌천, 오룡담, 지난성 박물관, 흑호천(黑虎泉) 등이 시내의 중심인 구성내와 그 주변에 있으므로 하루 동안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서북쪽에 있는 황허는 버스나 택시로 갈 수 있다.

관광 명소

대명호공원(大明湖公園)

지난시 구성 북쪽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명호공원은 진주천, 부용천, 왕부지 등 시내의 많은 샘물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형성되었다. 호반에는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같은 시인이 술잔을 나누며 시를 읊었다고 하는 역하정과 북극각이 있고, 구국정과 창랑정 등이 만들어져 있다. 보트를 타고 돌면서 구경할 수 있다.



산동 민간 화초

빠오투추엔공원(杓突泉公園)

지난에서 가장 유명한 샘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녹수라고 이름하여 옛날부터 72천 중 으뜸이고 천하제일의 샘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송나라 때 세워진 녹원당의 남쪽에 있는 것은 지금도 매초 1600ℓ의 샘물이 솟아난다. 표돌천을 중심으로 동전의 뜰과 가라앉음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 수옥천과 그외의 마포천 등 16개의 샘과, 명청(明清) 때의 고건축 회당 등이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원내에는 북송 말기의 여류시인 '리칭자오(李清照)'의 기념당도 있다.

산동성박물관(山東省博物館)

5천년 황허 문명의 터전인 산동성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박물관. 풍부한 청동기와 5천년 전의 석기, 특색있는 발이 달린 도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하얀 벽의 듄직한 궁전풍의 건물이 녹음 속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황허(黃河)

시내 중심에서 차로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황토색 물 빛깔의 황허가 흐르고 있다. 강둑 사이의 폭은 약 500m 전후이고 아주 넓은 곳은 1km가량이나 된다. 전체 길이 2.4km가 되는 황허대교가 1982년에 완공되어 강줄기에 걸쳐있고 다른 쪽에 부교도 설치되어 있다. 텐진이나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이 부교로 건너가는데, 그 때 차창 밖으로 보는 황허가 아주 일품이다.

지난시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 화	예 배 시 간
경사로(經四路)교회	濟南市 經四路 425號	0531-7936327	주일 9시, 19시
후재문(后宰門)교회	濟南市 后宰門街 105號	0531-6927094	주일 8시반, 10시반, 19시
남상산가(南上山街)교회	濟南市 南上山街 正20號	0531-2909024	주일 8시, 19시

음식

지난은 중국 8대 요리 중의 하나인 산둥요리의 본고장이다. 산둥요리의 특징인 담백한 맛에 신맛이 나는 요리가 많다. 주요 요리로 준치를 찢어 찜낸 청연시어 등이 있다. 산둥요리를 잘하는 취풍덕반점,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달고 새콤한 잉어 요리와 손으로 직접 만든 라면을 자신있게 내놓는 회천반점(匯泉飯店) 등이 있다.

다롄

라오둥(遼東)반도 끝의 항구도시 다롄은 원래 작은 어촌이었다. 도시로서의 역사는 100년도 채 못되지만 많은 조계지 가운데 하나로, 거리마다 서구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금은 중국의 5대 대외무역 도시의 하나로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매력적인 도시다.

다롄으로 가는 길

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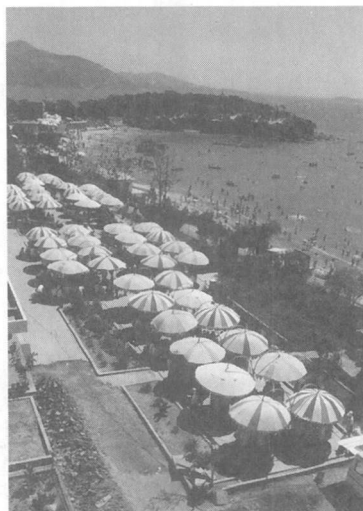
둥베이(東北)지방에서 바다에 면한 항구로 발전해 온 도시로 국제선과 26개 도시로의 국내선이 있다. 국제선은 홍콩과 일본, 한국 간을 오간다. 국내선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장춘, 하얼빈, 산둥, 옌지, 우루무치, 옌타이 등의 주요 도시로 항공편이 수시로 있고 이 주요도시 외에도 다수의 도시로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열차

베이징과 다롄을 오가는 경합선의 터콰이로 약 16시간 17분 소요된다. 선양에서는 선양 북역에서 뤼여우 터콰이로 5시간 소요된다.

시내로 가는 교통

다롄시의 공공 교통은 대체로 잘 되어있어 버스노선이 34개 있고 트롤리버스 노선이 2개 있으며 노면 전차도 3개의 노선이 있다.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롄의 성해 공원

여행계획

다롄시에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멋진 풍경이 있는 명승지라든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 볼만한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둥베이 지방의 바다를 향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중요하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이 도시는 최근에 발달하여 도시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이다. 청다오와 같이 해안에 접해있는 이 도시는 과거 조계 시대의 건물들이 거리마다 남아 있어서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다롄으로의 여행은 사계절 모두 좋지만, 아카시아 꽃이 활

짜피는 5~6월 사이가 가장 좋다.

다렌의 관광 명소

다렌 자연박물관

구 다렌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동베이지방에서 손꼽을 만한 박물관의 하나이다. 주로 진귀한 동물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1920년대에 관공서용으로 세워진 고전적인 양식의 건축은 중국 6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서 독특한 풍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시면적 2400m²에 이르는 관내에는 동베이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하는 동식물, 해양 생물, 광물 등의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노동공원

5월의 아카시아 축제의 주요 장소로 시 중심부에 있는 공원이다. 태극권을 하거나 자신이 기르고 있는 새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활짝 핀 아카시아나무 아래서는 잠기, 전통가요 등이 펼쳐진다. 아카시아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만, 지금은 다렌의 심벌이 되었다.

성해공원(星海公園)

다렌의 남서쪽, 보하이에 면한 공원이다. 해안은 모래가 아닌 모가 난 작은 돌로 가득 매워져 있고 궁(弓)형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동쪽 언덕에는 탐해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바다까지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다. 동굴 옆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전설이 깃든 성석(星石)이 있는데 이것에서 성해(星海)공원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부가장공원

다렌 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해수욕장이다. 1980년에 만들어진 이 공원은 면적이 18.6만m²이며, 800m의 해안선을 가진 대규모 공원이다. 공원의 동서 양쪽에는 작은 산이 있고, 남쪽은 바다에 면해 있다. 바다에는 동서로 2개의 섬이 떠 있는데 배로 건너갈 수 있으며 낚시도 할 수 있다. 이 공원은 다렌의 4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매년 여름철에는 수만 명의 피서객으로 붐빈다.

다렌시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 화	예배시간
옥광가(玉光街)예배당	大連市中山區玉光路 2호	0411-2630583	주일 8시, 10시
북경가(北京街)예배당	大連市西崗區長江路 605호	0411-3631678	주일 8시, 10시

음식

다렌은 바다에 면한 항구도시로 해산물요리를 잘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넉치나 전복은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이며 이것을 이용한 요리는 다렌의 자랑인 것이다.

베이징 전취덕 다렌분점

베이징 오리요리를 자랑하는 전취덕의 체인점. 다렌에도 2개나 있다. 베이징 요리의

대표적인 요리요리는 전취덕의 분점인 만큼 먹어볼 만 하다. 매일 2회 큰 솥에 불을 피워서 굽는데, 다 구운 것은 11시와 17시에 낸다. 이 때에 맞추어 가면 갓 구운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다. 주소는 西嵐區 新開路 14호. (0411) 363 - 7251

군영루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중국 음식점이다. 잘하는 요리는 물만두이고, 결혼식 등을 하는 연가청, 장수를 축복하는 복수청, 일본식의 영빈청 등 각각 특징있는 별실이 20개나 있다. 역시 이 곳의 권할 만한 요리는 '삼선만두'인데 해삼이나 새우를 넣고 작게 만들어서 먹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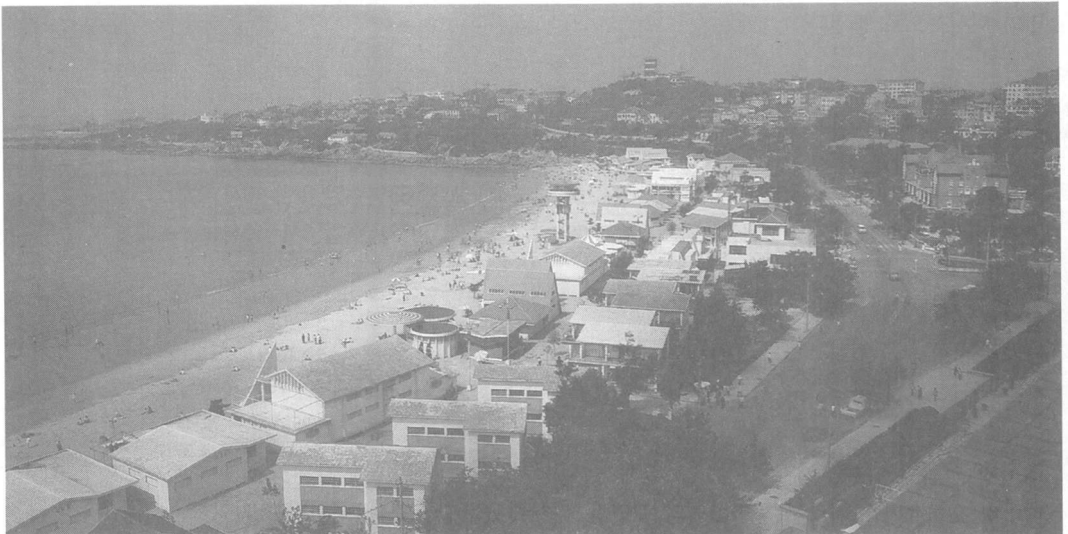
한성관(漢城官)

다렌 항구에서 가까운 한국 음식점이다. 일품 요리도 있다. 일반 중국 음식점들과는 달리 청결하여 가게에 들어서는 느낌이 좋다. 종업원들도 친절하며, 주문을 하면 곧 와서 조리를 해준다.

스탈린 거리 122호. 다렌 서원반점 9층. (0411) 80 8668

칭다오

칭다오는 맥주로 더 알려진 곳으로 산둥성 중부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항구 도시다. 지금까지도 조계시대의 그림자가 농후하게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양휴양지로서 관광객으로 붐비지만 그 옛날에는 쓸쓸한 어촌에 불과했다. 시내에 즐비한 붉은 지붕의 서구풍의 건축은 1898년 독일 조차지로서 개항 뒤에 세워진 것이 지금은 완전히 중국인의 생활속에 융해되어서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한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에 독일인들이 세운 것으로 침략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평평한 언덕길과 완만한 커브, 그리고 서구식 건축물이 이어지는 칭다오 거리는 서구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곳이며,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융해시켜내는 중국인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곳이다.



칭다오 해변

칭다오로 가는 길

비행기

베이징, 상하이 어디서든지 1시간 10분 걸리며 매일 운항한다. 광저우, 다롄, 시안(西安) 등에서도 있다. 해수욕철에는 국내의 관광객으로 혼잡하므로 표는 상당한 기간을 미리 앞두고 사는 것이 좋다.

열차

베이징에서 약 13시간, 베이하이(北海)에서 약 24시간 걸리는데, 둘다 산둥성의 성도인 지난을 경유한다.

배

국제선 인천-칭다오행으로 갈수 있으며, 약 25시간 걸린다.

여행 경로

일부러 칭다오로 가는 사람은 대단한 술꾼으로 '칭다오의 생맥주를 맛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칭다오를 들른다면 배편을 이용해 중국땅을 여행하는 사람에 한할 것이다. 특별히 볼거리라고 추천해줄 만한 곳은 없으나, 여행자에게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늑한 곳이다.

관광 명소

해산박물관(海産博物館)

수족관과 표본진열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돌고래나 상어가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수족관이지만, 수조의 물이 맑고 깨끗해서 느낌이 좋다. 가족 나들이로 성황을 이루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룬다.

제일해수욕장(第一海水浴場)

칭다오 여행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해수욕철에 해변에는 해수욕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해가 진 뒤에도 서늘한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들어찬다.

영산(嶺山)

시로부터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교외에 솟아있다.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단애절벽의 험한 산이다. 주봉 영정은 표고 1,133m로, 예로부터 중국 유교의 명산의 하나로 꼽으며 「신선이 사는 곳」이라 일러왔다. 일반 여행은 태청궁까지 버스로 간다. 상청궁, 용담폭 등 도보로 팔수하(八水河)까지 약 2시간의 등산길이다. 팔수하에서 다시 버스에 올라 오후 4시쯤 시내로 돌아온다.

칭다오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화번호	예배시간
강변로(江邊路)교회	靑島市江邊路15호	0532-2865970	주일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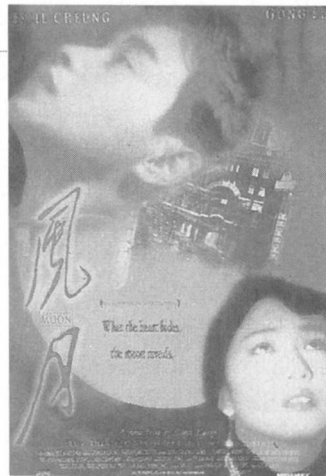
‘첸카이거 감독’, ‘중국 내 상영금지’, ‘96년 칸느 영화제 초청작’...,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첸카이거 감독이 영화 “풍월”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관객에게 전하려 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20~1930년대 중국이 근대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다. 카메라는 중국 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도시인 상하이(上海)와 상하이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쑤저우’(蘇州)의 전통적인 씨족 공동체인 팡(方)가 장원을 오고가며 대조적인 두 지역을 중심무대로 삼는다.

영화는 팡씨 집안의 딸인 소녀 류이(공리, 鞏俐扮)가 아편을 배우고, 충량(장구오롱, 張國榮扮)이 누나가 시집온 팡가 장원으로 들어와 매형의 아편을 시중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작편을 뒤집으며 장난을 치던 류이를 단오가 붙잡고, 그 광경을 매형인 젠다에게 줄 아편을 들고 가던 충량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세 사람의 얽힌 운명을 암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환각 상태에 빠진 매형에게 충량은 누나와 입맞춤하라는 강요를 당한다. 장면이 바뀌어 울면서 방을 나오는 충량. 영화 속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근친상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결국 충량은 매형의 아편에 비상을 넣어 그를 식물인간이 되게 한 후 도망치다 상하이의 암흑가 보스를 만난다. 세월이 흘러 성장한 충량은 상하이의 유명한 제비족이 되어, 환락과 향락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팡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보스의 명령으로, 팡가의 주인이 된 류이를 유혹하려 팡가 장원으로 다시 돌아온 충량.

세월은 흘렀건만 팡가의 모습은 변함없이 전통적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마치 변하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듯이... 그리고 여전히 동생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누이는 오랫동안 팡가 장원을 찾아온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충량의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다. 변한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류이와 그 집의 집사로 일하게 된 단오뿐이다. 단오는 팡가의 일원이지만 직계는 아니므로 거의 종에 가까운 존재이다. 단오 자



중국영화 감상

풍월 (風月)

이창우

신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남몰래 류이를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팡가 장원에서 서구 문화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충량이 류이를 유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그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충량 역시 류이를 사랑하게 된다. 한편, 류이는 충량을 위해 ‘여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서구식으로 몸단장을 할 뿐만 아니라 충량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단오와 섹스를 연습하기도 한다. 충량은 류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갈등 끝에 혼자서 팡가 장원을 떠난다.

류이와 단오는 충량을 찾아 상하이로 오고 조직의 흥계에 의해 충량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량을 사랑하겠다고 류이는 충량에게 고백하지만 충량은 류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류이는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충량 결국 조직을 배반하고 류이와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소주로 오지만 이미 결혼한 남자가 생긴 류이는 그를 거절한다. 상심한 충량은 류이의 아편에 비상을 탄다. 류이는 식물인간이 되고, 팡가 장원을 떠나던 충량은 조직원의 손에 죽는다. 팡가의 승계를 단오가 받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영화는 시종일관 흐름이 유연하지 못할 뿐더러 전통과 현대와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소재와 인물들 사이에 개연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화적으로도 충량이 류이를 사랑하게 되는 심경의 변화, 류이가 갑자기 서구화된 모습 등 충분한 설명이 없다. 은유와 환유 속에 중국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해 보여주던 첸카이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부한 멜로드라마 수준에 그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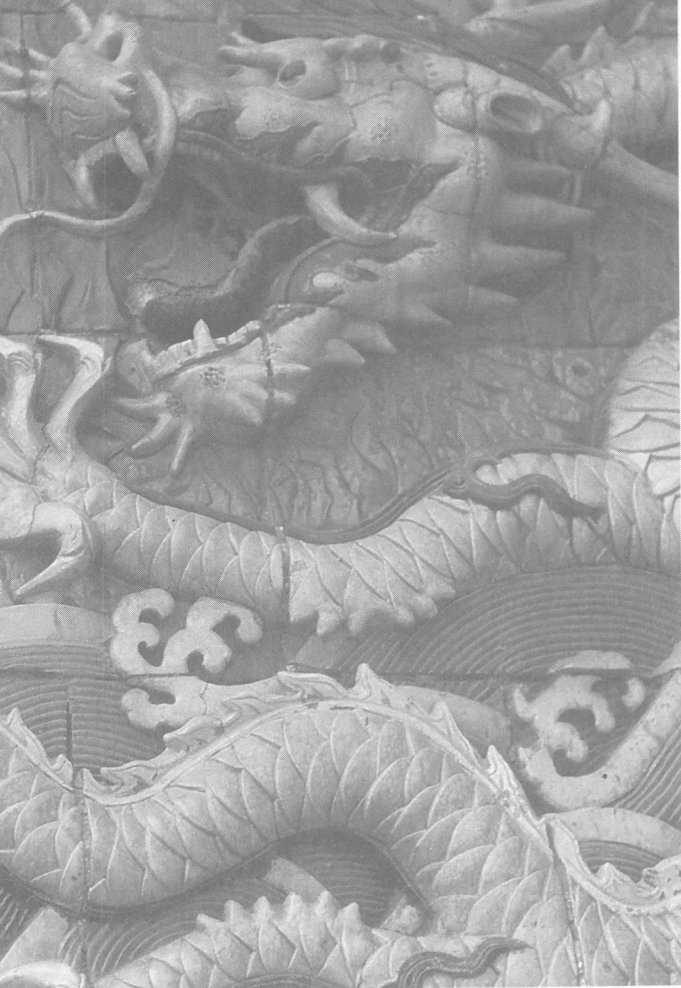
풍월을 보면서 생각한 점이지만 최근 중국영화가 비정상적 성의 모습을 통해 사회상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많은 작품에서 비정상적인 성(性)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왕자웨이(王家衛)는 ‘춘광사설’에서 남자동성애를 그리고 있고, 대만의 차이밍량(蔡明亮)의 ‘하류(河流)’는 아버지와 아들의 근친상간, 첸카이거의 전작 ‘패왕별희’에서 남자동성애를, ‘풍월’에서 근친상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의 모습을 매개로 사회를 고발해야만 하고 인간 소외를 보여주어야만 할까? 일상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인가? 어느새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개념이 되었다. 영화 풍월에 흐르는 아편 연기의 몽롱함처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도 불분명하다. 아편과 타락한 성의 몽롱함이 중국 현대사의 혼란이라면 충량의 매형 쟈다는 구시대의 상징적 인물이고 충량의 누이 역시 절망 속에 남아있는 구시대의 인물의 모습이다. 류이와 충량은 전통과 개방 속에 갈등하며 격변기의 삶을 살아간 인물들로, 혁명처럼 그들의 그늘 속에 숨어있다. 팡가, 즉 중국의 주인으로 신분상승하는 단오가 혁명 이후의 중국인의 대표적 모습일까? 이것이 지나친 유추가 아닌가 싶을 만큼 설득력이 적다.

첸카이거 감독의 영화 전체의 주된 흐름 즉, 메시지 전달 방법은 중국의 전통적 생활 모습과 현대화의 모습 속에 역사성과 사회성이 깃들여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꼬집는 것이다. 하지만 풍월에서 보여지는 여러 장면은 이미 너무 많이 보아온 수법으로 보여졌다. 게다가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이 배우 장국영의 역할이 상반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패왕별희와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영화 속에 볼거리라면 30년대 상하이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것과 크리스토퍼 도일(왕가위 영화의 촬영 감독)의 수려한 영상뿐이다. 사치성 있는 작품도, 멜로물도 아닌 어중간한 영화가 되어버린 풍월을 보며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 어중간한 영화같이 혼란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창우 / 중국복음선교회 회원, 낮은울타리 회원.



중국 문화

중국인의 마음에 새겨진 용(龍)

권수영

중국의 용은 서양의 중세 시대 상상력 속의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힘과 선(善)의 수호신이다. 용은 변화의 신령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다. 중국의 모든 신화나 우주론 개념에서 용은 착한 성질을 가진 온화하고 인자한 생물이며, 자연계의 남성적 활력과 생식력을 상징한다. 한나라(BC 206년-AD 220년) 때부터 용은 ‘천자(天子)’ 즉, 황제의 상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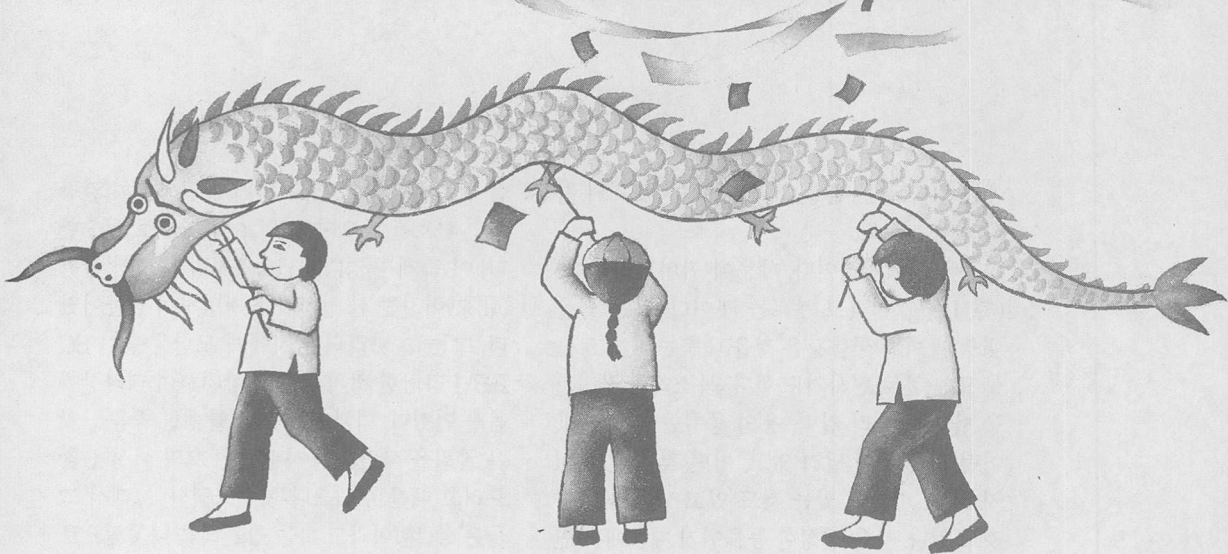
다섯번째 간지, 용

용은 12 간지(干支) 중 다섯 번째 동물이다. 역경(易經)에 따르면 ‘진(震Chen)’이라는 글자는 힘의 네 가지 기본적인 전개 과정 중의 세 번째 과정과 일치하며, 룡, 즉 ‘용(龍)’과 동의어이다. 그리고 이 의견을 좇아서 동쪽, 봄 등과 같이 그렇게 지시된 힘들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의 힘과 기능을 청룡(靑龍)자 밑에 분류하는데, 청룡 역시 천계의 동쪽 상한을 가르킨다.

옛날 중국인의 우주론에서는 용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천룡(天龍)’으로 하늘의 재생력을 대표하고, 둘째는 ‘신룡(神龍)’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셋째는 ‘지룡(地龍)’으로 지상의 샘물과 수원(水源)을 장악하며, 넷째는 ‘호장룡(護藏龍)’으로 인간의 눈에 가리워 볼 수 없는 보물을 지킨다. 이 밖에 사람들은 또 사해 용왕이 있어서 지구를 둘러싼 네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방위를 대표하는 네 가지 동물 중에서 용은 동방, 즉 해가 솟는 곳을 상징한다. 용은 풍작이나 봄비, 또는 빗물을 나타낸다. 용은 ‘청룡(靑龍)’이라고도 일컬으며, 서방과 사후의 세계를 상징하는 ‘백호(白虎)’와 대응된다.

용은 마력을 가진 동물로서 자유자재로 변신하여 누에고치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하늘과 땅에 차도록 커질 수도 있다. 용은 또 필요에 따라 숨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 용은 하늘로 오를 때 먹구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림을 볼 수 있는데 흔히 용 두 마리가 공(球)이나 여의주(우뢰, 번개를 상



정)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비를 오게 한다.

경계와 보호의 상징인 용

용은 경계와 보호의 상징이다. 고대인과 현대인 모두 이 우화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용은 고대인들, 특히 중국인의 종교를 통해 신성시되고 중국인들의 신화의 대상과 저들이 믿는 뜻을 대변하는 대리자, 보물의 수호자가 되었던 것이다. 고대인들은 바다 회오리를 살아있는 용(海龍)이라고 생각했으며, 출렁이는 파도를 마법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괴물은 사람과 배를 해치기 위해 큰 물결을 일으키는 힘을 가졌다고들 한다.

언제나 용에게 붙어있는 둥글고 빨간 여의주.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힘을 잃는 전조로 여겨졌다.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제 어의의 문장엔 여의주를 놓고 두 마리 용이 다투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수나라의 제후였던 재상 치량(?)은 어느 날 밖에 나가 산책하다가 상처입은 뱀을 발견하여 약을 발라 주고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후 다시 그가 나가서 산책하고 있을 때 입 속에 아주 빛나는 진주를 물고 있는 뱀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그 뱀에게 다가서자 그 뱀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용왕의 아들인데, 허물을 벗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이 진주로써 당신이 내게 베푼 호의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재상은 이 진주를 자기가 섬기

는 군주에게 갖다 바쳤다. 황제는 그것을 그의 어전에도 갖다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밤도 낮처럼 밝았다.

복합체인 용의 형상

서기 200년에 쓰여진 「설문해자(設文解字)」에서는 물고기, 뱀, 도마뱀과 같은 비늘 달린 369종의 파충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용이 가장 중심적인 동물로 되어 있다. 용의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봄이 오면 용은 하늘로 올라가고, 가을에는 물 속 깊숙이 침잠한다. 추분이 되면 자신을 진흙으로 덮었다가 봄에 다시 나타난다. 이렇듯이 용은 눈을 뜨는 것으로 자연의 힘의 복귀를 알려주므로, 용은 자연생산적인 수분의 힘에 대한 상징이 되었으며, 온화한 비나 폭우에 의해 모든 자연을 새롭게 하는 봄의 상징이 되었다. 숫자 '9'는 남성 활력의 상징이므로 흔히 용과 연계된다. 유명한 ‘一龍九子名不同’(용의 아홉 아들은 각기 다르다)은 젊은 부부에 대한 좋은 축원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용의 몸체는 확실히 뱀과 같고, 머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 머리의 여러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빨은 포유육식 동물의 것과 같은데 반해, 다리와 발톱은 새의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우화적인 동물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흔히 뱀 몸에 발과 발톱이 있고, 가죽에는 비늘, 머리

에는 사슴 같은 뿔을 그리며, 귀는 소 귀와 흡사하게 그린다.

용은 귀머거리이다. 때문에 귀머거리를 ‘농(𪛗, Long)’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용은 숨을 내쉴 때 마치 구름같은 것을 내뿜는데, 때로는 물 또는 불로 변하기도 한다. 목소리는 구리판을 울리는 소리 같다. 용의 종류는 다양한데, 어떤 것은 뿔이 달려 있고, 어떤 것은 달려 있지 않다.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날개가 없는 것도 있다. 용은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사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문화 풍습에 스며든 용 신앙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같이 신비롭고 놀라운 생물의 존재를 철저히 믿고 있다. 그 용은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 전설엔 그런 것들로 가득차 있다. 도가의 설화들은 용의 움직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전역에는 용의 은밀한 거주지와 무시무시한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다. 집이나 절(사원)에서 용의 초상을 쉽게 볼 수 있고, 건축물이나 예술품, 직물 등에서 장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북해 호숫가에는 ‘구룡벽(九龍壁)’이라 알려져 있는 보호벽이 있다. 이 벽은 아홉 마리의 용이 몸을 뒤틀고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의 다채로운 색의 타일을 붙인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실제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용의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듯이 이 보호벽은 실존하는 모든 용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이미 오래 전에 소실된 만불전(萬佛殿)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졌었다. 또 다른 유사한 성격의 벽은 사경문(賜敬門) 근처 자금성(紫禁城)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양절(端陽節), 중원절(中元節), 해종절(解糴節), 용주절(龍舟節)이라고 다양하게 알려진 ‘용선축제’(Dragon Boat Festival)는 음력 5월 5일에 개최되며, 매우 생기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섯 개 혹은 그 이상의 노잡이

를 실은 길다랗고 좁다란 배가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강 위, 아래쪽으로 질주한다. 이 축제는 영(郢, Ying) 지방 태생인 굴원(屈原)이라는 한 정치가를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그 나라의 왕자에게 모함을 받아 BC 295년 타락한 정치 풍토에 항의하여 멍라강에 몸을 던졌다. 덕과 충성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은 굴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배를 보냈으나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들은 ‘쥬(糰)’이라고 하는 찹쌀떡을 나뭇잎으로 싸갓고, 깃발과 징을 단 배에 실어 강을 건널 채비를 하였다. 모두들 그 비극의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충성스런 신하의 영혼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애썼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이 같은 방식이 후손들에게 축제로 전해내려온 것이다.

용선은 일반적으로 3.75m 길이에 너비가 1.6m, 깊이가 70cm이며, 뱃머리에 용머리가 장식되고, 선미엔 용 꼬리를 달았으며 노 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징과 북을 두들기며,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태운다. 이 경주가 벌어지는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어떤 지방의 당국자들은 적절히 경주를 제한하거나 금하고 있다. 이 축제는 아마도 용이 곡식을 위해 충분한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한 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북방 지역에서는 춘절(春節:음력설)에 용춤을 추며, 혼례식에서 신혼부부가 손님들을 떠나서 신방으로 갈 때도 비슷한 춤을 춘다. 때로는 춤추면서 입맞추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중국문화통론』, 이장우·노장시 저, 중문출판사

『중국문화 중국정신』, C.A.S 윌리엄스 저, 이용찬 외 공역, 대원사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이베헤 저, 김영사

권수영/ 본지 편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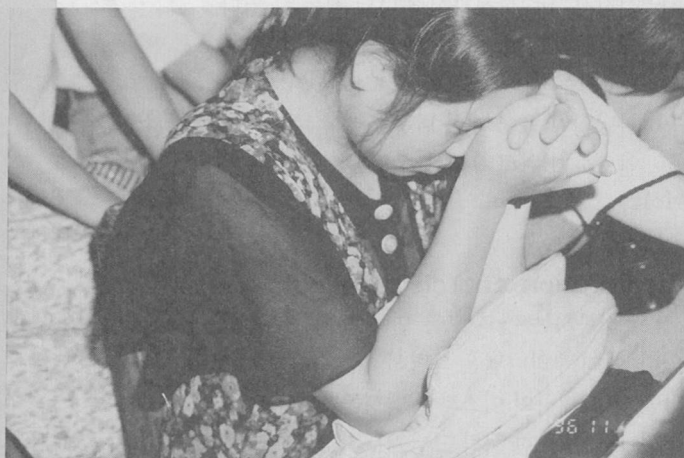


세계선교 동향

DAWN 프로젝트

(Discipling A Whole Nations)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는 단 프로젝트(DAWN Project)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던 몽고메리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4년 그는 3천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에 교회는 겨우 4천여 개 뿐임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로 하여금 3천 5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교회 성

장을 연구하던중, 교회를 개척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작은 모임이 ‘승법번식’하는 교회 역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교단 및 교회가 한 목표를 정해서 이 일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필리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도전하였고, 여기에 동의한 지도자들은 그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4년 ‘5만 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고 달려온 결과 현재 3만 4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필리핀에서 생겨났다. 이런 추세로 계속나가게 된다면 인구 5천이 되는 2천년대에는 1만 7천 개의 교회가 더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교회의 숫자의 2배에 해당된다. 그는 필리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후 그의 사역과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현재 단 프로젝트를 수용한 나라가 71개국에 이르렀으며, 그 중 30개 국은 ‘전세계에 1백 40만 개의 교회를 그리고 중국에 1백만 개의 가정교회를 세운다’는 구체적



인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다.

단 프로젝트의 비전

단 프로젝트의 비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 19~20)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단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나 교단, 그리스도인 개인은 이 비전 아래서 누구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형성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창 1: 27~28, 마 23: 37).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는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6장 5절, 8절을 보면 인간의 행위가 매우 악하여 그들을 멸절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를 남겨두심으로 의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볼 수 있다. 단 프로젝트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복음사역이다.

단 프로젝트-‘침투 교회 개척’(saturation church planting)

여호수아 1장 10절~11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 그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방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쫓아 낸 다음 모든 도시를 점령해야 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민족 전체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저 한 나라, 혹은 몇몇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으로 지상명령은 성취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읍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온갖 종류의 병을 고치셨다(마 4:23, 9:36). 바울 역시 모든 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롬 15:14). 그는 예수님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사역했다.

중국에는 12억의 인구가 있다. 처음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중국의 해안지역만 돌아다녔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전체를 차지해야겠다는 믿음을 갖고서 중국내지선교회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곳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사람이다.

‘침투 교회 개척’(saturation church planting)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나온 용어이다. 이 개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 방언, 조건,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도록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접근해 간



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침투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범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 즉, 모든 교단과 교회 그리고 개인들은 이 일을 위해 종합된 헌신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 프로젝트(DAWN Project)' 혹은 '단 타입 프로젝트(DAWN type Project)'이다.

단(DAWN Ministry)에서는 이 과제를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전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은 아주 작은 조직체로서 8명의 사역자들이(1995년) 전세계의 교단과 교회들에게 단 비전과 전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스태프들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단 전략을 충분히 세울만한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셨다고 생각하므로 각 나라마다 단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단 전략을 세우기를 원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 단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나라에서는 기존의 선교단체(CCC, OM, YWAM 등)들이 추진하고 있다.

단 전략의 7단계

1단계

범국가적 지도자들과 이들의 위원회가 헌신하여 한 국가 전체에 그리스도 몸 전체를 동원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한 나라 안의 모든 종족집단을 제자로 삼는 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2단계

자신의 나라를 교회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비전과 확신으로 가득찬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무장된 사람으로서(민 11:28, 27: 18-21, 출 33: 7, 11),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지도자였다(수 1: 16-18, 3: 7). 존 낙스는 자신의 나라인 스코틀랜드에 대한 열정과 부담이 강렬하여 '내게 이 민족을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라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1950년 전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3년 전 까지만 해도 임신한 여자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감옥에 처넣었고, 70세 된 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매맞아 죽었다. 이런 나라에서 단 프로젝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팔에 '룩 마니 반다리'라는 사람을 세우셨다. 그는 1965년 네팔 서부지역의 브라만 계층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장한 후 거리의 갱단 두목이 되었고, 태권도에서 그 나라 챔피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 지도자들의 경호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1984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거리의 전도자로 나섰다. 네팔정부는 그를 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예수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방을 사용했던 28명의 강도, 절도자들이 회심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는 다시 거리의 전도자가 되었다. 현재 그는 6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이면서, 네팔의 다른 지역에 작은 지교회를 개척하여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네팔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 침투 교회 개척사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단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만들고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한 나라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3단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최소한 한 교회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단 전략의 핵심이다.

필리핀은 ‘바랑가이’라는 것으로 각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필리핀에 5만 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질 경우 2천년대가 되면 5만 바랑가이마다 한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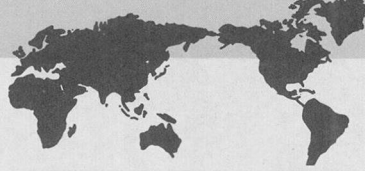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나라와 지역을 세밀히 관찰, 연구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성벽을 돌아가면서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 우리 모두 일어나 교회를 세우자고 도전하였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5단계

범국가적 집회에 모인 그 나라의 대표지도자들은 범국가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기서 목표라 함은 ‘몇 년 내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집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2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전 연구를 담당한 크리스 포스터라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성장 정도를 보면서 2만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회의 마지막날 총지도자는 모든 교단들로 하여금 각기 교단들이 몇 개의 교회를 세울 것인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후 종합해 본 결과 1만 9천 개가 조금 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교단 지도자는 2만 개중 나머지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결국 크리스 포스터의 연구 결과와 집회에 참석한 교단지도자들의 목표한 숫자가 놀라게도 일치함으로써 이들은 2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단계

모든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한다. 과테말라에서 단 집회에 참여한 40여 개의 교단 중 일부가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어떤 교단의 경우를 보면 ‘프로젝트85’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포스터를 준비하여 거기에 30개 라인을 그려놓았다. 각 교단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배포한 후 새로 온 사람들의 숫자로 채우게 하였다. 그리고 그 새신자로 하여금 자기 마을의 주민들을 목회자와 접촉하게 한다. 목회자는 새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지역의 친척들을 찾아가 성경공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교단은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7단계

단 프로젝트 즉, 침투 교회 개척 전략은 집중적인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와 잘 제시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짐바브웨에서 한 선교사가 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길 원했다. 그는 여러 번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어느 날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 지역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6개월 간 기도를 했다. 이후에 개최한 전도집회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며 주님을 영접하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그룹이 만들어져 거기에 있던 쇼펍센터 건물의 한 방을 빌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몽고메리 박사의 사위인 로이 웅거드 선교사는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전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며 도전을 받아 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4년 반 동안 47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하시는 것을 보며 흥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자신을 위한 백성을 창출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창 12).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창출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계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는 날 단의 과업은 끝날 것이다. 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백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다고 확신하므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앞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에서 <영적 지도력과 교회성장 세미나> 중 로이 웅거드 선교사의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자’라는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좋은 집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 선교

한·중 기독교모임 정례화

제1회 한·중 기독교학술문화세미나가 8월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사회과학원 회의실에서 폐막되었다. 중국 공산당 창건 이래 중국 정부 부서가 외국의 기독교 교단을 초청해 마련한 최초의 기독교세미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이같은 기독교 학술세미나를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개최기로 하는 등의 모임 정례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는 한편,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공보 8. 30)

한·중·일 선교협, 21세기 선교전략 모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최근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3개국 선교협의회를 구성, 21세기 세계선교를 적극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본부 대표단은 지난 7월 중국과 일본을 방문, 중국과 일본의 교계지도자들과 이같은 원칙을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 3개국 선교협의회를 가동기로 했다. 특히 대표단은 중국 교회의 공식 초청으로 상하이(上



안승운 목사의 부인 이연순씨와 아들 상엽군이 안 목사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海)시 중국기독교협회 본부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산둥성기독교협회 본부, 칭다오(靑島)시 칭다오기독교협회 대표자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양국 교회의 선교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양국 교회 대표단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방문기로 합의했다.

(주일신문 9. 14)

남북 안승운 목사 송환기도회

북한 공작원에 의해 지난 '95년 7월 9일 중국 연지시에서 납북된 안승운

목사의 빠른 송환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9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지난 7월 28일 중국이 안 목사 납치사건의 주범인 이경춘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안 목사의 조기송환을 공식 제기했고, 안 목사를 파송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부 측과 공조하여 전 성도들이 중보기도회를 마련하는 등 대책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주일신문 9. 14)

홍콩 종교지도자들, 기독교 특혜에 불만 고조

홍콩 침례신학교 교수인 귀춘화(郭春華) 목사에 따르면, 홍콩의 비기독교 종교지도자들은 중국 반환과 함께 더 이상 홍콩이 기독교에 베푸는 특혜도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귀 교수는, 최근 개최된 각 종교 기념행사에서 전해진 메시지들이 모두 홍콩 식민통치를 비난하고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교회들이 식민통치에서 받았던 특혜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교회와 기관들은 홍콩 전체 종교기관의 8%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약 40%와 사회봉사기관의 5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9. 15)

정치 · 군사 · 외교

부처 통폐합 행정개혁

중국 지도부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일부 생산관련 부처를 국영기업화 하는 등 행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보도했다. 국무원의 행정구조 조정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80년대 초 단행한 행정개혁 이후 최대 규모로 전자공업부, 기계공업부, 화학공업부, 석탄공업부 등 생산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국영기업으로 전환, 정부는 행정과 정책 수립에만 전념하고 기

업활동은 해당 국영기업에 맡기는
정경분리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겸 당총
서기는 차기총리로 내정된 주룽지
(朱鎔基) 부총리에게 행정개혁과 함
께 정부의 관료주의 철폐를 주요과
제로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8. 25)

자칭린 베이징 시장, 시 당서기에 지명

자칭린(賈慶林) 베이징 시장이 중국
의 반(反)부패 사정을 주도했던 웨이
젠싱(尉健行)의 뒤를 이어 베이징시
공산당 서기에 지명됐다고 관영 신
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공
산당 중앙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따
라 자칭린이 베이징시공산당 서기직
에 취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8. 26)

중국 공산당, 대만 국민당 대회 축하 전문

중국 공산당은 8월 25일 제15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회한 대만 국민당에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고 국민당 차이비황
(蔡璧煌) 대변인이 밝혔다. 전문은
국민당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양안(兩岸)간의 적대관계를 끝
낼 회담을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은 대만의 독립 노력과 대만측이 주
장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나 「두 개의 중국」 입장에
는 반대한다는 뜻도 전문에 명시했
다.
(동아일보 8. 27)

15전대 4대 금기사항 결정

중국 공산당은 12일 개막되는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천안문 사태를 거
론하지 않기로 하는 등 4대 금기사항
을 결정했다고 홍콩의 빈과일보(蘋
果日報)가 보도했다. 베이징 소식통
을 인용, 당은 9일 폐막된 제14기 중
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하고, 15전
대의 4대 금기사항은 ▲천안문 사태
거론 ▲당내 파벌조장 ▲홍콩 내부
행정 ▲대만에 대한 분노 표출 등이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회의.

다.

중앙위원 182명, 후보위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쩌민 총서기 주재
로 열린 이번 회의는 극우목, 파오동
등 2명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부서기
를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시키고 지난 95년 부패혐의로 정
치국원과 베이징시위 서기 자리에서
몰려난 후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천
시통(陳希同)에 대한 출당 결정을 통
과시켰다.
(조선일보 9. 10)

스리랑카 타밀반군 중국 선박 공격

스리랑카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
E) 반군들이 9일 북동부 풀모다이항
근처에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파나
마 선적 홍콩 소재 중국해운사
(COSCO) 소유인 3만4천톤 급 대형
화물선 코디엘리티호를 공격, 민간인
노동자 5명과 선박 경비를 위해 승선
한 해군 병사 3명이 숨졌다. 확인된
사망자 이외에 정부군 병사 7명이 실
종됐고 민간인 노동자 22명과 정부군
4명이 부상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다. 정부군 관리들은 해군함이 반군 선
박과 전투를 벌여 4척을 침몰시키고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 10)

『자오쯔양 복권』 요구, 무기명 서신 베이징 유포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北京)에는 89년 천안
문(天安門)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총서
기의 연금해제와 복권을 주장하는
서신이 나돌고 있다고 홍콩의 성도
일보(星島日報)가 보도했다. 무기명
으로 된 이 서신은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8년이나 지났고 자오
쯔양의 가택 연금도 오래됐으므로
아직까지 그의 당원직과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동아일보 9. 11)

클린턴, 동진화 만나 홍콩 민주화 강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5일간
일정으로 처음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동진화(董建華) 홍콩 초대 행정
장관이 12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다. 클린턴은 그에게 민주주의를
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홍콩 반
환후 드러난 정치개혁의 일부 후퇴
사태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홍콩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계속 보호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직선의원수 축소
법안 등 입법회선거와 관련한 국민
참여 억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망

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조선일보 9. 13)

중 공산당 반부패 투쟁, 5년 간 12만 명 축출

지난 5년간 반부패 투쟁을 벌여온 중국 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당간부들을 뇌물수수나 호화판 연회개최 등의 혐의로 조사, 12만5천여 명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보고서가 밝혔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중국 사회의 부패는 당조직의 상층부에까지 뻗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9. 24)

미하원, 중국 대상 라디오방송 기금 증액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9일 중국에 관한 일괄 법안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미 정부 지원하의 '라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라는 라디오 방송 기금을 현재의 연간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하고, 중국의 인권위반 사례에 대한 중국 주재 미국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지난 96년 봄 아시아의 독재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베트남, 중국 및 북한 등이 이 방송의 주요 목표 대상국들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10. 1)

미 하원, 인권탄압 중국 관리 비자거부 결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인권탄압을 자행한 중국 관리들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자를 거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 빌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대만에 최신 대미사일 방어체제를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 위원회의 비자거부 결의와 관련,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했다.

(조선일보 10. 1)

경제

중국, 2020년 곡물 수요량 6억 9천7백만 톤

중국은 오는 2020년에 곡물 수요가 6억9천7백만 톤에 달할 것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과 농업 연구, 토지와 수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22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례 합동회의 개막에 앞서 연구보고서를 발표, 세계 최대 12억 인구의 중국은 제때에 이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수요량의 90%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나머지 10%를 수입하는 경우 항만 시설과 비포장 수송 수단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재의 구식 수단으로 곡물을 수입하게되면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8. 25)

홍콩 증시 중국기업주가 폭락

홍콩 증권시장에서 중국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2일 일제히 폭락했다. 일명 레드칩이라 불리는 중국 관련 기업주식은 홍콩 주권반환을 전후해 폭발적으로 주가가 치솟았는데, 이는 중국측이 각종 유형 무형의 자산을 홍콩 자회사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들 중국 관련기업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레드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 이제 그 거품이 걷히는데다가, 동남아 증시폭락의 영향과 9월 중 미국과 홍콩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레드칩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는 바람에 이같은 폭락현상이 빚어졌다고 홍콩 증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9. 3)

신기술산업개발 시범지구 적극 육성

중국은 베이징 중관촌(中關村)구에 조성한 첫 신기술산업육성시범지구를 3~5년 안에 국제적인 첨단기술 개발의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성장우선 방식의 지양과 기술

혁신, 산업 다변화, 해외시장 확대 등을 통해 시범지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범지구에는 중국 굴지의 컴퓨터 및 정보기술 관련회사인 레전드사와 스톤 & 파운더사 등을 비롯해 모두 4,506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시범지구는 96년에 130억 원(元) 상당의 생산고와 2억 6천7백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으며 오는 2000년에는 3백50억 원의 생산고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 9. 8)

국유기업 99% 사유화

중국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99%를 사유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이나 안보에 관련된 8백~1천 개 국유기업만 보유할 계획이라고 홍콩 빈과일보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쓰촨성의 경우 지금까지 3,700개의 중 대규모 기업들이 사유화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5천 개 국유기업이 추가로 사유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9. 9)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국유기업 노동자들.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의 하나의 관건이다.

『중국, 15년내 최대 경제대국 부상』 IMF 보고서

중국은 현재의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10년 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에 필적하고 15년 내에 서구경제를 압도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21일 홍콩에서 열리는 52차 연차총회를 앞두고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인플레이를 잡으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15년 내에 세계 경제의 20%를 점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9. 18)

상하이, 부동산 투자 열기 한창

상하이에서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 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사 전문업체인 제로사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전체 인구의 1.6%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시민들의 경제력 성장이 이 도시에서의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상하이에서 거주 인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다. 많은 상하이 거주자들은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 이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 있다. 특히 푸둥(浦東) 신지구에서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당국도 은행 담보대출을 앞선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국일보 9. 23)

외국기업 설비도입 면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룽지 부총리는 22일 ‘홍콩금융세미나’ 강연에서 외국기업의 설비수입에 대해 면세조치를 부활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은 최근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 부총리는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라고만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9. 24)

선전, 연봉제 전면 시행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해 연봉제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또 국유기업 직원 및 근로자들의 주식 소유 시험에도 착수했다. 이러한 규정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이 9월 12일 중국공산당 15전대 개막식 보고서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주식회사제 전면도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제정, 시행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성(省), 시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10. 2)

홍콩-중국 ‘돼지전쟁’

최근 홍콩의 돼지고기 시장을 둘러싼 홍콩과 본토간 ‘돼지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홍콩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 물량의 90%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본토의 중국대외무역 산하 능풍홍사가 중국산 돼지를 독점 공급,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커지자 홍콩 정부가 지난 해부터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발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본토에서도 중국 접경 홍콩 지역에 대규모 도살장 건설을 추진, 돼지고기 가격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국민일보 10. 2)

사회

중국 자전거 도둑 급증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새 법규를 마련,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도둑을 퇴치하고 불황을 겪고 있는 자전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자전거는 모두 4억 5천만 대이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할 경우 12억 인구의 절반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난 자전거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자전거를 더 선호하게 되고, 이는 새 자전거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전거 업계의 불황을 야기한 한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일보 9. 2)

쓰촨성 노동자 시위

쓰촨(四川)성 두장옌에서 9월 2일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이며 진압경찰과 충돌했다고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즈 차이나」가 밝혔다. 두장옌시 당국이 약속한 고충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에 나섰다.

(중앙일보 9. 3)

중국 소녀 “오장육부가 뒤집혀”

중국 동부 도시 김안에서 신체의 주요 장기가 거꾸로 달린 여아가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들이 부모에 의해 유기된 이 여아를 병원에서 초음파진단기로 조사한 결과,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심장과 지라는 오른쪽에 붙어 있으며 간과 쓸개, 췌장은 왼쪽에 붙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간혹 장기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여아처럼 중요한 장기 5개가 모조리 뒤바뀐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9. 9)

상하이 대형슈퍼 좀도둑 극성

중국 상하이의 푸둥개발구에 있는 로터스 슈퍼마켓은 면적이 1만5천㎡로 상당히 넓고 물건값이 싸, 하루 20만명이 북적대는 혼잡을 틈타 절도 범으로 변하는 손님이 많다. 어느날 상점에선 6백여 마리의 통닭이 팔려 나갔으나 금고에 들어온 돈은 고작 2백마리 분에 불과했다. ‘범인들’은 사라진 수백 마리의 통닭을 화장실에서 먹어 치웠다. 일부 고객은 신고 온 신발을 벗어놓고 몰래 새 신발을 신고 나간다. 화련이라는 슈퍼마켓에서 99원(약 9천9백원)짜리 물건을 훔쳐다가 재판에 회부돼 1년 간의 노동개조형이 선고된 고객도 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는 상가의 물품 도난율이 1~3%에 이르며 범인의 절반은 학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물품도난을 우려한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이 “중국인은

가방을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팻말을 내세웠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굴복, 사과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일보 9. 11)

중국 방문 홍콩 남성 3분의1 매춘부와 성관계

홍콩 에이즈자문기구가 중국방문을 마치고 입국하는 홍콩 남성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3%가 지난 6개월 동안 본토에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3분의2는 자신이 에이즈에 반드시 걸리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들은 20~30대로 고졸미만이 대부분이다.
(조선일보 9. 12)

상하이시, 입시부담 덜어주기 위해 고심

상하이시는 대학입시 경쟁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3천여 개의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80년대부터 상하이에서는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현대생활의 복잡성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선일보 9. 13)

13세 이하 어린이들 ‘노예노동’

미국의 인권단체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중국 주강(珠江)삼각주에 있는 대형 신발 하청공장 4곳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임금을 담보로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복, 나이키 하청공장들은 어린이들에게 작업 중 대화를 하면 1달러 20센트~3달러 60센트의 벌금을 물리는데 아이들 급여는 이보다 낮은 시간당 10센트에 불과하다. 또 하루 8시간 노동 외 평균 2~8시간 정도의 시간의 근무를 강요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上海浦東新區
伴在東南亞利
很高知名度

상하이 푸둥 신지구. 최근 이 지역에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밝혀졌다. 중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가능한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당 44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일보 9. 22)

신발공장 화재, 32명 사망

푸젠(福建)성 소재 진장(晉江)시에 위치한 홍콩 투자 신발 공장의 기숙사에서 21일 불이나 3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고 홍콩의 중국신문사(CNS)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54명은 구조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 23)

중국인 부호 컬럼비아대에 237억원 기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거부 푸ZY씨(78)가 미 동부 명문 컬럼비아대에 2천6백만 달러(한화 약 237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푸씨는 성명을 통해 컬럼비아대와 중국 학자들과의 오랜 협력관계에 경의를 표하고, 이 대학이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서 계속 건설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기부금을 낸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 출생인 푸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후 1951년 도쿄에서 ‘산샤오무역공사’를 설립한 후 무역과 증권, 기타 사업 등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다시 미국으로 건

넌 그는 수년 전 컬럼비아대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위해 5백만 달러의 장학금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 10. 2)

한·중관계

중 투자, “상당 땀 모든 내용 서면으로 남겨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일 개최한 중국투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중국 투자시 유의사항 44가지」라는 자료는, 중국과 협의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하지 않으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고, 또 시장경제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과 합작시 의견충돌이 잦으면 4~5년 간 독자기업을 운영한 뒤 합작하라고 권하고 있다. 방언을 구사할 줄 아는 현지책임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게 낫다는 충고도 있다. 방언이 근로자의 사기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기숙사를 반드시 갖추는 것 ▲계약시 추상적인 용어는 최소화하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을 것 ▲하급기관을 무시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아일보 8. 26)

하나은행, 중국에 합작은행 설립

하나은행은 중국의 국제금융공사(IFC)산동국제신탁투자공사(SITIC) 등과 합작으로 산둥성 칭다오시에 합작은행을 설립키로 하고 28일 오전 산둥성 지난(濟南)시 치루호텔에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하나은행은 “합작은행의 총수권자본금은 3천 8백만 달러로 하나은행이 지분의 50%를 소유, 경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8. 28)

중국과의 무역서 돈 떼이는 기업 증가

12억 인구의 내수시장과 값싼 제품에 매료돼 중국기업에 뛰어난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한·중수교 5주년이 되도록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기는 데다 신용이 불량한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아 특히 현지 사정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올 상반기 대중(對中)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1조 9백 74억 원으로 94년 한해 인수실적 1조 3백억 원보다 많았다. 그만큼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돈을 떼이는 바람에 공사가 보상해준 액수도 95년엔 15억 원에서 올 상반기 70억 원으로 2배 넘었다.

(동아일보 8. 29)



국과의 무역에서 돈 떼이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어과 49명 전원 유학

전남전문대학 중국어과 1학년생 49명 전원이 이번 2학기 학점을 중국 텐진사범대학에서 받는다. 중국어과 문남규 교수의 인솔 아래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텐진사범대학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오는 12월 4일까지 중국어 회화, 문법, 작문 등의 강의와 생활연수를 받고 있다. 전남전문대는 텐진사대와 의 협약에 따라 중국 대학에서 취득한 20학점을 인정해 주고 수업료도 전액 학교측에서 부담해 줘 학생들은 기숙사비 월 10만 원만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전문대는 지난 92년 베이징 수도사범대학과 텐진사범대학, 다롄 라오닝사범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수 교환은 물론 동·하계 방학을 이용, 교수와 학생들의 전공 및 어학, 생활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단기 유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9. 8)

조선족 상대 최대규모 취업사기범 구속

인천지검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미끼로 중국 조선족 동포 2백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민병철씨(39)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 95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중국 다롄(大連)에 ‘민기유한복장공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보내주겠다며 1명 당 인민폐 3만 원(한화 3백만 원)씩 2백 명의 조선족으로부터 모두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번 사기사건은 조선족 동포상대 취업사기극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9. 12)

밀입국 중국 조선족 49명 검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남촌마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 조선족 56명 중 권태근씨(28) 등 49명이 13일 검거됐다. 군·경은 또한 지난 7일 중국어선을 타고 다련항을 출발한 87명이 12일 오후 성내리 남촌마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한국어선

에 옮겨왔으며, 이중 56명이 이 마을에 내린 사실을 밝혀내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7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또 밀입국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선에서 내리지 못한 31명이 더 있다는 밀입국 조선족들의 말에 따라 이 어선을 찾고 있다.

(조선일보 9. 13)

서울~엔지 직항로 개설 추진

중국 엔지(延吉)와 서울을 잇는 직항로 개설 등을 다루기 위한 한·중 항공협상이 내달 14, 15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항공협상에서는 서울~엔지 간 직항로 개설 문제 외에 제주~베이징 노선, 대구~청도 노선 등 지방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노선 개설방안 등 양국간의 항공현안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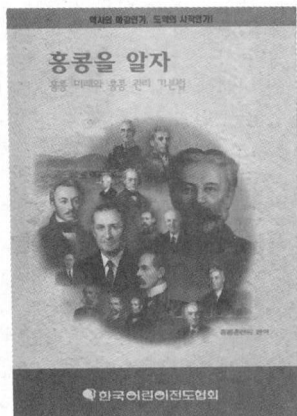
서울~엔지 직항로 개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들 노선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여름철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온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여행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일보 9. 23)

한기총,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호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중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국경관리 방해죄’와 관련, 22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유엔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탈북을 돕는 자에 대한 유화죄 법 적용, 탈북자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 개입 등을 촉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탈북자 1만 가정을 결연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국경관리 방해죄’는 밀출입국 조직이나 운송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9. 29)



홍콩을 알자

홍콩훈련원 역

373쪽 · 8,500원 · 한국어린이전도협회

“1997년 홍콩”이 과연 역사의 마감일일까, 도약의 시기가 될까 각계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홍콩은 비록 서울 남짓한 크기의 땅이지만, 하루 외환 거래량이 세계 제6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컨테이너 항구의 출입량 또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홍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홍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홍콩 역사와 문화 개괄의 일반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제2부는 기독교 역사적인 면에서 접근을 시도, 제3부는 주권이양 후 홍콩 교회의 향방과 한국 교회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제4부는 중국 입장에서 “1997년 홍콩”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부속문서를 실었다.

부록으로 중국을 사색지, 또는 연구 대상지로 정하고 준비하는 학도들을 위하여 종교 및 정치사 연대표와 중국 관계 참고도서 목록을 함께 실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콩이 대륙선교를 위한 계속적인 교두보 역할로서의 요충지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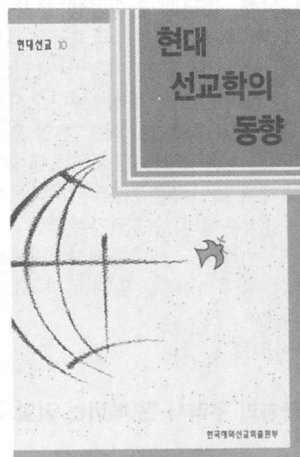
스터링 시그레이브 저 · 원경주 역

445쪽 · 8,500원 · 프리미엄북스

“이 제국은 국경도 없고 정부가 존재치 않으며 국기도 없다.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복합기업 제국이다.”

「보이지 않는 제국, 화교」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개혁개방을 표방한지 수년만에 이미 제3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2천년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파헤치고 있다. 화교는 중국땅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중국인의 감성과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여러 조직체로 중국 국민들에게 인맥과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하였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화교들의 역사를 밝히고, 화교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을 배척하는 이국땅에서의 다국적 생존능력과 돈을 벌어들이기까지의 신속한 대응원칙들을 살피고 있다. 억만장자로 간주되는 막강한 화교 경제 세력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었지만 점차 전세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기에 저자는, 일본의 경제적인 공세에 휩쓸렸던 서양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경제위협보다 이 화교들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 선교학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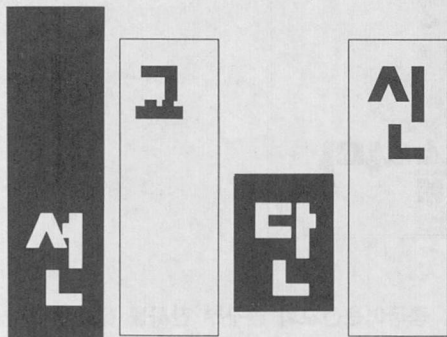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GMF) 편저, 출판

94쪽 · 3,500원

한국의 선교사가 5,000명을 넘고 있고, 국내에서 선교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이 책은 선교의 올바른 방향 전개를 위해서 ‘현대 선교학의 정립과정과 그 전망’(이태웅 박사)을 살펴보고 ‘학문으로서의 선교학’(문상철 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 선교행정가들은 21세기를 앞두고, 한국 교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전체와의 조화를 이뤄 세계선교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없이 서구의 선교학이나 선교전략 등을 무조건 수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서구의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야겠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체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나온 것들을 수용할 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선교의 방향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 현대 선교학의 정립과정과 그 전망(이태웅 박사)

특별히 금년 5월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제10차 총회에 참석한 필자들이, 현 선교학 공부 방향에 대한 동향과 캐나다에서 열린 본 총회에 대한 소감을 대담 형식의 글로 실었다.



GMTC 17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 한국선교훈련원(GMTC) 타문화권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학문적 이해를 돕고자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98년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마 감: 98년 5월 말

모집대상: 장기 선교현신자, 선교행정가,
교회 선교부 담당자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02) 649-3197, FAX 02) 647-7675

PWM '98 TARGET

해외협력선교회에서는 TARGET이란 단기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 단기 선교사를 발굴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경험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중보기도, 강의, 현장실습을 통한 문화 적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훈련기간: 1998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훈련일정: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 2회 월, 토)

훈련대상: 선교현신자 및 관심자

훈련비용: 3만 원(국내)

모집마감: 11월 10일

훈련인원: 20명

자세한 문의는 해외협력선교회로

TEL. 02) 565-3431, FAX 02) 564-8462

FIM 소속 선교사 모집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장기,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 단기 선교사는 파송받은 후 영국에서 6개월 훈련과 2년 간 사역하며, 장기 선교사는 파송받은 후 4년 이상 사역하게 된다.

선발 일정

1차 서류 접수: 1998년 2월 7일(토)까지

2차 필기 시험: 1998년 2월 7일(토) 오전 10시
시험과목-성경, 영어, 선교일반에 대한 논술 및
적성검사

3차 면접: 1998년 2월 9일(월)오전 9시

자세한 문의는 FIM 중국선교부로

TEL. 02) 835-5256 FAX. 02) 841-6783

FIM 이슬람 선교학교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위해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일시: 1997년 12월 15일~17일(2박3일)

장소: 은석교회(보라매 공원 정문)

자세한 문의는 FIM 한국 본부로

TEL. 02) 847-5989 FAX. 02) 841-6783

FIM '98 겨울 비전 트립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단기 선교 여행을 마련한다.

일시: 1998년 1월 6일~24일

지역: A팀-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불가리아

B팀-영국, 이집트, 모로코

비용: 180만 원

자세한 문의는 FIM 중국선교부로

TEL. 02) 835-5256 FAX. 02) 841-6783

선교복덕방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역내용: 인천항 중국·조선원 전도사역, 중국어성경 반 힘려, 지원, 대내외 홍보, 재정 및 사무행정 등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 전화편 간사

☎ 032)872-0742 • 호출: 015-8483-680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렵니까?

문헌정보자료 정리 및 중국선교 연구에 관심과 은사가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구부에 대한 모든 문의는 권수영 간사에게

전자우편: 하이텔, 천리안 ID : sinim

인터넷 메일 sinim @hitel.kol.co.kr

☎ 02)533-5497 팩스: 02)599-2786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글을 잊어버려 우리 말을 잘 못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곳 동북아시아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칠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족하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목: 성경, 국어, 사회(국사)

특별활동: 탁구, 수영, 작문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 02) 533-5497 (석은혜 간사)

동북아시아 지역에 386, 486급 중고 컴퓨터가 50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소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6, 486중 자판기와 본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는 부피가 크므로).

연락처

☎ 02)592-0132, 533-5497(석은혜 간사)

중국 C시 애화학교 유치원에서 1998년도

사역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정교사 3명, 행정부분 1명, 음악(피아노), 미술교사 1명 (단기로 6개월도 가능합니다.)

문의: 중국사랑 선교회, 강우찬 간사

☎ 02) 3664-1354

단기선교사를 찾습니다.

사역기간: 1년 이상(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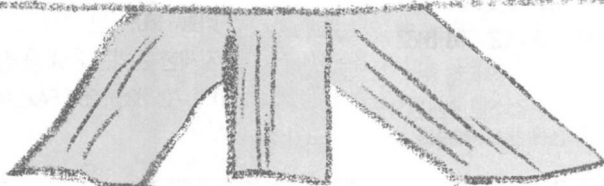
사역지: 동북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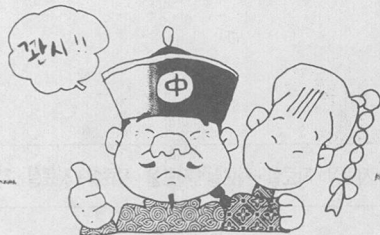
사역내용: 피아노 교사, 원예 전문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경력있는 비전공자도 가능)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 02) 793-7769(직통),

796-1300(교한202) 팩스: 749-5498





교회음악 및 찬송가 반주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족, 한국 교회에서 전자오케이나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반주자가 있긴 하지만 겨우 단음 반주만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동감한 일꾼들이 중국 G지역에 음악 학원을 세우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 곳에서 금년 겨울부터 반주자를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음악 및 찬송가 반주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은 빨리 연락주시지요.

문의: 찬가정 선교협의회, 윤길웅

☎ 02) 556-7114

가나안식품유한공사 기술 동역자 청빙

가나안식품유한공사(제과점)에서는 한국인 가운데 중국에서 일할 신실한 기술 동역자를 찾습니다.

1. 대상: 제과 기술이 있는 신실한 주 안에서의 동역자
2. 조건: 원칙적으로 모든 여비 및 비용은 스스로 부담

단, 곤란한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간의 혜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① 여비보조: 왕복 여비
- ② 숙소 및 식사 준비
- ③ 현지에서 사용할 용돈

기타 비용(생활비, 보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 연락바람

3. 제공: 주변 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A, B사업 기회, 대륙 진출의 교두보 및 능력발휘의 기회

4. 청빙기간: 장기-4개월~1년 이상
단기-최소 2주~4개월

- 5 문의: 02)533-5497 석은혜 간사

당신의 달란트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인예배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부문: 찬양, 울동, 통역

장 소: 재건서울교회(동대문위치)

☎ 763-3679

담당: 이태인 전도사

글로벌 가나안교회(GWM)에서 자원봉사자를 기대합니다.

본부 간사들의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GWM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지만 특별히 달란트가 없는 분이어도 좋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셔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릴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02)420-1450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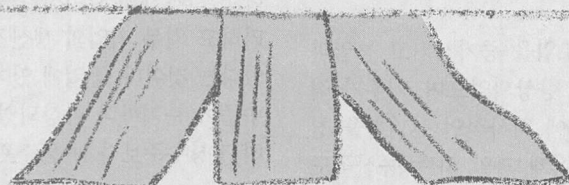
이미 읽으셨거나 방치해 놓은 책들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보내주신 책들은 중국 D시의 '한국 문화원' 도서관에 보관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 시민에게 제공 될 것입니다.

수집종류

각종 사전류, 문학전집,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시집, 소설책 등 기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도서

연락처

☎ 02) 533-5497, 592-0132(석은혜 간사),
571-3682(최남영 집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199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공보

1996년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영도와 당 14기 5중전회 및 6중전회 정신의 격려하에서 전국의 모든 민족과 인민의 공동된 노력을 거쳐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조화있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9·5계획' 첫째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국민경제 성장이 적절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였고, 통화팽창의 억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사회의 공급과 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여 시장공급이 충분하였으며,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였고 재정금융의 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국민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각종 사회사업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국내 생산총액은 6조 7,795억 원(元)으로 전년대비 9.7%가 증가하였다. 1인당 국내생산총액은 5,569원이었고 사회전체의 노동생산율은 9,902원으로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전년대비 각각 8.6%와 8.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불합리함과 일부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란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농업

농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투입을 증가시키고 농업과 학기술 보급과 응용기술이 향상되었으며, 기후가 적합하였기 때문에 식량생산에 역사적인 신기록을 창조하였다. 설탕작물, 담배, 야채, 과일, 차 등 농산물도

지속적인 증산을 이룩하였다. 시장물가 등의 요인으로 면화, 식용유, 작물, 마(麻)류의 재배 면적은 감소되고 생산량이 하락하였다.

공업과 건축업

공업생산액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연간 공업생산 증가액은 인민폐 22조 8,5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그 중 국유공업이 6.4% 증가하였고 집체공업이 17.4% 증가하였으며, 중외합자, 합작 및 외자기업을 위주로 하는 기타 경제유형의 공업은 13.1%가 증가하였다. 대중형 공업은 7.9%가 증가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 성장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부채율 구조는 다소 개선되었고 자본의 부가가치를 실현하였다.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은 65.2%였고, 그 중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65.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하였다. 자본의 부가가치율은 119.6%였고, 그 중 국유기업이 118.8%였다. 공업경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은 구조가 불합리하고 일부 기업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업에 있어서 생산과 판매의 연관성 수준이 분기마다 향상되었지만 연간 출하율은 여전히 정상수준보다 1~2% 포인트 낮았다. 제품의 재고

누적과 삼각채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완제품의 연말 자금 점유율이 연초보다 750여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수해야 할 순자금의 1,200여억 원 늘었다.

기업적자가 비교적 심각하고 적자범위가 23%에 달해, 1.7% 포인트가 상승하였으며, 이윤총액 중 손실액이 접하는 비중이 24.8%로 6.2% 포인트가 상승하였으나 공업경제 운행의 질은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

사회 전체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2조 3,6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2%(물가요인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12.7%)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유경제투자가 1조 2,359억 원으로 13.4%가 증가하였고, 집체 경제투자가 3,490억 원으로 6.1%가 증가하였고, 기타 경제유형의 투자가 4,481억 원으로 37.0%가 증가하였다. 기본 건설투자는 8,399억 원으로 13.4%가 증가함으로써 전년대비 1.6% 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부동산 건설투자는 3,825억 원으로 21.5%가 증가함으로써 1.8% 포인트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투자 증가폭이 여전히 중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1996년 12개 동부지역의 연간 투자총액은 1조 380억 원으로 17.4%의 증가율을 보였고, 9개 중부지역의 연간 투자총액은 3,682억 원으로 16.6%의 증가율을, 9개 서부지역의 투자총액은 2,113억 원으로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운송 및 채산업

교통운송 및 채산업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교통운수와 채산업의 신규 증가액은 3,8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1% 증가하였다. 교통운송량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철도는 화물의 운송량이 증가한 반면, 여객 운송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도로 및 항공은 화물운송과 여객운송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공용채산업의 용량규모와 기술수준은 새로운 단계를 향해 매진하였다.

전국 도시와 농촌의 전화교환기 용량은 1만 864만 문에 달하였고, 그 중 국용(局用) 교환기 용량은 전년대비 2,107만 문이 증가한 9억 3,185만 문에 달했으며, 전화의 프로그램제어화 비중은 99.49%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신규 전화사용 가정은 1,745만 호에 달하였고 전체 전화사용 가정은 6,179만 호에 달하였다. 전화보급율은 6.33%로 전년에 비해서 1.67%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화가 개통된 행정촌은 39.4만 개에 달하여 행정촌 총수의 53.49%를 접하였다. 새로운 업무가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이동전화의 연간 신규 사용자는 322만에 달했으며, 전체 사용자 수는 685만 호에 달하여 전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다.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는 전년대비 3.7배가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통신망의 혼잡시 접속율은 40.16%에 달했으며 장거리 전화 자동접선율은 전년에 비해 7%가 증가한 52.3%에 달하였다.

유통과 시장물가

국내 소비재 시장의 공급은 충족되었고 판매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조 4,6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9.4%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증가율은 12.5%였다. 도시와 농촌별로 살펴보면 도시의 소비재 소매총액은 1조 4,921억 원으로 전년대비 20.1%가 증가하였고, 현 및 현이하에서의 소비재 소매총액은 9,693억 원으로 18.3%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각각 13.5%와 11.2%였다.

경제유형별로 볼 경우 국유경제의 소매액은 6,787억 원, 집체경제는 4,687억 원, 사영경제는 791억 원, 기타 경제는 1조 2,351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 13.5%, 40.6%, 27.14%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영업액은 전년에 비해 17.4%가 증가하였고, 요식업의 소매총액은 전년대비 27.2%가 증가하였다. 자유무역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였고 연간 거래액은 1조 4,69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다.

인플레이의 억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장물가의 상승폭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 연간 상품소매물가와 주민 소비재 물가는 각각 전년대비 6.1%와 8.3%가 증가하여 상승폭에 있어서 각각 8.7% 포인트와 8.8% 포인트가 하락함으로써 물가억제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였지만, 일부 상품 특히 서비스업종의 가격상승폭은 매우 컸다.

대외경제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연간 수출입 총액은 2,889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총액은 1,511억 달러로 1.5%가 증가하였고, 수입 총액은 1,388억 달러로 5.1%가 증가하였다. 수출입 상품 구조가 개선되었고 기계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은 전년의 29.5%에서 31.9%로 상승하여 중국의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수입 분야에서 국내에 부족한 원자재와 에너지 및 교통설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 기업들의 연간 수출은 1,371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24.8%가 증가하였고, 전국 수출입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9.1%에서 47.3%로 상승하였다.

외자유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연간 실제 외자유치액은 552억 7천만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23억 5천만 달러로 12.2%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가 보다 개선되고 기초 시설과 기초산업, 자금 및 기술집약형 항목이 증가하였다. 대외경제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외적인 건설청부와 노무합작의 신규계약액은 102억 7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서 6.2%가 증가하였으며, 영업실행액은 77억 달러로 16.8%가 증가하였다.

국제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관광, 방문, 비즈니스 등 각종 활동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연간 입국 인원수는 5억 1,127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하였으며,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은 102억 달러로 그 증가율이 16.8%에 달하였다.

교육

각급 각종 교육사업이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였다. 대학교육 관리체제 개혁이 발전을 이룩하였고 학교배치도 조정되었다. 대학은 1,032개로서 전년에 비해 22개가 감소되었고 성인대학은 1,138개로서 18개가 감소되었다. 대학생 모집인수는 96.6만 명으로서 전년대비 4만 명이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02만 명이었다. 성인대학생 모집인원은 94.5만 명(통신대학 전문대생 8만 명 포함)으로서 전년대비 3만 2천 명이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265만 6천 명(통신대학 전문대생 18만

7천 명 포함)이었다. 석사연구생은 5만 9천 명을 모집하여 전년대비 8,345만 명이 증가되었고, 재학생 수는 16만 2천 명으로 1만 7천 명이 증가되었다.

중등 직업교육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각종 고급, 중등 직업학교의 재학생 수는 1,010만 명(직업학교 학생 192만 명 포함)으로서 고교수준 재학생 총수 1,780만 명의 56.8%를 차지했다.

9년제 의무교육 사업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국의 중학교 학생 수는 5,048명이고 중학교 입학율은 82.4%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0.3% 포인트가 증가되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생퇴학율은 각기 3.5%와 1.3%에 달하였다.

희망공정은 국내의 기부금 2.9억 원을 유치하여 학업을 중단한 29.6만 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원조금으로 1,560개의 희망초등학교를 건설하였다.

성인 중등과 초등교육이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다. 성인 중등전문학교 학생은 310만 명이었고, 성인 기술훈련학교 연수생은 연인원 8,377만 명이었다. 연간 407만 명의 문맹을 제거하였다.

문화와 위생, 체육

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으로 예술연기단체는 2,685개, 문화관은 2,864개, 공동도서관은 2,641개, 박물관은 1,205개, 문서국은 3,600개에 달하였다. 라디오 방송국은 1,238개, 중단파라디오 송신소와 중계소는 743개, 라디오 방송 청취인구의 가청취율은 83.7%였다. TV 방송국은 880개, 1KW 이상의 TV 방송국과 중계방송국은 1,245개, TV 시청인구의 가시청율은 86.1%였다. 각종 영화상영 기관은 6.9만 개였다. 연간 110편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장편 새영화 174편을 발표하였으며, 11편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14개 항목의 상을 받았다. 국가급 및 성급 신문 181억 부가 출판되었고, 각종 잡지 24억 4천만 권을 출판하였으며, 70억 8천만 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위생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의 위생기구는 18만 9천 개, 병원침대는 310만 개에 달하였고, 그 중 병원과 위생원의 병상은 287개로서 1.1%가 증가하였다. 위생기술인원은 431만 명으로 1.3%가 증가하였다. 그 중 병원과 위생원의 의사는 138만 명으로서 6%가 증가하였다. 고급 간호원과 간호원은 102만

업이 강화되었다. 위생방역과 예방기구는 5,887개이고 전년대비 0.9%가 증가하였다. 부녀자와 아동 위생시설은 3,254개이고 위생기술 인원은 14만 명으로 4.7%가 증가하였다. 농촌(鄉鎮)의 위생원은 5만 1,227개이고 병상은 73만 5천 개로서 0.2%가 증가하였다. 위생기술 인원은 94만 명으로서 2.5%가 증가하였다. 의료지점이 있는 농촌은 전체 농촌 숫자의 89.1%를 점하였으며 농촌의사와 위생원은 132만 명이다.

인구

인구증가 통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적을 거두었다. 연간출생율은 16.98%였고 사망율은 6.56%, 자연성장율은 10.41%였다. 연말 전국 인구는 12억 2,389만 명으로서 전년 말 대비 1,268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인구는 3억 5,950만 명으로서 전국 인구 총수의 29.4%를 차지하였고, 농촌인구는 8억 6,439만 명으로서 전국 인구총수의 70.6%를 차지하였다.

각 가정의 평균인구 규모는 3.70명으로서 0~14세 인구의 비중은 26.4%, 15~64세 인구의 비중은 67.2%,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중은 6.4%였다. 인구의 평균 수명은 70.8세로 나타났는데 그 중 남성은 68.71세이고, 여성은 73.04세이다.

인민생활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도시인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생활 수입이 각기 4,839원과 4,377원으로서 전년대비 13%와 12.4%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3.8%와 3.3%가 증가하였다.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1,926원으로서 22%가 증가하였고,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주민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일부 성(省)과 지역주민의 실제수입은 하락하였다. 일부 저소득 주민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취업 추세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었다. 전국의 정업(正業) 인원수는 6억 8,580만 명으로서 전년 말 대비 900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 직공은 1억 4,960만 명으로서 52만 명이 증가하였고, 도시의 사영 개체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300만 명으로서 25만 명이 증가하였다.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억

3,140만 명으로서 278만 명이 증가하였다. 향촌 사영 기업과 개체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4,114만 명으로 589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3만 1천 개의 각종 직업소개소가 설립되어 연인원 890만 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390만 명을 조직하여 각종 취업훈련에 참가시켰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0여만 명의 실업자와 직장을 떠난 기업인원의 재취업을 실현하였다. 연말 전국의 도시에 등록된 실업인원수는 533만 명으로서 등록된 실업율은 3%였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연간 도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210원으로서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였고,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3.8%가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거주조건도 개선되었다. 도시에서 새롭게 건설한 주택면적은 3억 6천만㎡이고, 농촌에서 건설한 주택면적은 7억 6천만㎡였다.

1996년 말 전국 각종 사회복지원은 102만 개에 달하여 77만 명을 수용하였다. 도시 지역사회봉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13만 6천 개의 지역사회 봉사시설을 설립하였으며, 그 중 지역사회 봉사센터는 4,670개였다. 사회구제 개혁이 가일층 심화되어, 전국적으로 101개 도시에서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확정하였다. 국가의 구제를 받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은 연인원 3,829만 명에 달하였으며 국가 무상원조와 보조 등 각종 우대, 위문 대상은 450만 명이었고, 퇴역군인의 생활과 취업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출처/ 「인민일보」 1997. 4. 5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關於 1996年 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幽 默 ·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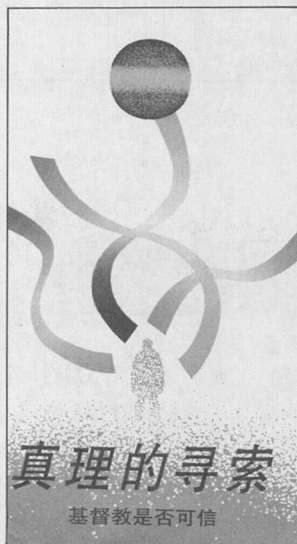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소개자 소개

眞理의 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티(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티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충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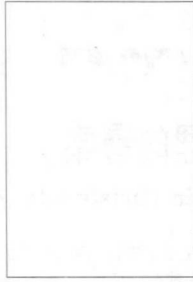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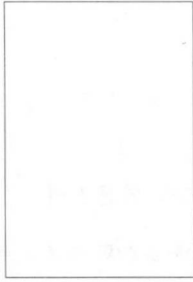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선교도서 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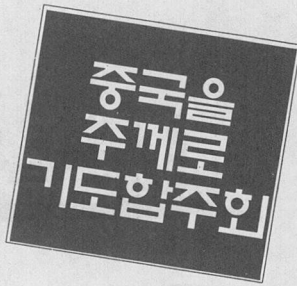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9개:25,000원) | 12,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친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Tape 72개:72,000원) | 25,000원 |
| 9. 중국어 찬양 Tape |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0.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1.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 의: TEL. 02) 535-4255 FAX. 599-2786(담당 조직원 간사)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 19)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써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 : 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가 열립니다.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유성당) 402호
전화: 02)592-0132, 594-8038

중국어문선교회

창립 8주년감사예배 및 후원회원 초청의 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삼상 18:1)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비전과 우정을 다지며,
다윗과 요나단이 된 주님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21세기를 주님과 함께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나눕시다.

날짜: 1997년 12월15일

시간: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내용: 예배와 선교보고 및 친교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02) 592-0132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7년 11·12월호(통권48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산·김종하·김피득
왕쓰웨이·지민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이민선
권수영·김은화·안정숙
편집디자인/ 정광숙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10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 ~4
값/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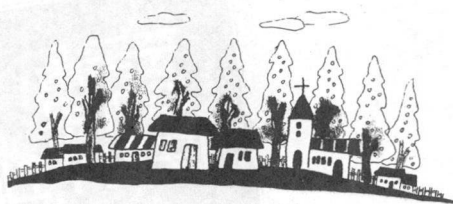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 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세요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편집후기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었게 같은데 이제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되돌아본다. 해마다 항상 그러했듯이 올해도 부족함과 아쉬움만 남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호에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이 정작 궁금해 하는 실제사역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깊이있게 다루지 못해 죄송함을 전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교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보안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을 사랑하는 독자의 이해를 바라며 이 글이 아무쪼록 중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해 다루었다. 뒤늦게 도착한 자료 때문에 편집부원들은 얼마나 가슴을 조렸는지 모른다.

그동안 중국 신앙인들은 애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번호로 신앙인문을 마치고자 한다.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는 새해에도 사도 바울이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헌신을 결단하고 변함없이 문서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중국을 주께로』를 애독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석)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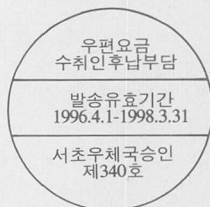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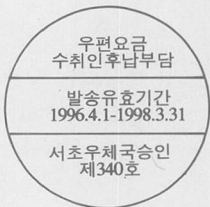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1997년 11. 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4,000원(6권) ☐ 2년 48,000원(12권) ☐ 3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1998학년도

중국선교사 훈련원 훈련생모집

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 사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현지 훈련을 통한 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중국전문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기간

1998년 3월 3일~2000년 2월 28일
2년(평일 주간) - 국내교육, 해외실습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 훈련

공동체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 실습

중국어: 기초에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

중국선교 사역학

중국학

일반선교 사역학

교육장소: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전형방법: 서류/필기시험/면접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7년 10월 1일~11월 29일까지

모집인원: 〇〇명

제출서류: 본원지원서 /신앙고백서 /최종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

시험일자: 논술(1997년 12월 8일)

면접(1997년 12월 9일~10일)

합격자 발표: 1997년 12월 22일

개원일자: 1998년 3월 3일

특 전:

1. 본 훈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Diploma of China Ministr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생 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 장학제도 있음.

문 의: 전화 02)318-3956

팩스 02)773-627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억 억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